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 / 논설고문:고은 / 편집국장:최정희 / 인쇄인:김규석 / 등록번호: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737-8881 / 편집국:722-4162 FAX:737-0698 / 광고국:737-0692 / 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4월 1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18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전문가 양성 무대책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다가오는 21세기는 고급화된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시대다.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도태하지 않으면서도 대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교계의 전문인력 양성 현황은 어떠한가.

얼마전 교계 ㄱ학술연구원의 기획실장 스님은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불교사전 편찬에 참여할 연구원 모집공고를 4대 PC 통신망에 띄웠다. 자격요건은 '불교학·불교철학 전공자로 한문 및 범어·팔리어 가능자'. 불교학 전공 인재를 구하는데 교계 내에서는 적당한 인력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결국 통신망에 구인광고(?)를 띄웠다고 한다.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국대 등을 통해 알아봤지만 도무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불교학의 최대 교육기관이라고 자부하는 곳에서 마저 인력수급이 안되는 현실은 교계 인재불사의 한 단면일 뿐이지요."

인재불사 체계화
정보화 사회 대응

한국 대표종교로서 대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다하려면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복지, 교육, 정보통신, 예술, 법률 뿐만 아니라 대북관련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1~2년 뒤 길게는 10~20년 뒤에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이뤄지는 인력수급은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또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기존 기관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장학사업의 구조개편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장학회를 그 성격과 내용에 따라 재개편, 중단 차원의 장학재단을 발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함께 인력수급에 있어 공채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향상과 신분적 보장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장기적 안목의 '인재불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조계종 청사 9월 '첫삽'

180억 예산 2001년 완공…2005년까지 성역화 마무리

고산스님 "새도량에서 새불교" 밝혀

빠르면 9월께 조계종총무원 청사 신축공사가 시작된다.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7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고 "현 교육원 위치에 지상 3층, 지하 3층, 연건평 4천5백평 규모의 총무원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2월 서상우 국민대 건축학과교수(한국박물관건축학회장)와 박언곤 홍익대 건축학과교수(한국건축역사학회장)에 의뢰, 총본산 성역화 사업 기본계획에 착수토록 했으며, 5월중 공청회를 거쳐 설계에 들어가 9, 10월께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백8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1년 완공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20개 교구본사 주지들은 성역화 사업 계획 및 진행을 총무원에 일임하기로 결의했다.

'성역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성역화 사업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3단계로 진행된다.

▲단기계획(1999~2001년) : 현 교육원 위치에 청사 신축해 종합적인 행정·업무지역 확보.

▲중기계획(2000~2003년) : 조계사 경내 환경개선을 위해 남측 마당을 확장하고, 가로변의 사찰 진입부에 조계종을 상징하는 대문과 건물을 신축한다.

▲장기계획(2001~2005년) : 불교종합박물관을 비롯한 복합문화예술관을 건립, 사부대중을 위한 역사와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토록 한다. 박물관은 2천평, 문화예술관 1천평, 불교관련 단체 사무실 2천평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75년 완공돼 조계종 종무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현재의 청사는 철거된다.

특히 현 청사는 94년과 98년 폭력의 현장이 되었다. 청사가 곧 분규의 상징처럼 인식됐음도 사실이다. 새 청사 신축은 이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2000년대를 선도하는 '새 불교'를 정립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고산스님이 취임초 청사신축을 거론하며 종단분규 원인으로 청사 높이가 대웅전보다 높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청사의 지상 층수를 3층으로 한정도 주목을 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 모형도(안). 대웅전 뒤쪽으로 총무원 청사가 배치된다.

조계종 혜암종정 5월11일 추대식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스님 추대법요식이 5월 11일 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혜암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해인사 원당암측은 6일 총무원과 일정을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정부 사찰주변 건축규제 법령 폐지

사찰수행환경 훼손 비상

조계종 재개정 촉구

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규제했던 건축법 8조4항이 폐지됨에 따라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공포했으며, 개정 건축법은 5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사찰 주변 사유지에서의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없어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부 관계당국에 8조4항의 부활할 것을 촉구키로 결의했다.

폐지된 8조4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미관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사찰 주변의 건축행위를 막아왔다.

정성운 기자

국제 재가불교성직자련 결성

진각종-조불련 북경회담서 합의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2일 북경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들과 실무회담을 갖고 국제재가불교성직자연합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국제재가불교성직자연합은 진각종과 북한 일본 네팔의 재가종단이 참여하며, 연락사무소는 네팔에 두기로 했다.

양측은 6월경 북경에서 2차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스님)도 3일 북경에서 조선불교도연맹과 실무회담을 갖고 강원도 안변에 제2 국수공장을 건립키로 했다. 또 부처님오신날 합동법회를 미국이나 일본에서 개최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5월8일 오후7시 세계평화기원 타종 조계 · 해인사등 동참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타종식이 5월 8일 오후7시 전세계에서 거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사 수덕사 해인사 상원사가 타종식에 참가한다.

이번 타종식은 오스트리아 종제조회사인 그라스마이어사와 오스트리아정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전세계가 같은 날, 같은 지역시간에 타종함으로써 평화의 종소리가 전세계를 한바퀴 돌며 울려퍼지게 된다.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측은 종단협의회를 통해 한국 사찰의 참여를 당부하며 "문화와 종교, 국가를 초월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연결하는 행사"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구산선문 참선 기행

4월 : 가지산문(보림사)-운주사 · 쌍봉사

본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불교의 선맥을 따라 '구산선문 참선기행'을 떠납니다.

4월 첫 기행은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인 보림사와 와불로 유명한 운주사, 국보 철감선사부도탑이 있는 쌍봉사를 참배합니다.

구산선문에 대한 이해는 독자 여러분의 신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발: 4월 24일(토) 밤10시 · 조계사 앞
◇안내: 황호균(전남대 박물관 학예연구사)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 한국불교연구원
협찬 :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알림

TV 인터넷 불교정보사업 시작합니다

컴퓨터의 '컴'자도 모르는 '컴맹'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보는 TV에 인터넷TV 수신기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인터넷 검색에서 PC통신 전자우편까지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리모콘으로 작동하는 '인터넷 안방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불교정보화에 앞장서온 본사는 홈TV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TV'에 불교정보를 독점 제공합니다. 또, 인터넷 TV를 통해 종단 종무행정 네트워크와 포교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개시합니다. 인터넷 TV에 가입하시면, 종단이나 사찰의 각종 공문, 법문자료 등을 인터넷TV로 송·수신할 수 있으며 불교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종단과 사찰, 불자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기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략정보실
(02)732-1520 ·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생명나눔실천' 4월 대법회

화장유언 및 사후 장기기증 서약

△1차: 1999년 4월 18일 오전 10시30분 광주 증심사
△2차: 1999년 4월 22일 오전 11시 예산 수덕사

주최 : 생명나눔실천회 ·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 수덕사 · 증심사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6면



사 설

불교생협운동에 거는 기대

농촌지역 불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도시지역 불자들에게 연결해주는 불교생산협동조합운동은 불교가 생명과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적절한 실천적인 대안이다. 남원 실상사의 불교귀농학교와 조계사 봉은사 석왕사 등 20여개의 사찰과 단체가 중심이 되어 불교생협학교를 개설하고 '도농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은 불교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창출이라는 점에서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 운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찰이 중심이 되어 도시와 농촌지역 불자들을 농업생산물을 매개로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구조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농민은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헐값에 출하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모순구조였다. 농민은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작물에 농약을 과다살포하고, 도시소비자는 아무 대책없이 그것을 소비해야 했다. 이것은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유통구조였다.

불교생협운동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자는 생명운동이자 환경운동이다. 농민들은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생협을 통해 좋은 값에 공급하고, 도시주민은 건강한 농산물을 싼값에 공급받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찰은 이 사업을 사회운동, 또는 새로운 생명살리기운동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농촌이나 도시주민 모두에게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범불교적으로 전개해 볼만한 운동이다.

그러나 이 운동이 성공하자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맞아야 하고 중개를 맡는 농촌이나 도시지역 생협들이 지역주민과 공동체적 연대감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교가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찰은 전통적으로 농촌을 기반으로 입지하고 있어서 지역주민과 매우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교부진으로 서양종교에 많이 잠식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다.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나선다면 농촌공동체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다. 또 생협을 중심으로 하는 도농공동체를 추진할 경우 도시지역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은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이템이다.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매우 크다. 우선 사찰이 나서서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을 경제적 생명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의 측면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기대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찰이 중심이 되는 생협을 통해 도농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므로 해서 그 등안 취약해진 포교기반을 확충한다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 불교생협운동이 몇몇 사찰이나 단체만이 나서야 할 일이 아니다. 불교계 전체가 나서서 생협운동을 하나의 새로운 종교운동, 또는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다.

불교는 지금까지 시주자인 불자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불교는 안타깝게도 나태와 무책임, 나아가서는 실망스러운 분쟁까지 거듭하면서 제 역할을 못해왔다. 이런 현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불교생협운동을 반드시 성공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암사 30년새 불화 54점 도난

태고종 '후불탱화 복원추진위' 결성
조계종·태고종 공동책임론 대두
"경내 창고에 보관" 선암사 도난 부정

사찰 소유권을 둘러싸고 조계종과 태고종이 대립해온 전남 순천 선암사(주지 인곡스님)에서 30여년간 불화 54점이 도난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이 7일 '선암사 후불탱화 복원불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화재전문가들은 69년부터 99년까지 선암사에서 도난당한 불화의 수를 54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한국고고미술연구소에서 발간한 〈미술사학지-제2호〉와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의 불화-선암사편〉에 수록된 불화를 비교한 통계다. 선암사가 69년까지 불화 125점을 소장하고 있었지만, 현재 71점만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고종 혜우스님(선암사 재무)은 "불화 54점 도난설은 낭설일 뿐이다. 올해 말 성보박물관을 완공하면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불화를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암사는 지난해 12월부터 108평 규모의 성보박물관 짓고 있다.

그러나 선암사는 공사비 16억원중 3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성보박물관 완공시기는 2천년까지 늦어질 전망이다. 불화 공개가 늦어진 만큼 '54점 도난설'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보도난에 대해 세민스님(조계종측 선암사 주지)은 "주인이 집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 기인한다"며 "성보를 보존할 기구를 운영하는 조계종이 선암사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전문가들은 조계종이 '선암사' 관리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성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계종에서는 선암사 소장 성보에 대한 조사를 한일이 없기 때문이다. 선암사 불화 도난 사건에 대해 조계종과 태고종의 공동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불화〉를 펴낸 범하스님은 "선암사 불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합심해 현재 남아있는 불화에 대해 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은 것이 최상책"이라고 강조했다. 선암사가 소장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18점 가운데 불화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괘불(유형문화재 27호) 1점뿐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도굴범에 1억 수뢰 문화재단속반장 구속

전 문화관광부 문화재사범 단속반장이 재직 당시 문화재 매매업자와 도굴범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혐의로 검찰에 불잡혔다.

서울지검 형사5부 최용순검사는 8일 1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 6급 공무원 김무준(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퇴직한 김씨는 단속반장으로 일하던 94년 11월부터 대전에서 문화재 매매를 해오던 손수석(64·구속중)씨 등 3명에게 문화재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1억1천40만원을 받은 혐의다.

오종욱 기자

◇선암사 도난 불화 목록

불화명	제작연대	불화명	제작연대
불조전 칠불탱	1702년	진영각 계음당진영	연대미상
불조전 53불탱(3점)	1702년	진영각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	1743년
대웅전 석가모니후불탱	1702년	진영각 환성당대선사진영	연대미상
괘불	연대미상	진영각 계봉당대화상존영	연대미상
팔상전 화엄탱	1780년	진영각 향서당담휘진영	연대미상
팔상전 천불탱	1907년	진영각 청하당대선사진영	연대미상
팔상전 팔상탱(8점)	1708년	진영각 청담당이현대화상진영	연대미상
팔상전 33조사탱(4점)	1753년	진영각 연대당조영대선사진영	연대미상
각황전 아미타탱	1751년	진영각 상월당대화상진영	연대미상
나한전 삼불탱	1802년	진영각 흥곡당정안대사진영	연대미상
명부전 시왕탱(2점)	연대미상	진영각 상월당대화상진영	1990년
삼성각 칠성탱	1895년	진영각 정파당대선사진영	연대미상
염불당 독성탱	1879년	진영각 월암대화상진영	연대미상
비로암 신중탱	1780년	진영각 설월당대화상진영	연대미상
향로암 신중탱	1819년	진영각 문월당대선사진영	연대미상
노전 채금병풍(3점)	연대미상	진영각 벽파당찬영대선사진영	연대미상
범자병풍	1902년	진영각 청공당대화상각원진영	연대미상
진영각 소요당대화상진영	1832년	진영각 완담근일대화상진영	연대미상
진영각 첨굉당대선사진영	연대미상	진영각 환월당대종사진영	연대미상

본사주지 권한확대 종회 건의

조계종 본사주지회의…성보도난 대책도 논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고산)는 7일 불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본사주지 권한확대를 중앙종회에 제안키로 결의했다.

이같은 결의는 중원스님(관음사 주지)은 "본사주지들이 각종 법령의 제정과 예산 편성, 종책결정 때 종헌·종법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중원스님은 "본사주지들 사이에서 이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본사주지 대다수의 의견임을 시사했다. 중원스님은 또 "지난 종단사태 때 본사주지들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도 권한이 미약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의는 94년 종헌·종법을 개정하며 본사주지의 종회의원 겸직금지 등을 통해 권한을 축소한 것에 배치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종회의원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어서 이후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승가대학 정원 하한선을 현행 30명에서 10명으로 하향조정키로 결의했다. 이로써 가인가된 수덕사 불국사 화엄사 직지사 쌍계사 등 5개 승가대학의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회의에서는 또 성보도난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미신고된 도난성보 목록을 총무원에 제출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행자교육 이수자중 70% 기본교육기관 입학 기피

조계종 교육원 자료

조계종 사미·사미니의 기본교육기관 입학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95년 이후 행자교육을 이수하고도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사미(니)가 행자교육 이수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69.8%) 1천1백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원에 따르면, 95~98년 기간 동안 시행된 8~15기 행자교육 이수자는 1천7백4명이다.

교육원(원장)은 7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8~15기 행자교육 이수자 중 기본교육기관 미입학자 본사별 현황'에 따르면, 사미는 452명, 사미니는 738명으로 모두 1천1백90명이다.

교육원은 이날 "각 교구본사에 기본교육기관 미입학자 명단을 통보했다"며 본사주지들에게 사미(니)에 대한 기본교육기관 입학을 독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원은 은사스님들의 시봉, 토굴생활 등의 이유로 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포교연구실 문서포교 활발

'포교방법론' '상담자료집' 등 잇달아 출간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화암스님)이 최근 포교·수행·교육관련 교재와 자료집을 잇달아 발간하고 있어 활발한 문서포교가 펼쳐지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군장병·병원·실직자·청소년·사찰문화재 홍보용 등 5권의 포교소책자에 이은 '재소자용' 소책자를 비롯 〈포교방법 개발을 위한 의식조사 자료집〉 〈수행지침서〉 〈수선교본〉 〈불교상담 자료집〉 등이 이달중에 출간되며, 〈중고등 교과서 불교관련 자료집〉 및 〈포교론〉이 5, 6월에 잇달아 발간된다.

12일 발간된 〈포교방법 개발을 위한 의식조사 자료집〉은 지난해 10~11월 스님 포교사 등 포교 종사자 1천17명, 신도회 회원 등 포교수요자 8백81명을 대상으로 불자들의 신행 및 포교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것.

또 〈수행지침서〉와 〈재가자를 위한 수선교본〉은 재가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상담 자료집〉은 상담사례의 유형 분석 및 통계자료 등을 담은 최초의 불교상담이론 교재가 될 전망이다. 〈중·고등 교과서 불교관련 자료집〉은 종교편향 및 불교 왜곡의 우려가 있는 교과서 내용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와 공동으로 제작중인 〈포교론〉은 중앙승가대 및 동국대 불교학부 등의 교재로 사용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통도사 지분' 등 논의 btn특위 본격 활동

조계종 불교TV 정상화특위(위원장 정휴)는 7일 회의를 열고 불교TV 대표이사 신허스님 등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14일 현장방문을 벌이기로 했다. 신허스님은 이날 보고에서 "현재 부채 및 미지급금이 70억원에 이르나, 조만간 급한 부채를 갚겠다는 후원자가 2~3명 나올 것"이라며 통도사측의 경영권 계속유지 의사를 비쳤다.

김주일 기자

승가대 김포학사 특위 위원장에 종하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김포학사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특위위원장에 종하스님(관음사 주지)을 선출했다.

또 위원장 종하스님을 비롯 원택, 계성, 정휴, 영담, 대원스님, 승가대 법인사무처장(공석)으로 7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특위는 소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이양, 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김포학사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보안강화

봉 전국신도회 제18대 선진규회장 및 임원 취임법회 축

불자 여러분!

한국불교의 중흥과 대중포교는 출가와 재가의 균형된 발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아프게 비춰진 불교계의 모습에 참회하며 이제 전국신도회는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여
대승불교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 위해 임원 취임법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전국 신도회를 아껴 주시는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1999년 4월 24일(토) 오후 2시
■ 장 소 : 불교방송국 대법당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 제18대 회장 취임법회 준비위원회
초 청 인 권노갑 김양수 노무현 유주향 이한동 이홍세 한정섭 황명수
준비위원장 김재일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국신도회 ☎ 02)732-7272~5 FAX 02)732-7275

임시총회 전국대의원 소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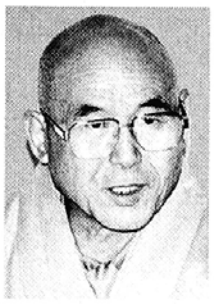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 대의원 임시 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1999년 4월 24일(토) 14:00
▶ 장 소 : 불교방송국 대법당
▶ 내 용 : 1. 정관개정의 건
2. 임원선출보고의 건
3. 기타사항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
대의원 의장 선 진 규

인터뷰 조계종 새 원로의장 탄성스님

"뉘우침 있어야 화합 빨라져"



"원로회의는 사실상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조계종 새 원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탄성스님(공림사 조실)은 7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종단이 어려울 때 수습하기 위해 나서는 것 뿐이지요. 평소 때는 총무원장과 종회의장이 다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종단화합을 위한 방안은.

—화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해야 하는데, 저쪽(정화회의)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관용을 베풀고 싶지만, 지금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자비는 상벌이 분명해야 한다. 멸빈자에 대한 구제도 종정스님과 총무원장, 종회의장 등이 합의해서 종헌을 고치면 가능하다. 본인들이 뉘우침이 있어야 하는데, 총무원 간판을 걸어놓고 있다. 시간이 많이 흘러야 할 것 같다.

▲바른 승가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출가사문의 뜻은 깨우침에 있다. 자기 수행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출가 때 마음으로 돌아가면 된다. 포교도 해야 하지만 자기 마음을 깨우치는 것이 우선이다.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산문 밖으로 나오셨는데….

—종단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를 부르는 청을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수행자다. 산문 밖을 나갈 때나 지금이나 수행한다는 생각은 다르지 않다.

▲종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며 자기수행에 전념하길 부탁한다. 나의 은사인 금오스님은 늘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座臥 語默動靜)이 모두 수행이라고 하셨다. 나도 수좌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목어

선암사

빈집에 도둑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것도 보물이 가득한 빈집이라면 더욱 그렇다.

도둑이 30여년간 선암사 탱화를 곶감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50여점이나 훔쳐갔다. 충격적인 사건이다. 불자들은 물론 비불자들도 어이없어 하고 있다. 주인없는 집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일이 있느냐는 반문이다.

"스님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선암사는 소유권 분쟁사찰이라면서요. 당연히 거기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해묵은 소유권 문제를 해결 못한 사찰이다. 선암사의 법적 소유자는 조계종이다. 그러나 오랫 동안 절을 점유해 온 태고종은 그곳에 총림을 개설하고 강원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대립속에 선암사 재산관리는 순천시가 맡고 있다. 그러니 선암사는 스님들이 살고 있어도 빈도량처럼 허술할 수밖에.

선암사에 다녀온 사람들은 말한다.

"고찰의 아름다움에 반했어요. 그런데 너무 퇴락해서 얼마나 갈지 걱정입니다."

그 퇴락이 당우의 외면만 아니라 속살까지 파고들어 성보인 탱화가 무더기로 증발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어이없는 일은 잘못을 서로 떠넘기거나 '모를 일'이라는 책임 회피다.

경찰에 의하면 "태고종측이 자신들의 문화재 관리능력에 흠집을 내기 위해 조계종측이 개입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를 펴고 있다"고 한다.

조계종측은 그 말에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다. 관리자 순천시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선암사에 유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모르쇠'로 통할 일이 아니다.

태고종측은 이런 말도 하고 있다. "태고종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

성보를 잘못 모신 반성이나 잃어버린 아픔, 관리소홀 또는 관리부재에 대한 책임은 모두들 뒷전으로 돌리고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뼈아픈 책임의식속에 남은 성보지키기와 사라진 탱화찾기 대책을 함께 세우고, 이 기회에 소유권 문제도 슬기롭게 풀어야겠다.

다툼은 파멸의 원인이다.

선암사 탱화는 특정 종단을 떠나 천만 불자의 성보이며 국민의 보물이다.

희망-나눔-정진 "우리도 부처님같이"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확정

5월 자비실천-문화행사 등 잇달아
연등축제 서울시문화제로 첫행사



◇지난 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참가한 불자들이 등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봉축위원회(위원장 고산, 집행위원장 원택)는 7일 연등축제와 각종 문화행사, 자비실천 등 주요 행사 일정과 봉축행사의 방향을 밝혔다. 〈도표 참조〉

'우리도 부처님 같이' '안정과 화합으로 세상을 따스하게'란 표어 아래 5월 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봉축기간이지만, 이에 앞서 22일 경기도 김포 애기봉 봉축탑에 불을 밝혀 북녘에도 자비의 빛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올해 봉축행사는 희망과 나눔을 구현하고 참회 정진하는 불교의 본모습을 널리 알린다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된다. IMF관리체제로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고, 지난 해 조계종사태로 얼룩진 불교 이미지를 씻어내고 바르게 정진하는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봉축행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5월 16일 동대문운동장-조계사 구간에서 펼쳐지는 연등축제는 올 행사의 하이라이트. 올해 처음 서울시 지역특성문화제로 지정됨에 따라 불자들만의 행사가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문화한마당으로 꾸며진다.

이에따라 올해 연등축제는 각종 전통 등에 중점을 둬 볼거리를 풍성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등이 갖는 지혜와 소망의 의미를 강조해 부처님오신날이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과 함께 삶의 희망을 나누는 날로 맞이하는 축제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외국인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시간도 예년의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연등축제에서는 또 경북 안동과 마산시 진동에만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 고유의 불꽃놀이인 줄불놀이를 재현해 불교문화와 민속의 결합도 시도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22일 오전10시 조계사를 비롯 전국의 모든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법요식에서는 남북불교도의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공동발원문이 발표되며,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도 이날 묘향산 보현사 등 주요사찰에서 법요식을 봉행한다.

각 지역에서도 봉축위원회가 조직돼 부처님오신날 봉축에 분주하다. 부산봉축위원회(위원장 성오) 대구봉축위원회(위원장 성덕) 광주·전남봉축위(위원장 종걸) 전북봉축위(위원장 도영) 보은봉축위(위원장 혜광) 영주봉축위(위원장 전인환) 천안봉축위(위원장 묵조) 군산봉축위(위원장 재곤) 포천봉축위도 4월말부터 5월 22일까지 열린 음악회, 차량 염주달아주기, 경로잔치 등의 행사를 펼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봉축주요행사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자비의손길	제1회 장애인 불교성지순례	4월14일	여주 신륵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4월18일	서울랜드
	자비의 헌혈운동	5.1~5.31	조계사내
	노인재소자 위안잔치	5월7일	청송교도소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등을 밝히는 작은 미당	5월9일	서울역
	자비의 등 밝히기	5.3~5.22	장충공원
	군장병들자 위문품 보내기	5월15일 전후	각 군부대
	화장유언서약 및 생명나눔캠페인	5월16일	제등행렬구간
	무차연등회 및 영산대제	5.17~5.22	탑골공원
	결식아동돕기 작은음악회	5.17~5.22	탑골공원
	장애인 나들이	5월30일	장충공원
	수화 찬불가발표회	5월30일	불교방송 3층법당
경축행사	꽃꽂이 전시회	4.22~4.23	로얄호텔2층 에메랄드룸
	부모은중송	4.30~5.1	국립중앙극장
	봉축 '수행목공예품전'	5.2~5.11	웅진갤러리
	제11회 연꽃노래잔치	5월2일(본선)	동국대중강당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5월5일 10:00	봉은사
	봉축 기념 연주회	5월6일 19:00~21:00	국립극장 소극장
경축행사	동국문화 예술제	5월6일 19:00~21:00	동국대 문화예술극장
	재가불자 심포지엄	5월7일 18:00	조계사 문화교육관
	우리옷 바자회	5.8~5.16	조계사내
	청소년 사경공모전	5월9일 14:00	조계사내
	제3회 불교사경대회	5.9~5.10	미정 (서울·지방)
	봉축기념 사진전	5.15~5.22	조계사내
	제1회 인권문화제	5월19일 19:00	조계사
	열기구 축제	5.20~5.21	여의도 고수부지
	봉축 기념 토론회	5월20일 15:00	조계사
	안숙선판소리 '부처님 일대기'	5월22일	문화교육관
	봉축기념 학술대회	5월29일	도안사
	제12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	5월30일 14:00~18:00	불교회관1층
	불교무용단 창단 공연	6.3~6.4	동국대중강당
	'넋의 소리'	5.7~5.16	동국대 문화예술극장
	전통등 전시회	5.17~5.22	인천신세계백화점 서울시내사찰

■조계종 고산총무원장 취임 100일

종단안정 기초다지기

19일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취임 1백일을 맞는다. 1월 10일 이후 조계종의 1백일은 조용한 변화의 시작이었으며, 종단의 안정기반을 다진 시기였다는 평가다.

고산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한국사회와 세계사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불교로서 새롭게 출발하겠다." 새 출발의 바탕을 초발심 회복과 수행, 정진의 승가 진면목 회복에 두었다.

변화의 첫 가시화는 종단협에서 나타났다. 종단협의회가 고산스님을 맞으며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를 말끔히 씻어냈다. 6개 종교 모임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을 맡으며 불교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였음도 주목된다.

종단협 운영 활기

종무원 고무신 신고 낮은 자세로 근무

청사식당서 공양 새벽예불 꼭 참석 솔선수범 스타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의 고무신은 조용한 변화의 상징이다. 승풍쇄신은 제도와 거창한 구호에 앞서 소임자의 낮은 자세와 승려의 본분을 지키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행자교육기간의 연장을 언급한 것도 승풍을 쇄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고산스님은 스스로가 먼저 행동함으로써 이끄는 스타일"이라며 "출타하지 않으면 공양은 반드시 청사식당을 이용하며, 새벽예불도 빠뜨리지 않는다"고 고산스님의 가풍을 전했다.

중앙승가대 특위 구성에서도 보듯 예민한 문제라고해서 비껴가는 스타일이 아닌 것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다. 주위에서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정면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그러면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종단사태로 갈라진 승가를 결합하는 일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정성운 기자

金河堂 光德 大禪師 49齋 奉行案內



금하당 광덕(金河堂 光德) 대선사 연표

1927년 경기 화성 출생 ‖ 1950년 부산 범어사 입산 ‖ 1951년 부산 범어사 청풍당 정진
1955년 부산 범어사 동산 선사를 은사로 득도
1956년 비구계 수계, 대각회 창립, 초대회장1958년 조계종 중앙감찰위원 ‖ 1962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1963년 대학생불교연합회 초대 지도법사 ‖ 1965년~1967년 봉은사 주지, 학교법인 대동학원 이사
1966년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 ‖ 1969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재단법인 대각회 감사
1971년 조계종 총무원 중앙종회 부의장 청담 스님 열반시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당시 조계종 총무부장)
1973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 ‖ 1974년~1999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순수불교 운동지 월간 「불광」 발행인
1975년~1999년 불광법회 창립, 법주 ‖ 1977년~1995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역임
1979년~1999년 불광출판부 개설, 발행인 ‖ 1990년~1996년 선찰 대본산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전계대화상
1992년~1999년 도서출판 한강수 개설, 발행인 ‖ 1993년~1999년 재단법인 보덕학회 이사 ‖ 1999년 2월 27일 (음력 1월 12일) 열반

역저서 -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삶의 빛을 찾아, 빛의 목소리, 반야심경 강의, 보현행원품 강의, 행복의 법칙, 메아리 없는 골짜기,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선관책진, 육조단경, 부모은중경 · 관음경, 지장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천수관음경, 법회요전 등 다수

찬불가 - 창작 국악교성곡 보현행원송 부모은중송, 마하반야의 노래, 연꽃피는 날, 한란한 이 아침, 초파일 송가, 빛으로 돌아오소서 님의 승걸, 임은 태양 위 태양, 혼자 있을 때, 보디스바하, 우리는 불국토의 주인이로다, 번영하는 사람의 기도 등 다수 작시

스님, 스님은 그대로 빛이셨습니다.
빛으로 돌아오소서

큰스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어 큰 빛을 나투시고 지난 2월 27일 열반의 세계에 드신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큰스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때에는 큰스님의 덕화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몰랐으나 큰스님 가신 뒤 애도하는
추모인파로 큰스님의 크나큰 위신력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건강도 돌보지 않으시고 전법에 임하신 큰스님,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도 전법으로 깨달음을 이루라는
간곡한 부촉을 잊지 않았던 영결식은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여법하게 봉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제 전법으로 보리(菩提) 이루라는 큰스님의 부촉을 계승하여
뭇 대중에게 부처님 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완성임을 깨닫고 불교 발전에
일로매진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아울러 큰스님 가신 지 49일 되는 오는 4월 16일 사부대중을 모시고 사십구재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원합니다.

· 법 어 : 혜암 (문도대표) · 일 시 : 1999년 4월 16일 (음 3월 1일) 오전 10시
· 장 소 : 불광사 보광당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 - 1) · 연락처 : 02 - 413 - 6060 ~ 2

禪刹大本山 梵魚寺門徒 合 掌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

비구니 스님들 장애인과 함께 나들이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복지단체들이 지체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봄나들이 행사를 갖는다.

조계종 복지재단과 광림사 연화복지학원, 강북장애인복지관, 제천장애인복지관은 공동주최로 14일 경기도 여주 신륵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번 행사에는 연화복지원에 다니는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참가 복지관의 지체장애인 80명이 참가하며, 운전봉사자 40명과 자원봉사자 20명 등이 함께 동참한다.

특히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화엄회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포교당을 운영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선각회 회원 1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장애인들의 '불심 찾기'를 도울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법어 및 기념품 전달식과 함께 신륵사앞 광장에서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된다.

덕유사회복지관도 택시기사들의 모임인 석왕사 부설 법륜회와 함께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1~3급의 중증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18일 과천 서울대공원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

전신마비 장애인 · 소녀가장에 온정을



극심한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불자가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2년전 목신경을 다쳐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1급 장애인 권순철씨(48 · 사진)는 8년전 처 · 자식이 떠나가고 75세 노모와 생활보호 대상자 보조금으로 살아오다 최근 노모마저 쓰러져 생계를 잇기가 어려워졌다. 근근이 간병비를 대던 형도 간병비문제로 가출한 형수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해 더이상 기댈 곳이 없다. 현재는 자원봉사자가 간병을 해주고 있는 상태.

보람(가명)이의 처지도 딱하다. 중학교 1학년인 보람이는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누워만 있는 아버지와 기계사고로 한쪽 팔을 전혀 쓸 수 없어 직장을 잃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 생활보조비를 받고 있지만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끼니를 제대로 이을 수 없는 탓에 급식비를 마련하지 못해 점심을 굶고 있는 형편이다.

권순철씨에게 도움주실 분은 (032)818-2397로 연락하거나 제일은행 657-20-122421(예금주 권순철)로 후원금을 입금하면 된다. 보람이 연락처는 (02)806-1376(청담종합사회복지관 이경호).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교차로

보덕사 탱화점안 증명



비룡 월정사 조실스님은 22일 오전 9시 영월 보덕사 극락보전 후불탱화 봉안 점안식 증명법사로 참석한다. (0373)374-3169

中 시조산에 용성스님비 제막



도문 서울대각사 조실은 10일 용성스님 제59주기 법회를 봉행하고, 17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시조산 제11대 명인 용성스님 비 제막식에 참석차 출국한다. 스님은 또 30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네팔 룸비니 대성석가사에서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무불선원 선실수 지도



법장 한국불교선학연구원장(수덕사 주지)은 15일 오후 2시 무불선원에서 선실수를 지도한다. (02)541-0002

부산 녹야원 이전개원 법회



회암 부산 녹야원 주지는 13일 부산역앞 한창빌딩 6층으로 법당을 이전, 개원법회 및 사트나드 불교교양대학 입학식을 거행한다.

해인승가대 동문 정기총회



세민 해인승가대학 동문회장 스님은 23일 오후 4시 서울 강남 수안사에서 서울·경기 해인승가대학 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02)587-4677

수국사 법당 낙성법회



자용 수국사 주지는 8일 수국사 법당 낙성식 및 부처님 봉불법회를 2백여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북한 비료성금 1천만원 전달



법륜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스님은 6일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에게 북한 비료보내기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협서성 사회과학원 명예교수



오형근 대승불교연구원장은 3월 25일 중국 협서성 사회과학원에서 열린 제2회 국제학술회의에서 협서성 사회과학원 명예교수에 위촉됐다.

자민련 불자회 창립 4돌 행사

박철언 지민련불자회 회장(자민련 부총재)은 27일 오후 2시 마포 중앙당 강당에서 자민련불자회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팔공산 파계사 성전암 조실 철웅스님이 법문한다.



대통령 자문정책위장 내정



김태동 前 청와대 불자회장(前정책기획수석)은 4일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에 내정됐다.

조성준의원 후원의 밤 가져



조성준 새정치국민회의연등회 간사(국회의원)는 20일 오후6시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조성준 후원의 밤' 행사를 갖는다.

복지시설에 8백만원 기탁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은 2일 '거룩한 만남 4백회 행사'를 통해 모금한 성금 8백만원을 과주 관음대비원, 서울 혜명불교양로원, 화성 자제정사, 진각복지회 등 4개 단체에 각각 2백만원씩 전달했다.

김민석의원 초청 특강



이상현 동국대 행정대학원장은 13일 오후 6시 30분 개교 90주년 기념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국민회의 김민석의원을 초청,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선택'을 주제로 특강.

"미래불교 새싹 유아교육 최선"

강원유치원연합회장 현각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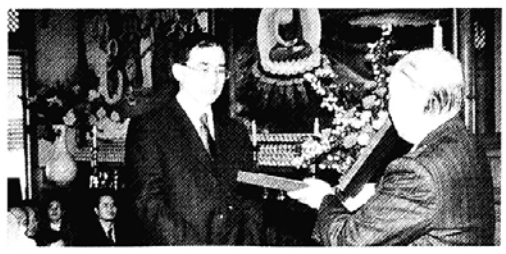
"스님들도 유아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린이 포교가 불교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불교유아교육에도 혼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달 25일 강원도 유치원연합회장에 선출된 현각스님(원주 성불원주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교유아교육의 새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원도 유치원연합회장은 도내 80여개의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자리.

스님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현재 사립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 속으로 편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2년 임기내에 5세 아동에 대한 국가지원의 무상교육과 전인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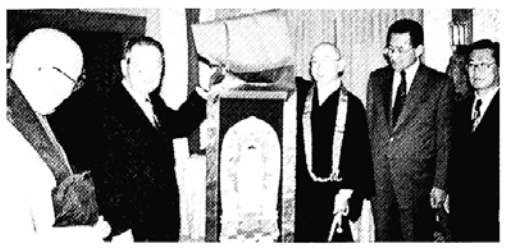
"종교적 색채를 뛰어넘어 활동해야 하는 자리지만 강릉지역의 불교유아교육 역사가 60년이나 되는만큼 불교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인재양성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는 스님은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목적으로한 유아교육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제14회 뇌허학술상 시상식

뇌허학술원(원장 관응스님)은 5일 제14회 뇌허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 뇌허학술상은 정병삼 교수(숙대)가 〈의상 화엄사상연구〉로, 감사패는 〈뇌허 김동화의 불교사상 연구〉를 발표한 제선스님이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 동국대정각원장 법산,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원희범 · 오형근 · 박선영 · 김용표 교수(동국대)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日 선광사 주지 총리만찬 참석

일본 선광사의 일광삼존불 분신불 한국 봉안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선광사 현릉원 주지 후루시마 스님과 한일고대문화교류협회 총재 효란스님 등은 3월 30일 김종필 총리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후루시마 스님은 이 자리에서 김총리에게 일광삼존불 족자를 선물했다. 김총리는 "부여 정림사지를 빨리 복원해 일광삼존불을 봉안하도록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불교방송 신춘음악회

대구불교방송(사장 법타)은 5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원명, 동화사총무국장 유광스님 등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성스님 가곡발표회를 겸한 신춘음악회를 거행했다. 이날 음악회는 바리톤 임익선 메조소프라노 김경희씨 등 성악가 10여명과 동화사합창단 대구불교대학합창단이 참여, '지혜의 눈' 등 20여곡을 열창했다.



삼전복지관 나무심기 대회

승가원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각우스님)은 5일 식목일을 맞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녹지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나무심기 대회를 실시했다. 송파구청의 후원아래 가족단위 참가자 3백여명과 함께 가족별 나무심기, 나무에 이름표 달아주기 등을 통해 자연보호정신을 함양했으며, 협동작품 그리기 대회를 통해 자녀들에게 공동체 정신을 일깨웠다.



채식하는 김용사 진돗개

Focus

문경 김용사에 사는 순종 진돗개 '김용이'는 놀랍게도 절 마당에 돋아나는 풀을 뜯어먹어 주위를 놀라게 한다. 흔히 실현불가능한 말을 할 때 "개 풀 뜯어 먹는 소리하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개는 풀을 먹지 않는것으로 알려져 왔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노인 복지관장 맡아 동분서주"

복지가 변신한 불교운동꾼 여익구씨



한국불교운동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여익구씨(54). 81년 대학생불교연합회 사무총장을 거쳐 85년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을 지내면서 불교운동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던 그가 불교복지가로 변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 3월 총지종이 수탁운영하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관장을 맡자마자 지난 1일 서울시로부터 강남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위탁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에 강남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위탁받게 되자 여씨는 더욱 흥겨운 표정이다. 벌써부터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지역 노인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부처님이 탄생하신 네팔 룸비니동산 대성석가사에서

「1인 1등 1만원 동참 관등 불사 봉행 안내」

♣ 일시 : 기묘년 음력 3월 15일(양력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저녁시간까지
♣ 장소 : 불탄성지 네팔 룸비니동산
♣ 연락처 및 1만관등 불사 접수장소 :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 사무장 전화 : 582-0108 팩스 : 583-2700
♣ 송금 구좌번호 : 국민은행 임윤화 086-14-0009-164

네팔과 인도에서는 기묘년 음력 3월 15일이 부처님 탄생의 날 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 4부대중 7중불자 30여만명이 운집하여 석가여래불세존님의 탄생을 찬양 찬탄한다고 합니다. 이에 있어 룸비니원 대성석가사에서는 1인 1등 동참성금 1만원 1만 관등 불사를 봉행합니다. 이곳 룸비니원 대성석가사에서는 3층 법당을 건립중에 있는데 우선 1층 법당 규모가 1,016평이고, 기둥이 210개가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관등불사 동참성금 전부를 법당 불사에 이바지하고자 하나이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 구역내에서 제일 큰 법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불교도 이시여, 우리나라 남 북한 전국민과 세계만방에 계시는 교포등이시여 이 국위선양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나이다.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지도법사님과 회장님과 고문진을 모시고, 세계 각국 30만명의 성지순례자와 함께 이 관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이 불사에 수희 동참하시어 성불인연 지으시옵소서.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주지 법신은 이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스님 감사합니다. 경주 남산인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지 강 금강업 원감님으로부터 국제전화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수 1백만원 성금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신도등에게 관등불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간절히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경주 천룡사 부산포교원 배 명선행 명선회 회장님으로부터 방금 국제전화로 통화를 하였는데 부산 영도 백련사 주지 혜주스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관등불사를 소속된 신도들에게 권선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감격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에 계시는 모든 스님이시여 불탄성지를 잘 가꿀 수 있도록 관련된 신도등에게 동참 선근 인연을 짓게하여 주시옵소서

룸비니원 국제사원구역내에서 일본절은 돈으로 짓고 중국절, 태국절, 미얀마절은 국비로 지으며 월남절은 피땀으로 짓고 한국 대성석가사는 백용성조사 유훈을 받들어서 확고부동한 신심과 불퇴전의 원력으로 지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팔 루판데히 룸비니동산
국제사원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
주지 석가여래계대법(釋迦如來系代法) 제78세 각현 법신(覺賢 法信) 합장

▶주소 : KOREAN BUDDHIST MAHABODHI SOCIETY DAESUNG SHAKYA SA TEMPLE BHABRAHAWA RUPANDEHI LUMBINI, NEPAL.
▶전화겸 팩스 : 001-977-71-80123

시미용 및 목욕봉사

자원 봉사자 모집

병고의 고통은 언제나 나 자신의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불행을 비껴 가지 못합니다.
남의 삶에 보탬이 될 때가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도움을 기다리는 이웃이 우리의 복전(福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사랑을 만듭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공양하면
그 복덕은 한량이 없으니
그 공덕이 쌓이면
반드시 도를 얻으리라."
〈법구경〉

탁종교의 봉사활동이 활발한 반면 불교계의 자원봉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자비의 공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신심있는 불자
· 봉사내용 : 이미용봉사, 목욕봉사
· 봉사일시 :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1시~3시
· 봉사장소 : 대구 영남대학교 의료원
· 문 의 처 : 053)620-4495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구지원 보현회

경찰포교회 민중지팡이 불심심기

구로·동대문서에 불자회 창립·법당 개설

교리·의식집전 교육도



◇경찰포교회는 98년 6월 조계종 포교사단 연수회에 참가한 11명의 포교사가 모여 결성됐다.

경찰포교회. 지난해 6월 결성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다소 생소한 모임이다. 그러나 불과 11명 회원이 팀웍을 이루고 있는 이 작은 포교팀이 경찰포교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어 눈길을 끈다.

96년 조계종 포교원이 경승단 창설 10주년을 맞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서 전국 2백51곳, 경승 위촉 6백29명. 그러나 경승실이 있는 곳은 불과 70여곳. 활동하고 있는 경승들의 활동도 절반 가까이가 유명무실한 형편이고, 경찰불교회는 파악조차 안 될 만큼 경찰포교는 등한안시 돼 온 게 사실이다.

경찰포교회(회장 김진홍)는 이처럼 터부시 돼 온 경찰포교를 위해 결성한 지 반년도 안된 지난해 10월, 12월 구로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에 불교회를 창립하고, 구로경찰서 법당개설 및 불상·후불탱화 봉안, 동대문경찰서 법당을 확장하는 등 경찰포교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경찰포교회는 불교회를 결성하고 법당을 개설하는 일 외에도 경찰불자들에게 기초교리와 의식집전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지도법사가 없더라고 불교회 자체적으로 법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36년간 일선 경찰에 몸담았다가 지난해 9월 정년퇴임한 김진홍 포교사를 비롯해 회원들이 경승과 달리 불자경찰들과 같은 생활인, 직장인의 입장이라는 잇점을 살려 경찰불자들과 경조사를 함께하는 등 끈끈한 정도 나누고 있다.

경찰포교회는 올 한해 동안 법당은 있는데 경승이 없거나 불교회가 없는 중부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성북경찰서 등 서울지역 경찰서 '법당 열기 운동'과 불교회 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경찰불교회 합동 수계법회도 계획하고 있다.

김진홍 회장은 "경찰포교회는 경승과 대등한 관계라기 보다 스님들을 도와 경찰불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모임으로 궁극적으로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을 불국토 건설의 일꾼으로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운불련 공양게송 확산운동

수덕사서 총회… 박영조 회장 연임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박영조)는 3월31일 수덕사에서 전국 21개 지역회 대의원 1백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공양기도 게송 확산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규약을 개정하고 수석부회장 류자순(대구지역회)씨를 비롯 부회장 전영식(청주지역회) 최병식(전주지역회) 이대병(안양지역회), 감사 김용문(광주지역회) 조홍인(부산지역회)씨 등 임원개편이 있었다. 회장 박영조씨는 연임됐다.

운불련은 총회에 이어 1일까지 수련대회를 갖고 도량청소, 발우공양, 청법, 발원문 낭독, 천장사 참배를 하며 회원간 친목을 다졌다.

박영조 회장은 "하루 3번 공양 때마다 공양기도 게송을 외는 등의 작고 쉬운 것부터 실천해 가는 '참불자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외국인에 통역안내

불국사 구품연지 봉사단

불국사안내 자원봉사단 구품연지(회장 최문규, 九品蓮池)가 불국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영어, 일어 안내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활동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품연지는 또 불국사 문화재 연구를 통한 안내자료 개발과 불교상식 바로 알리기 운동도 전개한다.

불국사 포교국 (0561)746-1472

우리 모임에선

금강경독송회 호국령 천도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8일 경주 서천에서 호국영령 천도 법회를 봉행한다.

금강경 독송회 포항사무국 김영희씨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한 영령들을 위로하고 천도·해탈하도록 해 국가 장래가 밝아지길 기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98년도부터 매년 봉행되는 법회는 금강경 독송 및 정진, 김재웅 지도법사의 법문 등으로 진행된다.

마곡사·대전약사 산악회 창립



충남공주마곡사산악회(회장 윤석환)와 대전약사불자산악회(회장 박암이)는 4일 마곡사에서 전국불교산악인회 손현수 총재 등 5백여명의 불자산악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창립법회를 가졌다.

상주법우회 정기법회

상주법우회(회장 김종하)는 18일 오후 7시 상주포교당에서 정기법회를 연다. 이날 법회에서는 기도정진에 이어 지난 10일 왕산 서성동에서 가진 왕산 비로자나불 공양법회 보고 및 24일 성지순례 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무엇이 참된 고행인가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⑭

〈지난 호에 이어〉

"타인을 무시한 자기 위주야말로 진실한 고행이 아닐까요?"

"개연적 판단을 떠나 단도직입적으로 결론하시지요. 개연성은 회색적인데 회색적인 것은 언제나 기회와 위선을 노릴 뿐이니까요."

"스님, 그럼 간단히 묻겠소. 스님은 지금 '일손(日損)'을 거듭하면서 고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고행을 생각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고행을 할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오늘처럼 단식기도를 결심하고 매식(每食)을 생식으로 대할 때마다 고행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스님, 스님의 고행은 벌써 고행이 아닙니다. 노자는 실제로 고행을 하지 않고 다만 노자의 지혜로 고행을 유추하고 그런 말을 했을 뿐이오. 그러니까 스님의 고행은 고행을 체득은 커녕 체감도 못한 노자의 도를 위해 던진 무의미한 희생에 불과합니다. 본래 고행이란 것은 고행을 생각한다거나 느낀다면 이미 고행은 아닐 것입니다. 고행이란 것을 전혀 잊고 무의식적으로 고행하게 되어야 참된 고행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오롯이 하고서 고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외(身外)에 무물(無物)이며 아생연후(我生然後)에 만사재기중(萬事在其中)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얼핏 듣고 생각하면 극히 유물적이고 유아독존적인 것 같지만 자세히 음미해보면 존재의 보편타당성을 표현한 극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한한 공간, 무량한 원소, 무진한 시간, 무궁한 활력(에너지)의 부단한 작용에 의해 생멸하는 무수한 존재중의 하나인 나를 의식했을때 비로소 나는 나를 찾아보게 됩니다. 나를 찾는 동안 나는 양생해야 하며 양생하기 위해선 수신(修身)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나를 찾았을 때는 이미 나는 없고 다만 적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엄동에 병약한 스님이 단식기도를 해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적멸이라는게 뭔가요? 우리를 이 산속에까지 유혹해 온 그 적멸이라는 것 말입니다."

"나는 적멸을 모릅니다. 그러나 적멸은 문자로써 표현할 수 없으며 적멸을 말하면 벌써 적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적멸을 말함은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지껄였다는 우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성성(惺惺)히 오득(悟得)해야 할 뿐입니다. 적멸이니 피안이니 하는 사치스러운 용어를 쓰는 것은 나의 노파심 때문입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어휘로써 빌어쓴 것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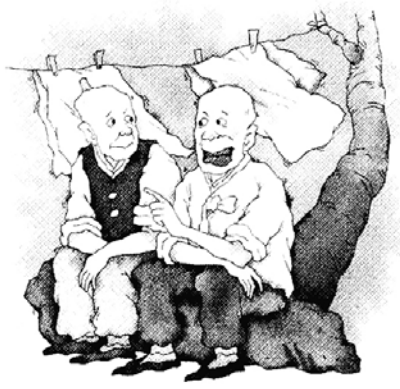
"그래도 저는 단식기도를 강행하렵니다. 저는 스님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요."

정말로 어쩔수 없는 일이다. 나로서는 역부족이다. 도인이 아닌 바에야 누가 선객의 고집을 꺾을 수 있으랴. 돌아앉으면서 고소를 금치 못할 언어의 유희와 시간을 생식하는 스님과 내가 가졌다는 것은 나의 미망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생식하는 스님은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바랑을 걸머진 채 떠나고 말았다. 문자 그대로 작심삼일이었다. 뒷방 조실스님이 떠나는 스님의 등 뒤에 대고 하는 말이 걸작이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었구만."



그림·이준석

자기 존재의 문제 푸는데서 불교 출발
생식하던 스님 사흘 못 넘기고 떠나

■1월14일 해제 전날

뒷방에서는 바랑 꾸리기에 바쁘다. 내일이면 동안거가 끝나기 때문이다. 나도 바랑을 꾸려 놓았다.

봄이 밀려오는 탓인지 양광이 따사로운 오후다. 지객스님과 같이 빨래터에서 내의를 빨아 널고 양지 쪽에 앉았다.

내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앞선다. 앉을 때의 잡자리도 바로 이웃이었고 며칠 만큼씩 얘기도 나누었던 사이인 탓이다.

지객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완성시켜야 한다는데 선방에서의 햇수를 더할수록 알 수 없는 어떤 타의에 그리고 신비에 끌려가는 기분이 가끔 드는데 그게 정상일까요."

"어려운 질문이군요. 그러나 선객에게 가끔씩 찾아오는 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함경〉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한사람이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아서 쓰러져 있다고 하자. 친구들은 의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그 사람은 먼저 화살은 누가 쏘았는지, 이 화살을 쏜 활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독은 어떤 종류의 것인지 등을 알기 전에는 그 화살을 자기의 몸에서 빼내서 치료해서는 안된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는 그 사실들을 미처 알기 전에 죽고 말 것이다.'

형이상학적 문제만 붙잡고 공론에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가, 무한한가, 또 신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지금 괴로와 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부처님 교설의 의취(意趣)입니다. 극히 실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가 문제가 되는 존재'라고 사르트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타인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존재이며 타인도 나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존재'라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원죄란 타인이 있는 세계중에 내가 태어난 것'이라고. 비정하나마 인간실존의 참된 표현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문제 삼아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풀이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출발점이며 실존주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지식인들이 불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실존주의가 배후세계의 망상(神學)을 거뜬히 파괴하기도 하고 타기했다면서도 신의 율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인간은 무책임하게 던져진 단독자라고 하기 때문이며(하기야 그들은 아무리 현명해도 중생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칠 순 있었지만 수습하고 구원할 수 없을 뿐입니다만), 또 하나의 보다 큰 이유는 근래의 기계문명이 인간을 평균화하고 집단의 한단위로 화함으로써 인간 실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백팔번뇌를 지적하면서 열반의 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님, 인간은 끝내 인간의 범주내에서 인간의 조건과 같이할 뿐이지 초월하거나 탈피할 수는 없잖을까요." 〈계속〉

韓國佛教 觀音大聖宗 創宗 公告

任 員

宗 正 釋法山 큰스님
總務院長 正山 스님
布教院長 道元 스님
總務部長 慧峰 스님
布教部長 道泉 스님
財務部長 道明 스님
規正部長 法弘 스님
監察部長 性空 스님
奉仕部長 明觀 스님
教育部長 知圓 스님
錬修部長 性道 스님
弘報部長 月潭 스님
動員部長 華潭 스님

副宗正 德源 스님
副院長 元明 스님
中央布教相談法師團長 金政昱 法師
副團長 李圭鶴 法師
中央信徒會長 추후발표
大學院長 추후발표
大 學 長 추후발표
自願奉仕團長 大慈行 法師
青年會長 李受泫 法師

※各市道郡 教區長 선임중
※布教師 法師任과 佛教信行人의 入宗을 대환영합니다.

佛紀 2543년 3月 28日 創宗
西紀 1999年 3月 28일

本山 江原道 방대산 觀音寺

⊙ 서울 종무소 :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08-2호 觀音會
⊙ 전화 : 02)597-6211 H.P: 017-332-1633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전국 대리점 모집
02)757-1780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놀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외톡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삼독 끊고 바른 깨달음 모범을"

이렇게 들었다 — 지도자의 덕목

2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원로회의는 종단 최고 어른인 종정스님을 새롭게 추대했다. 종정스님은 살아있는 부처님의 대행자임과 동시에 불자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다. 지난해 말 종단사태로 황량해진 불자와 국민들이 새 종정스님에게 거는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 비단 불교계뿐 아니라 한 나라, 한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도 지도자들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새 시대를 이끌어 갈 모든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과연 무엇인가. 부처님말씀을 통해 지도자의 덕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비구들이여, 종교인은 지혜로운 목자와 같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종교인은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잘 관찰하지도 않고 건너는 장소나 방법도 잘 모른다. 그들을 믿고 강을 건너려 하다가는 오히려 불행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바른 지혜를 가진 종교인은 이쪽 저쪽을 잘 살펴 건널 곳과 물살의 깊이를 헤아리고 적절한 도하방법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전하게 행복의 언덕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종교인인가. 탐진치 삼독을 끊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다. 〈잡아함경〉

▨만일 열가지 법을 갖추면 따로이 논하여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힐 수 있느니라. 계를 잘 지키고, 들은 것이 많으며, 양편의 규칙을 잘 외우고, 그 이치를 널리 이해하며, 말이 분명하여 질문에 대답을 잘 할 수 있어 듣는 이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싸움을 잘 조정할 수 있으며, 편애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니라. 그러나 일을 판단하는 사람 가운데 계를 외우지 못하거나 계율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해서 정의를 버리고 법답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글자만을 말하는 사람이나, 말솜씨를 내세워 억지말을 하는 사람은 제외시켜야 하느니라. 〈사분율〉

▨왕은 다리와 같이 만인을 제도해야 하고, 저울처럼 친소(親疎)를 평등히 해야하며, 길과 같이 성현의 자취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 해와 같이 온 세상을 두루 비쳐 주어야 하고, 부모처럼 백성을 사랑해야 하고, 하늘처럼 일체를 덮어 주어야 하며, 땅처럼 만물을 길러야 하며, 물처럼 사방을 윤택하게 해야 하고, 과거의 전륜성왕 처럼 열가지 선행으로 중생을 교화해야 한다. 〈잡보장경〉

▨국가의 위기나 멸망의 원인은 함부로 시류에 영합하려는 데에 있다. 시류의 평판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 귀기울이게 되면 결코 참된 현자를 얻을 수 없다. 참된 현자를 얻으려면 그 사람됨을 바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세상의 평판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사람이 현자는 아니다. 또한 세상의 평판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현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진짜이면서도 비난받을 수 있고, 가짜이면서도 칭찬을 듣기도 하므로, 잘 살피어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자를 등용치 않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고, 어리석은 자를 채용하는 것은 나라의 통탄할 일이다. 〈정법안장〉

▨관리들은 고위직이나 하위직을 막론하고 모두 법에 따라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범법하기 쉬운 자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보호, 법에 의한 처리, 법에 의해 안락을 주는 것, 법에 의해 언어와 행동을 삼가하는 것, 이것이 관리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기 때문이다. 〈석주조칙〉

▨국왕이여, 몸소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가르쳐 보이라. 왕의 부패한 관료들 때문에 나라의 재산을 탕진하고 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라. 일을 급히 서두르지 말라. 그리고 급히 서두르게 하지도 말라. 〈자티카〉

▨만일 양극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중간에도 아주 집착하지는 않으리니, 그런 사람이라야 대장부라 부를 수 있다. 다섯가지 탐욕을 돌아보지 않아서 번뇌망상의 쇠사슬이 없어질때 근심의 굴레를 멀리 벗어나리라. 〈잡아함경〉

목탁소리

초라한 봉축 軍위문품

김 재 경 〈취재 1부 기자〉

96년부터 98년까지 실시해 온 '부처님오신날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가 종단과 불자들의 무관심, 군불교진흥회의 내분 등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있다.

군불교진흥회는 지난 96, 97년 조계종 지원금 1천만원과 자체 후원금 등으로 각각 1만2천여개, 1만7천여개의 위문품을 보냈으나, 98년에는 종단 지원금이 끊겨 8천여개로 축소했다. 더욱이 올해는 군불교진흥회의 재정이 바닥난데다 회장의 임기가 지난 2월28일자로 만료된후 회장 선출을 둘러싼 이사회의 분열로 봉축위문품 보내기 운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진흥회가 보낸 위문품은 단주 1개, 과자류 5종, 포교용 소책자 1권 등 약 2천5백원 상당, 한해 평균 소요된 예산은 3~4천만원 정도. 현재 군불자의 수는, 15만명에 이르지만 예산부족으로 10분의 1 정도인 1만5천여명에게만 위문품을 보내왔다.

올해는 그나마도 힘든 형편. 진흥회는 지난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아들과 손자를 군에 보낸 불자들의 도움으로 절반의 예산을 충당하기도 했다(지정기탁도 가능). 올해는 군포교 관계자들의 비난여론이 높자 조계종은 뒤늦게 1천여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교 황금어장인 군포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개신교 군복음화위원회의 1년 예산이 70억원 이며, 천주교 및 성공회 군교구청의 1년 예산은 40억원. 하지만 조계종이 군승단 등에 지원하는 1년 예산은 5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으로 군포교를 포기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진흥회 최우진 부회장은 "불자들이 술 한잔 안 마시는 돈으로 몇 십명의 젊은 장병불자들을 만들 수 있다"면서 "스님들도 사찰에 젊은 불자들이 적다고 한탄만하지 말고 미래 불교를 일군다는 마음으로 군불자 공양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02)749-5135
(jgkim@buddhapia.com)

열린마당 —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중앙승가대가 14일로 개교 20주년을 맞는다. 79년 중앙승가학원이 발족된 후, 96년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돼 현대적 승가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중앙승가대는 그동안 불교, 사회복지, 포교사회, 역경 등의 학과를 통해 98년 2월까지 8백3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김포학사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는 80%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포학사 완공과 이전을 앞두고 공사비 3백60억원 가운데 이후 시공업체인 풍림건설에 지급해야 할 2백46억원의 공사대금 마련과 완공 후 年 30억으로 추정되는 운영비 조달 등 예산수급 문제가 가장 큰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포학사는 공사계획 단계부터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최근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는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대책 특위'를 구성하는 등 김포학사 이전을 앞두고 재원마련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해 교계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종책사업 원만회향 뜻 모아야"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건립과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마련이다. 현재로서는 완공까지 3백억에 가까운 건립비용을 지원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완공후의 년 30억이 넘는 학사운영비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종단의 종책사업으로 시작한 만큼 원만한 회향을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9회 종회에서 종회의원과 교육원 관계자, 중앙승가대 관계자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이같은 당면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공식화되지 못한 이야기들만이 회자되고 있을 뿐이다. 재원마련과 관련한 의견과 김포학사 이전과 활용에 대한 각각의 의견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시점에서 대두된 의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앙승가대 문제는 종회 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가다듬은 후 다양한 해결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속에서 양보해야 할 부분은 양보하고, 감수해야할 것은 감수하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향적 〈조계종 종회의원〉



"행자교육장이나 종합대학으로"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에 대한 논의는 단지 이전이나 활용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종단 승가교육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놓고 논의를 전개해야 타당하다.

김포학사는 대단히 방대한 규모다. 완공까지 3백6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한다. 이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학사는 시공업체에 넘어간다. 이후 운영에도 최소 년 3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종회와 집행부, 중앙승가대 당사자들이 함께 '중앙승가대 운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특위는 당사자들의 이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예정대로 김포학사를 완공하되 기초교육기관(행자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하던지, 아니면 종합대학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행자교육기관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행자교육 기간을 4년 정도로 연장하는 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승가학과와 함께 미술 건축 사원경영 등 불교 관련 전문강좌를 개설한 종합대학으로의 운영도 가능하다. 방학중에는 스님들의 각종 연수와 신도교육장으로의 활용도 모색해야 한다.

원종 〈중앙승가대 기획실장〉



"안암학사 대학원 운영 검토 필요"

김포학사는 종단차원의 명실상부한 승가교육도량을 만들자는 목적아래 종단 최대불사로 진행돼 왔다. 김포학사 이전을 앞두고, 재원마련과 활용에 대해 현재 학교자체적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중이다. 중앙승가대가 종단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 종단과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종단과의 협의속에서 여러가지 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김포학사로 이전하게 되면 안암동학사에서의 1년 전체 예산인 18억원보다 훨씬 많은 3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현 안암학사를 대학원이나 지도자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벌어들일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김포학사도 방학과 주말을 적절히 활용해 교육과 문화행사의 장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정원 미달도 법적 토대를 갖추고, 위상을 다져 나간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또한 그동안 실추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학교홍보와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박선영 〈동국대교수 · 교육학과〉



"기본의무교육기관 지정 마땅"

중앙승가대학 김포학사 이전문제는 재원조달이 가장 큰 관건이다. 그러나 현 종단 승가교육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종단의 승가교육체계를 살펴보면 중앙승가대학, 동국대학, 강원, 기초선원 등 네 곳이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중복교육 등의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4년제 정규대학인 동국대나 중앙승가대를 졸업하지 않고서는 해외유학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승가대를 종단의 단일 기본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출가자는 1차적으로 중앙승가대를 졸업함으로써 승려가 되는 기본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강원이나 학림, 선원 등은 대학원과정으로 승격시켜 각 교육기관마다 교육내용을 특성화해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재 매년 줄어들고 있는 학인정원 문제도 교육체계확립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학사 이전을 앞두고 중앙승가대 자체의 재원마련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7,000원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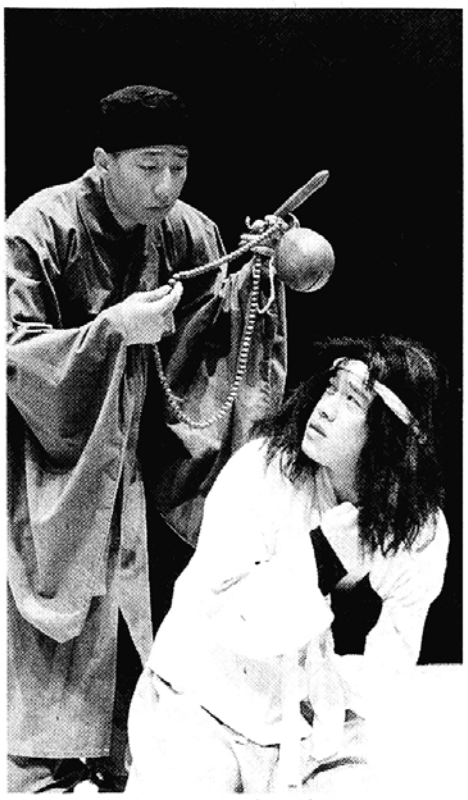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Ⅰ. 새벽예불 Ⅱ. 오분향례 Ⅲ. 부처님이시여, 크나큰 진리여
Ⅳ. 거룩한 사대보살 Ⅴ. 영산회상의 제자들
Ⅵ.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Ⅶ. 자타일시성불도

신국판 /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해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30일부터 공연될 연극 '등신불'의 연습장면.

소설 '등신불' 연극무대에

인천시립극단 공연-연출 이승규씨
30일~5월9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김동리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등신불'이 연극 무대에 오른다.

인천시립극단이 30일부터 5월9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연할 등신불은 김동리의 원작소설을 구희서(한국연극평론가협회장)씨가 희곡으로 꾸민 것. 연출은 이승규씨가 맡는다.

소설 '등신불'이 연극으로 공연되기는 이번이 처음. 작품의 줄거리는 자신의 친아들을 위해 전처의 아들 사신을 죽이려는 어머니의 죄를 씻고자 스님이 된 아들이 자신과 어머니의 죄를 갚고 회노애락의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 몸을 태워 부처님에게 공양함(燒身共養)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스님이 된 아들만적이 소신공양을 하려는 순간 비가 내려 소신의 뜻은 이루지 못하지만 그 공덕으로 문둥병 환자인 사신과 주변의 환자들이 병을 낫게 된다.

이번 무대는 영상매체를 이용한 무대장치(세트)를 사용할 계획이다. 수작업으로 만든 세트가 지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극단측은 6개의 환등기를 통해 입체적인 무대장치를 선보일 생각이다.

작품속에 등장하는 영산재등 불교의식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기 위해 능화스님(인천 구양사주지)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음악은 국립국악원 상임지휘자 김철호씨가, 남사당 놀이지도에는 남사당연희 이수자 남기문씨가 동참한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봄이다…그림구경으로 마음공부

■성륜스님 그림전
30일까지 서호갤러리

수행의 지향점인 '무심'의 경지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성륜스님이 그 경지를 화폭에 담았다. '무심세계'를 주제로 하는 성륜스님의 그림전이 21일부터 30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서호에서 열린다.

97년 '춤추는 달마' 이후 2년만에 갖는 개인전에서 성륜스님은 한지와 혼합재료들로 표현한 '무심'의 자리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 작품들에서 특별한 테마를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자리를 엿보는 기회로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02)720-7311

■지상스님 서각전
12일부터 경주 기림사

서각삼매로 수행을 삼는 지상스님(동림사주지)이 경주 기림사 초청으로 장기간 서각전을 연다. 12일부터 3개월간 기림사 진남루에서 열리는 서각전에는 스님의 최근작 40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서각예술의 총아인 경관의 제작과정도 이해할 수 있다. 경관의 제작 공정을 일곱 가지의 과정으로 나눠 전시된다. (0561)44-2292

■수증스님 첫 개인전
21~27일 공평아트센터



10여년 동안 연꽃 그리기에 매진해 온 수증스님(금화사 주지·사진)이 첫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21일부터 27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전시회의 주제는 '일지하엽수련전(一池荷葉修蓮展)'이다. 하나의 연못에 피어난 연꽃을 수행의 거울로 삼는다는 의미. 최근 3년여 동안 연꽃을 소재로 그린 작품들은 한지에 수묵담채를 기본으로 삼으면서 아크릴, 금분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출가 전부터 연꽃 문양에 관심이 많았다"는 스님은 "연꽃이 갖는 의미를 그림으로 전하고 싶어 연꽃만 그려 왔다"고 밝혔다. 스님은 포교의 방편으로 10여년 동안 500여명에게 연꽃 그림을 보시하기도 했다. (02)429-1488

■임효씨 개인전
5월9일까지 선화랑

인사동 선화랑이 주관하는 선미술상을 수상한 임효씨가 수상기념 개인전을 연다.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선화랑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임효씨가 고안해 낸 '우림 효과'의 절정을 만날 수 있다.

그의 '우림 효과'란 닥종이로 만든 바탕지에 먹을 칠하고 그 위에 종이죽을 덮어 먹물이 자연스럽게 베어 나오게 하는 방법. 붓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닥종이 바탕과 먹, 물이 어울려 우려져 나오는 먹의 효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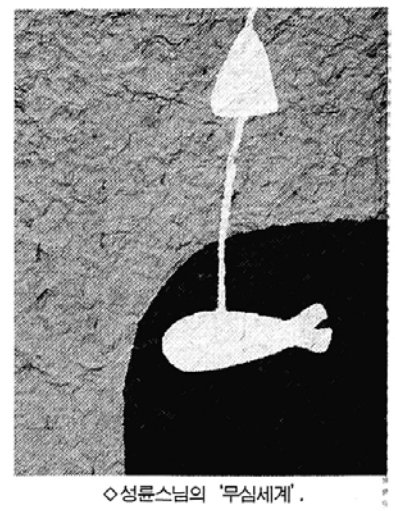
첩첩산중의 절, 그 속의 수행승이 이 우려냄의 효과를 통해 화폭에 그윽히 묘사되고 있는 모습은 붓질의 한계를 뛰어 넘은 작가의 역량을 보여 준다. (02)664-6504

■김영선씨 수묵전
14~21일 갤러리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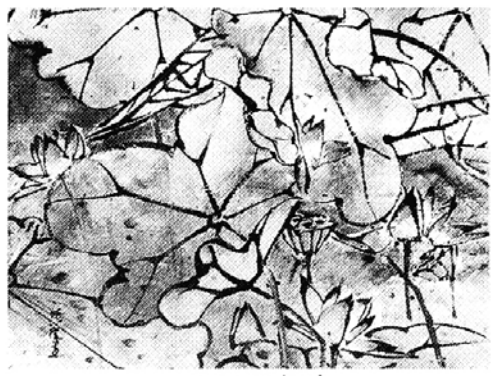
고향과 어린 시절, 어른들의 마음자리를 가득 채우는 향수를 더욱 부채질하는 동화적 소재들. 이를테면 달나라의 토끼라든지 꽹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풍경이 있어 더욱 그리운 고향의 어린 시절들.

김영선씨가 모시베나 장지에 수묵으로 표현한 아련한 고향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輪-지금 우리는…(共生)'. 김씨는 다소 서술적인 테마를 내 걸고 14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으로 인사동 갤러리 상에서 전시회를 연다. 김씨의 작품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때 그 속에 설해진 윤회와 인연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평자들의 견해다. (02)730-0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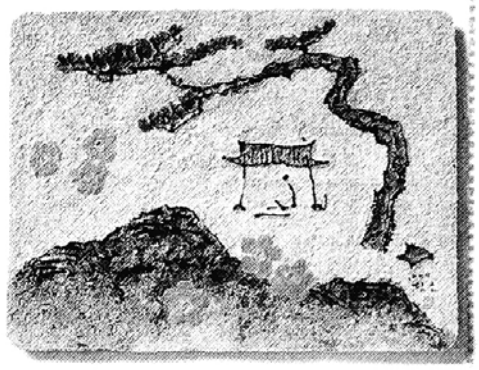
임연태 기자



◇성륜스님의 '무심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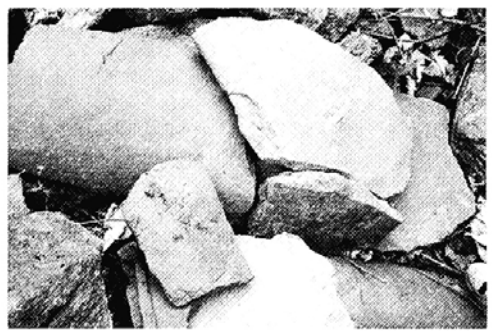


◇수증스님의 '연꽃'.



◇임효씨의 '산사'.





◇백제 초기 도읍이었던 한성 인근의 '신복선사' 터로 추정되는 하남시 금암산의 절터. 13곳의 절터를 확인한 세종대 조사팀은 금암산 일대를 경주 남산에 버금가는 백제성지로 보고 있다.

"백제 신복선사 절터 찾았다"

세종대 하남시 유적조사 와당·석축등 발견

경기도 하남시가 백제 초기 도읍이었던 '한성'일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 하남시가 98년 5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표조사에서 백제 고찰 신복선사로 추정되는 절터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 조사를 맡은 세종대학교 박물관(관장 최정필)에 따르면 하남시 금암산에서 5백~6백여평 규모의 절터를 새롭게 찾아냈다는 것. 또 절터에 흩어진 유물 가운데 석축과 '신복골'이라는 지명에 근거, 〈동국여지승람〉에서 한성 근교에 소재하였다고 기록한 신복선사 절터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황보학예연구원(세종대 박물관)은 "96년 이후로 금암산 자락에서 무려 13군데의 절터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남시는 경주 남산에 필적할 만한 초기 백제의 불교성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간 하남시 일대에서 출토된 와당 명문 등을 통해 이름이 확인된 사지는 모두 5곳. 자화사지, 천왕사지, 약정사지, 동사지, 신복선사지 등이다.

이번 지표조사는 5월 25일까지 계속되며, 하남시는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 하남시 유적 발굴을 추진 계획이다. 문화재관리국은 올해 하남시유적발굴 보조비로 1억원을 책정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문화재소식

인각사 사역확인 시굴조사 보고서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 시굴조사 결과 토불편, 철제 수인편, 철제 불수(佛手), 청동발우, 연화문 수막새, 귀면와 등이 출토됐다.

중앙승가대 발굴조사단(단장 홍선스님)은 최근 1998년 2월부터 4월까지 인각사를 시굴조사한 결과보고서에서 인각사의 사역을 남북 최대 약 150m, 동서 180m 규모의 평지가람으로 추정하고 각종 출토품을 공개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고대 교통로를 사역의 남쪽 산록이거나 위수천변으로 추정한 조사단은 인각사의 사역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말까지 유지되다가 조선시대부터 급격하게 축소되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위원 김상영교수(중앙승가대)는 "이번 시굴조사에서 인각사 전역의 유구방향보다 서쪽으로 치우친 현상을 보이는 미륵당 주변의 건물지가 독립된 공간으로 존속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새롭게 제기됐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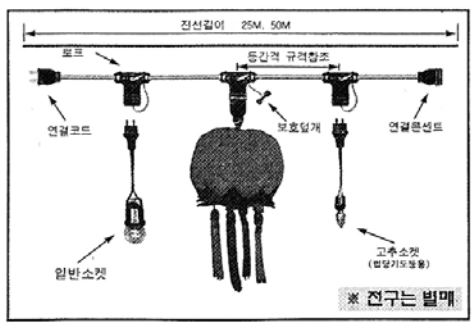
16일 덕수궁에서 영산재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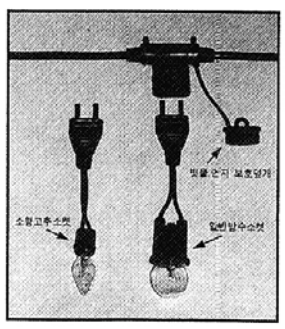
덕수궁에서 영산재가 재현된다. 박희덕씨 외 26명이 참여해 재현하는 영산재는 16일 7시30분 덕수궁 중화전에서 봉행된다. 10일부터 5월9일까지 한달동안 저녁9시까지 야간개장하는 덕수궁 한마당문화축제의 일환이다.

18일에는 한국전통문화연구회원 25명이 펼치는 처용무, 5월4일에는 명원문화재단이 준비한 전통다례와 차시음의 장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서울밀레니엄컬넥션의 패션쇼를 비롯하여 대금 및 가야금 등 전통악기 연주회, 기타 소규모 음악·예술공연행사 등이 덕수궁 휴관일(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개최된다.

강지연 기자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사찰·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사찰·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납품)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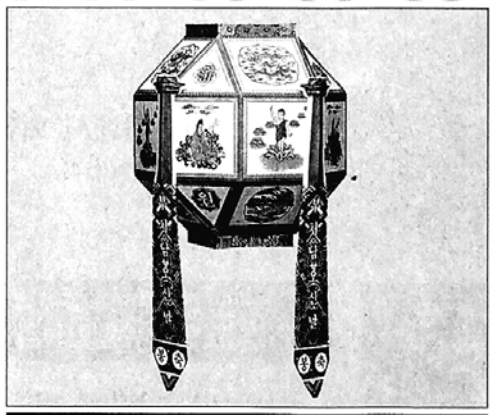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추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원기업 代表 吳大權(光明) 合掌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폰 : 011-833-8018
영·호남지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 (0591)757-3626 휴대폰 : 011-869-4854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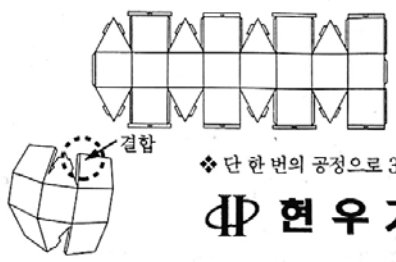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제원스님은 문학을 통한 포교를 위해 도서출판 비 해피룰 설립하고 첫 포교소설 〈엔트런스〉를 펴냈다.



삶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삶의 시한이 80년이라 한다면 지금의 나는 어디쯤에 서 있는 것일까.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성년의 문턱에서 누구나 한번쯤 인생의 좌표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하늘과 땅처럼 부와 빈곤이 교차하는 미국, 희망과 좌절이 공존하는 라스베가스의 풍경,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는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현장 교육이 아닐까.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을 역임한 제원스님이 대자유를 화두로 문학을 통한 포교활동에 뛰어 들었다. 장산(張山)이란 필명으로 처음 쓴 장편소설 〈엔트런스〉(비·해피 刊). 제목인 '엔트런스'가 의미하는 것은 멋진 인생으로 가는 문.

라스베가스 무대로
삶의 본질 눈뜨는
사실적 과정 묘사

제원스님 첫 포교소설 '엔트런스'

욕망 속으로 들어가 대자유 화두 찾는다

소설의 무대는 수행이나 구도의 길과는 상반된 돈과 여자 도박 환락의 도시인 미국 라스베가스다.

성년을 앞둔 스무살 젊은이가 부모에게 인생을 알고 싶다고 말하고 라스베가스로 무전여행을 떠난다. 그곳에서 '블랙잭의 달인'이자 인생을 달관한 채 독신으로 살고 있는 미스터리 맨을 만나 사부(師父)로 삼는다. 라스베가스에서 성인식을 치르고 열흘동안 사부의 도박철학을 통해 젊은이는 삶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 줄거리의 핵심이다. 흥미를 끄는 점은 두 주인공이 실존인물이란 점과 수행자였던 사부가 부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젊은이에게 삶의 의미에 눈뜨게 한다는 사실이다. '스스로의 생이란 무엇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자문해 보고 자문해 보라'는 따끔한 질책은 선불교의 화두처럼 주인공은 물론 독자들까지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극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대자유는 사람으로부터 떠나고, 물질(돈)로 부터 얽매이지 않을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스님은 말한다.

제원스님은 82년 미국 워싱턴 법주사를 창건하고 현재 길음복지관장을 맡고 있는 등 국제 포교및 복지분야에 정진하며 그동안 〈이제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등 3권의 수필집을 발간했다. 스님은 이번 소설의 출간과 함께 도서출판사 비·해피도 설립했다. 전현직 언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해피 출판사는 앞으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소설을 중점적으로 출간함은 물론 신인문학도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원스님은 "요즘 젊은이들이 자신과 사회, 인생에 대한 도전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가치있는 삶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소설을 썼다"며 "현대인들에게는 세상을 향한 도전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횃불이 되길 바란다"고 발간의 이유를 설명한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소설로 읽는 백제 불교의 日전래

백제화원 이연승 옮김



일본의 천황과 왕족들은 정말 백제인이었을까. 646년 대화개신(大化改新)의 비밀을 소설형식을 빌어 완벽하게 재현한 〈백제화원〉이 나왔다. 백제화원은 일본이 백제의 꽃받과 같이 백제인들에 의해 건설되고 만들어졌음을 상징하는 제목이다.

643년 2월부터 645년 6월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도유라사-매화, 백제대사-자양화 등 사찰과 꽃을 주제로 한일고대사의 수수께끼가 파헤쳐진다. 신라학승초청 법회 통해 미륵보살에 심취해 메이지시대에 국보1호로 지정하게 된 이야기, 가쓰라기 황자에게 백제어와 학문을 연마토록하는 이야기 등이 저자 우다노부오의 유려한 문체와 결들여 재미를 더한다. 〈디자인하우스, 값7천5백원〉

화제의 책

중국철학 깊이와 넓이 층정리

중국 철학사 상·하 박성규 옮김



중국철학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국철학사〉 완역판이 나왔다.

이 책은 중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우는 풍우란이 1934년 강의한 것을 토대로 펴낸 〈중국철학사〉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성규씨가 옮겼다.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중국철학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책이다. 자학시대, 경학시대로 상·하 2권으로 번역된 이 책은 시대별로 구분돼 중국철학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무엇보다 남북조, 수당의 불교역사도 수록돼 있어 주목된다. 저자는 역사상 한 시대의 대유로서 스스로 일가를 세운 분들은 사상과 학설이 대부분 탁월하게 수립되어 현재의 안목으로 보아도 불멸의 가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다.

〈까치, 각권 2만원〉

래의신간

마야와 춤을



독일의 신학자 프리츠 빌헬름이 펴낸 〈마야와 춤을(Dancing With Maya)〉은 인도 여성신 가운데 '마야'의 상징성을 살피고, 여기에 양자물리학의 법칙을 대비시켜 인도의 철학사에서 불교가 태동하는 이유와 여성신의 역할을 탐구하고 있다. (Zero & One 출판사, ISBN 0966954408, p512)

섬에 있으라



"수행자는 바다 한 가운데 있는 섬에서 참모습을 찾아야 한다." 수행자의 길을 잠언적 문체로 서술한 야나 께마스님의 〈섬에 있으라(Be an Isalnd)〉가 출간됐다. 야냐 께마스님은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부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지만, 우리 주변의 모두 것이 부처님의 삶과 다름 아니라고 강조한다. (Wisdom 출판사, ISBN 0861711475, p160)

십이연기의 성립과…

십이연기설을 아함경전에서 나타난 '성도법(成道法)'으로서가 아닌 후기 학설이라는 부분을 조명한 〈십이연기의 성립과 불타의 연기〉가 발간됐다. 십이연기의 번환, 십이연기의 성립에 대해서, 십이연기성립의 고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시우라 칸쇼(橋浦寬照) 著, 개산당(開山堂) 刊

미국서 '원각경' 출간

미국에서 〈원각경〉이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천년동안 정각에 이르길 염원했던 동아시아 스님들 사이에서 널리 읽혀졌던 〈원각경〉, 찰스 뮬러교수(日, 도요가쿠엔대학)가 조선 초기 배불정책 속에서 불교를 수호했던 선승 기화(1376~1433) 스님의 저서 〈원각경소〉를 번역하고, 한국·중국·일본불교의 선 수행법의 근본 철학을 분석한 〈원각경(The Sutra of Perfect Enlishtenment:Korean Buddhism's Guide to Meditation)〉(뉴욕주립대 출판사 刊)을 발간했다.

찰스뮬러교수
한 중 일 불교
선수행법 분석

'크고 올바르며 넓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르치는 완전한 경전'이라는 뜻을 갖은 〈원각경(圓覺經)〉은 본래 부처님과 문수·원각보살 등 열두보살과의 문답형식으로 엮어진 경전. 이 책은 기화스님이 6백년전에 남긴 부처님의 불이(不二)와 삼매의 세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식과 상상을 넘어서는 일상적인 말과 글로써 '원각 수행법' '돈수와 점수' '무지와 고(苦)의 본성' 등을 주제로 총 12장으로 엮어졌다. 오종욱 기자

승가대 '원효전서 일자색인집' 펴냈다

한문경전 전산화에 기초가 되는 일자색인집이 나왔다.

중앙승가대학교는 한문경전 연구 자료집으로 〈대해도경종요〉, 〈법화종요〉, 〈본업경소〉 등 원효전서 일자색인집을 펴냈다. 이 일자색인집은 전산원 김응철 교수가 원도우 환경에 적합한 일자색인 생성과 검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원효전서 원문을 입력, 일자색인 작업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발간됐다.

한문 불교문헌들을 전산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특히 경전 중에는 어려운 한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뿐 아니라 현재의 운영체계에서 충분한 한자 코드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일자색인집은 경전 전산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승가대학교 출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한문경전에 쉽게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일자색인집을 출간했다"며 "산스크리트어 및 팔리어 등 프로그램을 개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앙승가대학교 출판부, 3권 8만원〉

동국대 역경원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4권 출간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外〉 〈좌선삼매경 外〉 〈칠불팔보살소설대다라니신주경 外〉 〈대승보요의론 外〉 등 4권의 한글대장경이 나왔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조탑법 즉 탑을 세우고 다라니를 염송하는 공덕에 대해 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운허스님이 번역한 것을 토대로 출간됐다. 이 경은 인쇄와 필사 등을 통해 탑안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경주 불국사 석가탑 안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현존 최고의 목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좌선삼매경〉은 세상일을 관찰하여 번뇌를 없애는 삼매법에 대하여 구마라집이 한역한 것으로 상·하 두권이다. 상권에서는 나쁜짓을 하고 성을 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권에서는 삼매속에서의 불법 수행법에 대해 각각 설하고 있다. 이 책에는 마등가경 등이 함께 수록돼 있다.

〈칠불팔보살소설대다라니신주경〉은 석가모니를 비롯 일곱 부처님과 문수사리를 포함한 여덟 보살 그리고 하늘 귀신과 용왕들이 설한 주문과 효험들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대승보요의론〉은 10권으로 대승의 중요한 뜻에 대하여 해석한 논. 이 논에서는 70여종의 경전을 인용하면서 신심과 보리심과 자비심, 대승과 열반, 바른 교리와 바른 행위, 육바라밀 등을 설하고 있다.(동국역경원, 값 각권 1만5천원)

한글대장경 115종 품절

동국대학교 역경원(원장 월운스님)이 발간한 한글대장경 2백65종 가운데 1백15종이 품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역경원은 품절된 종수에 대해 수정 및 보완작업을 마치고 종별 1백여권을 이달내로 출간한다.

최근들어 품절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글경전에 대한 불자들의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역경원측은 분석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일 타	민 족 사
2	참선요지	허 운	여시아문
3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4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5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불교다라니
6	가슴을 적시는…	성우·지현	민 족 사
7	입산	재 연	문학동네
8	원효(영원한 새벽)	남 동 신	새 누 리
9	티베트의 지혜	소갈린포체	민 음 사
10	위빠나사 33일	법 산	우리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붓다가 살아 있다면 바로 이런 책을 썼을 것이다!"

입문에서 깨달음의 완성까지—
이 시대의 구도자 무산본각(無山本覺) 선생이 완벽하게 복원해낸 붓다 수행법의 완결판!

쉽게 풀어본
호흡수련과 氣의 세계 2
전통호흡수련의 폐단을 극복하는 '자연호흡'의 세계

"100% 체험"

호흡수련, 이젠 '자연호흡'으로 한다!
언제까지 지식(止息)과 폐기(閉氣)로 자신의 몸에 무리를 줄 것인가? 들숨과 날숨만으로 이루어지는 자연호흡으로도 얼마든지 氣가 생성되고 강화된다! 20년 수련 체험을 바탕으로 쓴 氣 수련의 새로운 지침!

■ 값 10,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지은이 全永光
오랜 공직생활(전 해양수산부 서기관)을 하였으며, 여러 국가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전호흡을 강의하고 있다. '97년 제1회 국제기과학학술대회 초청연사로 氣수련의 메커니즘에 대해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책의 전편인 《호흡수련과 氣의 세계》로 많은 수련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마음닦기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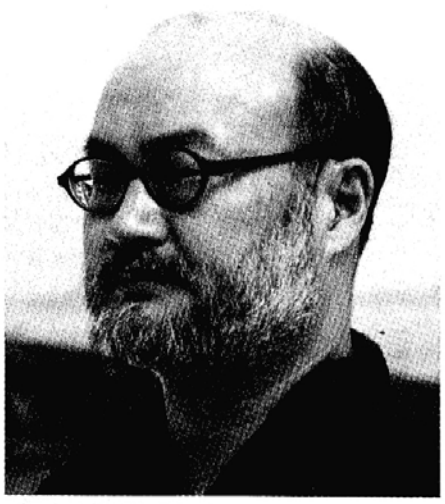
無山本覺 지음
값 12,000원(부록CD 포함)

마음수련의 正道를 밝혀주는
모든 수행인들의 필독서!

· 2,600년 전 붓다가 깨달음에 이른 수행법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본격 수행 지침서.
· 방대한 경전과 논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수행법들이 체계적으로 기술된 수행 필독서.
· 일실된 수행법들을 복원하고, 북방 대승불교권의 간화선(看話禪) 전통까지 포용한 본격적인 수련 매뉴얼.
· 여러 종교의 수행법, 현묘지도(玄妙之道), 도가 등의 수련법을 종합하고 해석·비판·융해하여 재구축한 완벽한 수행 시스템.
· 영적 게발을 위해 직접 몸으로 체험한 실천적인 테크닉의 기록.
· 인류 정신발전의 정화(精華)가 함축되어 있는 최고의 수행서.

■ 저자 초청 특강 및 워크샵
1999. 4. 3(토) 오후 2:30~5:30/참가비 6천원(선착순 입장)
■ 12시간 집중수련 워크샵
4. 10(토) 오후 3시~10시/11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참가비 5만원(선착순 마감)
주최: 정신세계원(747-7033/비원 옆 원서빌딩/안국역·종로3가역)

특별부록 …… 禪定으로 이끌어주는 CD
무산본각 선생의 목성 가르침. 듣기만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지은이 무산본각(無山本覺) 전남 목포 생. 연대 정외과 졸. (주)선경 테헤란 지사장, 주(駐) 이란 한국상사협의회장 역임. 이란-이라크 전쟁중 테헤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수행지가 됨. 영축총림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받음.

實證 한단고기
단군조선과 고구려·백제·신라의 대륙역사

이제는, 더이상, 《한단고기》를 부정할 수 없다!

단군조선은 78개의 속국을 거느린 대제국이었으며, 한반도는 삼한의 일부에 불과하였고 고구려·백제·신라의 중심지는 현재의 중원 대륙에 있었다…!
한 고대사 연구가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마침내 긍지에 찬 민족사가 되살아난다—《실증 한단고기》.

《삼국사기》와 중국의 25사 등 방대한 문헌과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중국의 고지도들을 통해 단군조선 47대의 생생한 역사, 왜곡·축소된 고구려 역사의 실체를 낱낱이 고증하고, 백제와 신라의 대륙사까지 새롭게 밝힌다.

이일봉 지음
값 12,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한단고기》
임승국 주해 | 10,0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 팩스 739-8791

"윤회-무아 병합 공존 교설"

정승석교수 '윤회의 무아와 자아'





"윤회냐 무아냐 상충요소 해결점 유식학의 알라야식"

'무아윤회' 업의 DNA에 의해 윤회 복제 가능

'자아와 무아' '업과 윤회'는 불교 교리 연구의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주제들이다. 외국의 경우 무아설과 윤회설의 관계에 대해 논의된 연구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서로 상충되는 이론인양 이해되던 윤회설과 무아론의 난점을 해소시키려는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정승석(동국대)교수는 〈윤회의 무아와 자아〉(장경각 刊)에서 "불교에서 영혼과 같은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회를 인정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불교윤회설의 의의는 자기의 행위인 업의 전환을 통해 자기 개조가 가능함을 세속의 통념으로써 자각하게 하는데 있다. 즉 인간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존재로서의 '자기'를 지향해야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윤회설의 취지"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무아설은 불교의 본질이자 원의(原義)를 대변하고 윤회설은 대중구제의 방편으로서 설시(說示)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불교에서는 무아설과 윤회설이 '모순인 채로 공존하는 교설'이 아니라 '병합이 전제되어 공존하는 교설'이라는 사실에서 불교 윤회설의 특수성이 인정된다"는 정교수는 "연기적인 세계의 생성 변화과정은 어떤 기체(基體)로서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무아설과 윤회설이 지시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가치와 이것의 추구에 부합하는 바른 삶이라는 것이다. 윤회설은 깨달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범부의 세계를 반영하고 범부가 이해하고 구사하는 방식이나 언어로써 무아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게 정교수의 논점이다.

"불교의 무아설이 비아(非我)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정교수는 "이 비아적 표현도 결국은 무아설의 범주 안에 있으며, 그것은 별개의 비아설로서가 아니라 무아설의 일환으로서 구사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비아적 표현은 형이상적인 문제에 대해 단정적인 대답을 기피했던 무기(無記)와 상통하는데 이 무기의 이면에 있는 자각내용은 연기(緣起)와 중도(中道)라는 주장이다. 즉 비아적 표현의 궁극적인 귀결은 연기와 중도라는 자각의 내용에 이르며 이 자각의 체험에 도달하면 무아 관념 자체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

윤회설과 무아설은 상충하는 교설이 아니라 '범부의 나'에 의한 전생(轉生)과 수행자가 지향하는 '각자(覺者)의 나'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정교수는 무아설이든 윤회설이든 그 핵심은 '나'의 문제로 집약된다고 지적한다.

또 유식학에서 제시하는 '알라야식'이 불교사상사에서 무아설과 윤회설의 상충을 해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의의와 가치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한다. 알라야식은 업의 잠재력인 습기(習氣)이며 이는 무아적 존재인데 이 알라야식 자체의 양면적 기능과 이해의 가능성은 그대로 무아와 윤회의 양립을 반영한다. 정교수는 알라야식을 내세우는 유식설은 무아설 해석의 전통에서 중도적 위치에 있다고 설명한다. 알라야식이 윤회의 주체이자 해탈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정승석 교수는 무아윤회의 의미를 과학적 용어를 이용해 "아트만이라는 생식 세포에 의해서만 윤회라는 복제가 가능하다는 고정 관념, 즉 유아(有我)윤회를 깨뜨리고 업이라는 체세포 DNA에 의해 윤회라는 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아윤회이다"라고 설명했다. 무아윤회는 업의 자기복제, 체세포에 의한 복제는 업이 타력에 의해 복제되는 '업의 의타(依他)복제'라는 것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올해로 창립 80주년을 맞은 광명수양회와 대한불교진흥원은 '염불과 현대생활'을 주제로 첫 교학연수회를 열었다.

불교진흥원-日 광명수양회 교학연수회

"한-일 불교공동체 형성하자"

'한국과 일본 양국의 불교가 초기부터 공유해 왔던 것은 대승불교의 핵심정신이 집약된 〈화엄경〉의 높은 이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른 정치와 경제위주의 생활로 인하여 이러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대한불교진흥원과 일본 광명수양회가 3일 공동으로 주최한 불교교학연수회에서 '염불과 현대생활'을 주제로 발표한 가와나미 아키라 교수(일본 동양대)는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일양국은 서로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와나미 교수는 "현대인들은 염불삼매의 생활화를 통해 번뇌를 끊고 안정된 생활과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염불신앙의 실천방법과 형태'를 발표한 보광스님은 불교의 신앙방법을 염불의 회수를 중시하는 수량신앙과 염불의 기간을 중시하는 일수신앙으로 구분했다. 수량신앙은 일본정토신앙의 큰 유형을 형성하고 있고 일수신앙은 만일염불결사 등을 통해 한국 정토신앙의 특색으로 자리잡았다는 주장이다.

강지연 기자

"종교선택시대의 불교역할 '지혜의 종교'로 인류공헌"

민희식교수 주장

"깨달음은 구제력과 관계가 있고 불교는 인생의 문제점을 완전하게 풀어나가는 가르침이므로 불교를 통하여 한국은 새롭게 일어나 인류사회에 공헌을 해야 한다."

'종교 선택 시대의 불교의 역할'을 고찰한 논문에서 민희식 교수(한양대)는 지혜를 통해 발전을 지향하는 인간은 자비심을 습관으로 몸에 지니고 발전의 부분을 거기에 연결시켜 이 세상을 불국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불교가 바탕을 두고 있는 자력사상, 불인합일형(佛人合一型), 성선설, 지혜, 공평성, 관용, 윤회전생, 연기법, 자비사상 등을 더욱 발현시켜 미래를 책임지는 종교가 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교수는 "불교는 원래 '지혜의 종교'이지만 대승불교에 있어서 '신앙의 종교'가 됐다"고 말한다. 인간부처에서 영원의 부처로 되면서 인간성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모습이 신앙이 되면 강한 구제력이 생긴다는 것.

이와함께 오늘날 극심한 환경오염을 환경의 괴로움으로 인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서로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부처님의 연기법에 대한 가르침이 환경문제 해결의 핵심사상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 무소유의 삶, 만물의 본질적 가치와 존재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는 화엄사상이나 윤회사상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민희식 교수는 결론짓는다.

강지연 기자

진각종 통리원 문사부장 무외정사

'대승장엄보왕경' 연구로 인도 델리대서 박사학위



산스크리트어 산문본 〈대승장엄보왕경〉의 비평적 편집과 영문번역, 그리고 그 내용의 비평적 분석을 시도해 경전 전체를 처음으로 연구한 논문이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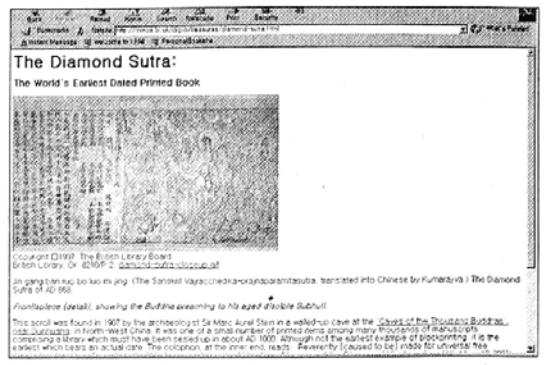
인도 델리대학 불교학과에서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무외정사(선상균 · 진각종 통리원 문사부장)는 전체 32장으로 나누어진 〈대승장엄보왕경〉은 최소한 6세기 이전에는 성립되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대승장엄보왕경〉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관자재보살의 박애적 활동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도 관자재보살의 개념, 육자진언의 성격, 재가성직자의 존중사상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 관자재보살은 구원자로 우주의 존재 그 자체로 우주의 창조자로 부처님의 고유한 능력인 수기를 주는 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특징.

또 관자재보살의 본심으로 규정되고 있는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이 모든 법 가운데 가장 높고 심오한 법이라고 설파되고 있다. 무외정사는 "구체적인 육자진언의 염송법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육자진언의 행법으로서 만다라를 설치하거나 인계를 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는 〈대승장엄보왕경〉은 밀교의 삼밀수행법이 갖추어져 가는 과정에 성립된 과도기적 경전"이라고 분석했다.

강지연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교리공부 사이트

인터넷을 이용해 불교 교리를 공부할 수는 없을까? 전자가상공간에서는 불자 네티즌이 언제든지 〈금강경〉을 영문과 범어본으로 읽고, 불교학자와 일반불자들이 정리해 놓은 부처님 가르침을 열람할 수 있는 곳, 교리 사이트들이 있다.

금강경의 내용 · 가치 설명

▲금강경(Diamond Sutra) 사이트 〈금강경〉의 영문 · 범어본 뿐만 아니라 이 경전이 5조 홍인대사 이래로 불교의 주요 경전으로 떠오른 배경과 의미 등을 분석해 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6조 혜능(慧能)이 어느날 〈금강경〉을 읽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는 대목에서 홀연히 깨달았다는 선일화(禪逸話)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범영(梵英) 〈불경어휘 전자사전〉도 제공한다. 알파벳으로 구분된 이 전자사전에는 범어를 한문으로 음역하고 영어로 뜻을 설명한 1천여개의 범어 낱말이 있다. 〈금강경〉 본문 중에서 범어 낱말은 전자사전과 링크(연결)되어 있어, 〈금강경〉을 읽으면서 범어의 정확한 의미도 알 수 있다.

불교어휘 일목요연 정리

▲불교노트(Buddhism Note) 사이트는 브리태니커, 웹스터, 룽맨 등의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교 어휘를 일목요연하게 정의해 놓고 있다. 또 런던불교학회에서 정의한 불교의 12계율을 비롯해 불교 입문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다.

이중에는 영국의 존 스네링 박사가 발간한 〈불교편람〉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각과 탈교리'를 비롯해 포용력 · 불교의 자유탐구 · 수행법 · 수계 등을 요약해 놓고 있으며 부처님 일생 · 중도 · 사성제 · 팔정도 · 지혜 · 도덕(sila) 등도 해석해 놓았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웹마스터 리드가 아시아 여행기간동안 미얀마에서 수집한 텅린콕(Tung Lin Kok)의 부처님 생애 삽화들이 진귀한 볼거리.

'불교와 사회' 등 정보제공

▲불교와 동양철학(Buddhism & Eastern philosophies) 사이트는 '불교사와 교리', '불교와 사회', '동양철학', '온라인 토론' 등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교사와 교리에는 서방불교도교우회 회장 상가라시타가 불교와 부처, 수행관, 불교와 죽음 등을 주제로 쓴 글과 플로리다대학 제랄드 그로우교수가 쓴 사성제와 팔정도, 참선, 불교의 세계관 등이 제공된다.

불교와 사회에는 콜게이트대학 빅터 맨스필드 교수의 '대승불교와 현대 물리학의 시간관'을 비롯해 이 사이트를 개설한 데이비드 로이가 부처님이 인도 바라나시에서 설교했던 고 · 죽음 · 윤회 등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이용자의 견해를 온라인상에서 토론하고 유교 · 도교 등도 정리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금강경 http://nhuru.net/tlksrc/9606/sources/diamond.htm
△불교노트 http://www.geocities.com/Tokyo/Towers/3268/bnotes01.stml
△불교와 동양철학 http://httpsrv.ocs.drexel.edu/undergrad/st954x8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솔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익수영진고 (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卽非 논리로 깨달음 세계 접근

금강경 ②

경전 속의 禪 사상 14

글쓴이



정 호 영

〈충북대 철학과 교수〉

지성 · 상식 타파하는 부정에서 출발
주관배제 '있는 그대로의 진여' 가르쳐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이라 불린다."

금강경은 비교적 짧은 경전이면서도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그리 용이하지 않다.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어법이 종종 등장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강경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는 말이 등장한다. 이러한 어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금강경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불교용어들이 대개 이러한 문장의 틀 속에서 언급되고 있다.

금강경 사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러한 문장 형식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할 때 비로소 금강경의 메시지가 근본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상식 또는 합리적 이성에 배치된다는 점에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에서 인용된 문장을 기호화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A는 A라고 하지만, ②A는 A가 아니다, ③그러므로 A는 A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①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지 않는다. 우리의 합리적 이성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②에 대해 의아하게 여긴다. 논리학의 기본원칙인 모순율 즉 'A는 비(非)A가 아니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A는 비A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A가 곧 A가 아니다' 라고 하는가.

그러나 반야사상은 ②에서와 같이 우리의 지성과 상식의 울타리를 돌파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①은 우리에게 상식을 가르쳐주지만, ②는 우리에게 상식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근본적으로 반성해 볼 수 있는 부정의 정신을 심어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딜렘마,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지게 된다. 하나의 주장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이다. 상식에 따르자니 엄연히 반성이 존재하고, 반성을 따르자니 상식이 저항하는 꼴이다.

선종에서의 화두 · 공안은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화두는 우리를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으로 인도한다. 심지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립되는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 유명한 조주(趙州, 778-897)스님의 무자(無字) 화두가 그것이다. '모든 중생에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던 조주 문하의 한 스님이 비루먹은 개를 보고 저렇게 천한 것에도 과연 불성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그가 조주스님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기했을 때 스님의 답변은 의외로 '없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부처님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큰스님은 없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관념에서 벗어나 삶의 세계, 사실의 세계로 돌아옴으로써만 해결된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하는 바와 같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한다. 변화라는 것은 차이성과 동일성이 공존함을 전제로 한다. 우리의 삶도 생과 사가 겹쳐 있다. 살아가는 과정이 곧 죽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세계도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적극적으로 말하여 모순이야말로 세계의 실상이다. 관념에서의 모순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세계를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파악한다. 그러나 삶의 세계에서는 모순이 공존하며 나아가 서로서로 스며들어 하나를 이룬다. A는 A이면서 동시에 비A인 것이다. ③에서 A가 다시 긍정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반성을 경유하여 확인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인식이다. 이것은 주관의 왜곡됨이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깨달음의 세계, 진여(眞如, tathat)의 세계에 다름 아니다.

금강경의 이러한 사상은 즉비(卽非)의 논리로 불리기도 한다. 즉비의 논리는 금강경의 핵심사상이면서 반야사상의 근간을 이룬다. 나아가 선사상에도 깊이 침투하여 화두의 형식으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는 송나라 청원유신(靑原惟信) 스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스님의 말씀은 '30년전 참선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산은 산, 물은 물이더니 여러 선지식을 참견하고 조금 깨친 바로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온전히 깨치고 보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해함으로써 이 유신스님의 수행과정, 깨달음의 세계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3

반야바라밀다 문헌 ③

집착 · 욕망이 사물관찰 방해
생성 · 소멸 바로보는 눈 지혜

불교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불교의 모든 학파에 공통되는 것이며, 불교적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

부처님 가르침 즉, 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 가운데 서로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것이 우리의 감각으로 식별되는 사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다수 불교학자들과 불자들은 그들의 주변에 있는 일상의 감각적 사물들이 그릇된 외관이라고 간주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불법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무지 때문에 우리의 시야에서 가려져 있고, 지혜라는 특별한 덕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 반야의 세계에서는 일상적 감각에 의해서 얻어진 자료들을 궁극적인 사실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현대 물리학의 명제들은 추상적인 실재나 혹은 원자, 미립자, 전자장과 같은 '구조물'에 관해서 언급하며, 그것의 속성, 경향, 습관적 행위 등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일상의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자료보다 지성적이며 근본적인 개념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불교학도 세계가 불법이라고 불리우는 단순한 궁극자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 그 궁극자는 다양하고 순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상호조건적인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불교적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섯 가지의 덕과 마찬가지로 볼법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감각을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분화는 사람과 사람 모두 적용된다.

그런데 세분화를 시도할 때는 한 가지의 장애를 만난다. '나', '나의 것' 등에 대한 집착이다. 그것은 사건, 조건, 활동, 자료 등의 위에서 비교적 독립적이고 다소 지속적인 사물의 체계를 우리의 상상에 의해서 덧붙이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유럽의 철학자 가운데 베르그송은 '구체화'가 '사실'을 어디까지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충분히 논증했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공평무사하게 고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건을 이용하려는 욕망 때문에 이러한 왜곡이 생긴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사실 베르그송은 그때까지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직관'이라는 애매한 개념을 가지고 사물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백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점을 제외하고는 베르그송의 저서들은 서양인들에게 불법에 대한 훌륭한 안내서가 됐다.

만일 수행자가 사물의 생성과 소멸을 관찰할 수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지속되고 사라지는가'를 고찰할 수 있고, '그것들이 아무데서도 오지 않고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고 하는 흔한 전형구에 동의할 수 있다면, 수행자의 시야에는 불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명상 수행이 쌓인 후에는 이 전형구가 매우 자명해지겠지만, 그러한 수행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 못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몇마디의 말로 결코 전달할 수 는 없다. '불법'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따른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번역=오증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항생제와 세균

병원균도 살아있는 생명체
항생제에 저항 자기보호
돌연변이 유전자 공유 생존



전세계의 반이 넘는 지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항생제를 살 수 있다고 한다. 아니,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항생제 남용은 병원균들이 항생제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항생제 남용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주목해야할 문제이다. 또한 불자들인 우리는 모든 생명있는 중생들에 연민을 느끼도록 배웠다. 이들 세균들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이들 또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저항하고 있다. 이들과 공존하여 살아가는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인가?

항생제에 대한 저항은 세균들이 그들 환경에 등장한 화학적 위협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들 방어 매커니즘은 많은 종류의 생물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염성 질병과 농업물 부패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세균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저항이란 주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점으로 대치돼야 한다. 즉, 병원균이 항생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항바이러스 작용제에 대해 다른 생명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보호하려 이들에 저항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항생제 저항 유전자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마도 원래는 항생물질을 생산하던 유기체일 것이다. 다소 이상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이는 논리적이다. 어떤 박테리아가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화학성분을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박테리아는 이 성분에 대항하는 화학적 방어물질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만든 물질에 의해 자신의 세포벽이 파괴되고 만다. 이 가정은 단지 논리적 일 뿐만 아니라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우리는 항생물질을 만드는 많은 박테리아에서 이들 항생물질에 대해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를 발견하고 있다. 이 유전자들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샘플에서 발견되는 저항성 유전자와 정확하게 같은 생화학적 작용을 한다.

세균들은 항생제를 이겨내는 것을 어떻게 배우는 것일까? 생명을 구하는 약품인 항생제에 대해 저항성을 갖는 병원균이 등장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분자 생물학은 우리에게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저항 매카리즘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돌연변이에 의해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돌연변이는 약품 회사들이 저항성을 보이는 병원균을 정복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항생제를 변형시킬 때도 나타난다. 이 경우 박테리아는 이미 기존의 항생제를 무력화 시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새로 변형된 항생 물질에 대한 저항력을 얻기 위해 돌연변이를 한다.

그러나 박테리아는 단순한 돌연변이보다 훨씬 더 영리한 방법을 취한다. 더욱 확률이 높은 이 방법은 항생제에 저항하거나 항생제를 파괴할 수 있는 생화학적인 비밀들을 담은 저항 유전자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저항 플라스미드(plasmid, 박테리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고리모양의 작은 DNA)가 하나의 박테리아로부터 나오고 다른 박테리아들은 이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인 쪽은 자신의 플라스미드를 방출하도록 자극된다. 이 교환 능력은 박테리아에게 다른 박테리아로부터 온 DNA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공생생활인 것이다.

생존을 위해 항생제를 격퇴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박테리아들은 어떤 박테리아라도 다른 박테리아로부터 유전자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유전자를 공유한다. 미물이라고 여기는 세균들도 자기의 일부를 내놓는 공유라는 방식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를 녹이는 물자들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단청불사 · 천일기도 六百日 전국 禪院長 · 祖室 · 方丈큰스님 특별초청

모시는 말씀

한국불교 선종본찰 (재)선학원 중앙선원은 송만공, 만해 한용운, 백용성 큰스님들께서 화주가 되어 창건되었습니다. 선학원은 3·1운동을 주도한 국운창출의 원찰이며 해방 이후에는 이효봉, 하동산, 정금오, 이청담 대선사께서 한국불교계 정화불사를 이끌어 오늘의 조계종 전통종단을 중흥케 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선학원이 한국선종불교의 聖地임은 自他가 공인하는 事實입니다.

이 時代의 佛敎 聖地인 禪學院에는 특히 李成桂 太祖大王의 王師로 계시던 無學大師께서 宮터로 잡은 창덕궁(지금의 비원)의 백토를 가지고 송만공 큰스님께서 손수 조성한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선학원 부처님 외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은 현재 수덕사 정혜선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선학원은 여러 명안조사님의 정기가 서려 있는 곳으로 또한 선학원 중앙선원이 동·하안거 방함록에 전국선원 중 제일 먼저 실려 있던 시절이 있었음을 돌이켜 볼 때 선학원의 禪風이 일면 한국 禪宗佛敎가 興하고 선학원의 위세가 가라앉으면 한국 禪宗佛敎가 혼돈을 겪는 것을 지켜본 후예로서 웃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三寶님께 발원하며 24년 만의 선학원 단청불사를 계기로 삼아 한국 선종불교 중흥 도량이 될 선학원 대작불사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時代의 佛敎聖地 歷史的인 佛事에 善男善女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라옵고 단청불사 千日기도 동참공덕으로 가정의 팔란과 고와액이 소멸되어 다행다복한 주인공이 되시옵길 축원합니다.

아 래

특별초청 법어 八公山 桐華寺 祖室 眞際 大禪師

선종소최경전 금강경 신림 산림설법 삼장법사 윤성해대법사(선학원 중앙선원장)

■ 때 : 1999년 음 3월 3일(양 4월 18일) 일요일 오전 11시

■ 곳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큰 법당

■ 주 최 :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 화주단

■ 주 관 : 신도회 · 운영위원회 · 합창단 · 108보리심회 · 선정회 · 청년회

■ 문 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

TEL. 732-3327, 720-8583, 720-8584

불기 2543년 음 3월 3일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원장 삼장법사 윤성해 합장

千日기도 六百日大法會

제7회 한국불교전통선(禪)중흥영산대설법회상

八公山 桐華寺 祖室 眞際 大禪師



팔공산 동화사 조실 진제 대선사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개요

1차
① 기와 개수공사 완료
② 내부 페인트 공사 완료
③ 단청불사 (24년만의 불사) 완료
④ 선학원 선방 및 시민선실 내부공사 완료
⑤ 가스배관공사 및 보일러실(5개를 하나로 하는) 공사 완료
⑥ 일주문 전통양식 건립불사

2차
⑦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중흥불사 千日기도 三百日 전국선원장 · 조실 · 방장큰스님 특별초청 韓國佛敎傳統禪中興靈山大說法會上主催 제1회~제10회(매 백일간격으로)
초청법사 · 제1회 황악산 직지사 조실 전관응 대선사 1997. 7. 4(양 8. 3) 성만
· 제2회 법수선원 조실 이성수 대선사 1997. 11. 13(양 12. 12) 성만
· 제3회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 이법행 대선사 1998. 2. 23(양 3. 21) 성만
· 제4회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 법일보성 대선사 1998. 윤 5. 3(양 6. 26) 성만
· 제5회 회계사 조실 중신행원 대선사 1998. 8. 13(양 10. 3) 성만
· 제6회 전 조계종 종정 송서암 대종사 1998. 11. 23(양 1. 10) 성만
⑧ 선학원 창건 사적비 새움 (3.1 운동주도 구국원찰)
⑨ 한국불교계 정화사 刊行 및 이 時代 佛敎聖地 宣布法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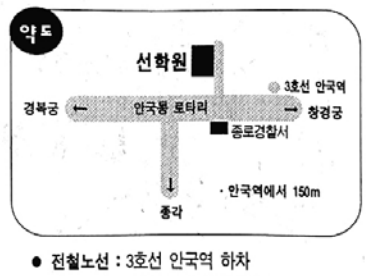
◆확 주 단

황자현심	손진여심	오만덕화	박보리성	권지애심	이보현심	박덕순화	이 광 덕	이관음행
박선해일	김복덕성	윤보광심	민길상심	송 경 헌	신 옥 순	김도월행	김마하연	유정혜성
송법성심	정선덕행	정본각성	이법황자	이지혜장	고만덕성	이보원심	운영위원 및 합창단원	

◆신 도 회

명예회장	염무영월					
고문	양보타원	이연화심	이 경 희	김명심행	엄공덕화	정본각성
회장	이관음행					
부회장	이반야행	최 복 식	유정혜성	황자재심		
총무	신성지행	이법왕자				
재무	손진여심	신월명심				
감사	박선혜월					
감사	권법연화					
1지역회장	이반야행					
2지역회장	유정혜성					
3지역회장	최 복 식					
4지역회장	황자재심					
운영위원일동						
합창단단장	유정혜성					
총무	김진실행					
108보리심회 회장	최 인 순					
총무	박보리성					
선정회	회장	배 경 주				
	부회장	박보리성				
	총무	이 상 회				
	총무	최 은 심				
	운영위원일동					
청년회장	이 상 훈					

약도



● 전철노선 : 3호선 안국역 하차
● 버스노선 : 안국동 종로경찰서 하차
(84, 8-1, 205, 543, 2, 8, 20, 153)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운주사 천불천탑 땅위의 별자리인가

성암천문대 박종철대장 가설 제기

전남 화순 운주사의 천불천탑은 지상에 내려앉은 별자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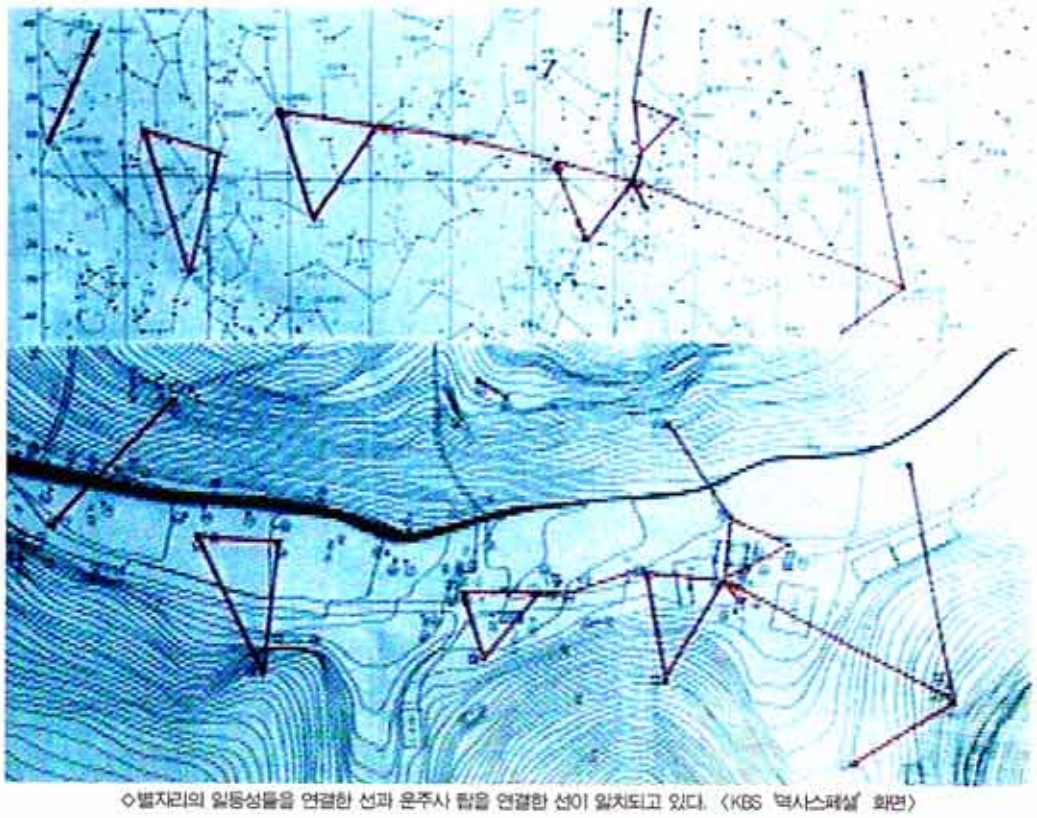
KBS 제1TV가 3일 역사스페셜(담당PD 우종택)을 통해 운주사의 천불천탑이 별자리를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방하늘의 별자리와 운주사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다는 믿음과 그를 뒷받침하는 칠성신앙이 새로운 가설의 줄거리다. 운주사의 불상과 탑들은 보기에는 무질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조성됐다는 것이다. 역사스페셜은 박종철(성암천문대장)씨가 준비중인 논문 '운주사 석탑배치의 천문학적 고찰'을 근거로 이 같은 가설을 제시했다. 4년 전부터 운주사의 탑과 불상 배치에 별자리를 접목시키는 연구를 해 왔던 박씨는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천문지도에서 일등성 별들을 연결해 운주사 탑배치와 비교했더니 탑의 배치와 별자리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

이를 토대로 역사스페셜은 일등성 별을 연결한 천체도와 운주사 탑을 연결한 배치도를 영상그래픽으로 만들어 비교하는 등 박씨의 연구내용을 뒷받침했다. 방하늘의 별자리 가운데 일등성들을 연결한 삼각형의 구도가 운주사 가람의 탑배치도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운주사의 탑들이 세우기 어려운 능선이나 비탈에 조성된 점은 별자리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박씨의 주장. 또 북두칠성을 표현한 칠성바위에서 정북 방향에 와불이 위치하고 있는 점도 전체의 질서를 본뜬 것이란 주장이다.

박종철씨는 "와불의 위치를 북극성의 위치로 전제할 때 천문도와 잘 들어 맞는다"며 "지금도 천문학에서 북극성은 잘 움직이지 않는 별로 보고 있으므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가람배치를 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북극성은 칠성신앙에서 치성광여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칠성바위와 와불은 칠성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됐다.

학자들이 운주사의 가람배치와 별자리를 연관지어 연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서쪽 산 중턱에 위치한 칠성바위에서 비롯됐다. 북두칠성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조성된 일곱 개의 바위는 각각의 크기가 다르다. 연구결과 크기가 다른 것은 북두칠성의 밝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즉 밝은 별은 크게 덜 밝은 별은 작게 조성했다는 것이다. 실제 바위의 크기를 통해 부피를 알아내고 그것을 무게로 환산한 결과 12톤에서 17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양한 크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칠성바위가 땅위에 조성한 북두칠성이라는 단서에서 나머지의 탑들도 별자리와 연관이 있을 것이란 가설이 세워졌는데 놀랍게도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일등성들의 위치와 닮아 있었다는 것이 박종철씨의 논문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다.


◇별자리의 일등성들을 연결한 선과 운주사 탑을 연결한 선이 일치되고 있다. 〈KBS '역사스페셜' 화면〉

일등성 연결 운주사 탑자리 일치
가람배치 칠성신앙 밀접한 관계


◇북두칠성의 위치와 밝기를 표현하고 있는 칠성바위


◇밤하늘 별자리의 북극성 지점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 와불.

역사스페셜은 불교가 습합한 칠성신앙이 운주사의 칠성바위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대흥사의 칠성탱화를 들었다. 탱화에 묘사된 일곱여래의 후광들의 배치가 운주사 칠성바위와 같음을 밝혀 냈다. 운주사의 탑들은 불교가 수용한 별자리 신앙의 또다른 표현으로 읽혀진 셈이다.

고려시대 것으로 유일하게 전하는 별자리 탱화에서 일등성에 해당하는 별자리 하나하나에 불상을 새겨 넣은 점도 운주사가 갖는 칠성신앙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종교학자 김일권씨는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래되는 초기부터 불교경전과 천문학이 함께 유입되며 불교와 별자리의 관계를 긴밀히 했다"며 불교가 동양천문학 전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주장했다.

창건 배경과 천불천탑의 종교적 의의 등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운주사. 문학적 소재로 화가들의 작품 배경으로 점차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미완의 사찰에 대한 의문을 밝히고자 기획된 역사스페셜은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천문학적 입장에서 도량을 분석함으로써 운주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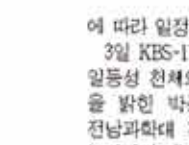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방송된 후 사학계와 천문학계 등에서는 박씨의 가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종교학적 연구보다는 천문학적 관심만으로 연구하는 것은 운주사의 신앙적 배경을 미륵신앙으로 보아 온 기존의 학설과 상당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천문학계에서는 현존하는 운주사 탑의 절반정도만 일등성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운주사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탑들이 있었다면 과연 얼마만큼 별자리와 일치할 것인가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박종철씨는 11일 천문학계에 운주사와 천체의 관련성을 연구한 이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역사스페셜이 방송된 후 관련학계의 반론 등을 고려, 보완연구를 거쳐 9월 자구과학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암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운주사 탑들은 별자리 및 별의 밝기와 연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뷰 '운주사 석탑배치' 연구 박종철씨



"운주사는 백제 천문유적"

"운주사에 있는 25기의 석탑들은 무질서 하게 배치된 것이 아니라 천문도상의 큰 별자리에 따라 일정하게 건립됐습니다."

3일 KBS-1TV '역사스페셜'을 통해 일등성 천체와 운주사 탑과의 연관성을 밝힌 박종철 성암천문대장(43). 전남과학대 겸임교수이기도 한 그는 84년부터 운주사의 와불이 북극성을 상징하고 사찰에 배치된 석탑들이 이를 중심으로 한 별자리들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연구해 왔다.

"84년 운주사를 처음 방문 했을 때 경사면이 급한곳에 탑들이 배치된 것을 보고 화두가 먼저 지더군요. 굉지가 아닌곳에 탑들이 만들어진 것은 그에 근거한 설계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씩 의심의 실타래를 풀어온 박대장은 "운주사는 석탑을 건립한 당시 사람들은 천문학적 지식에 입각해 일등성 천체의 위치에 탑을 세우도록 사전 계획한 흔적이 보인다"며 "현재 밝혀진 석탑들의 크기와 별의 광도 등과의 관계 또는 미확인 석탑들과 천문도와의 비교 연구 등 조사가 더 요구된다"고 밝혔다.

자신의 연구 결과에 확신을 한다는 박대장은 "경주의 첨성대가 신라권 천문유적이듯이 운주사는 백제권의 대표적인 천문 유적의 하나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깨달음의 소리 울려 퍼진다

불화와 성화비고 33장면 (32) 종


◇쌍계사 감로탱화(부분). 1728년.

종은 동서 고금을 통해 때와 곳을 알리는 상징으로서 공통점을 지닌다. 종소리는 시간의 매듭을 알리면서 또 공간적인 신성성을 확충하려는 암호로 표상된다. 종소리는 인간에게 성스러움을 불러일으키며 각성하게 한다고 믿어왔다. 오래전부터 종은 주술적인 힘이 있는 의기로서 기우(祈雨)나 풍작을 빌 때에 울렸다.

불교에서 종소리는 시방 무량토에 울려 퍼지기 때문에 군생(群生)들을 각성시킨다고 한다. 또 종소리를 듣고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구제를 받아 악업과 고통이 멈추어진다고 하였다. 종소리를 들으면 제행무상을 깨닫게 되고 번뇌와 사악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했으며 종을 만들어 공양함은 마귀를 항복시키고 중생의 고뇌를 없애 보리(菩提)를 성취하게 하는 기원이 깃들여 있다고 했다. 종신(鐘身)에 아름다운 문양을 새겨 불국토를 상징하기도 했다.

기독교 교회에서 종은 신을 부르는데 쓰였고 천상과 지상을 음향으로 연결하는 구실을 했다. 초기 크리스트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종소리로 응답했다고 한다. 또한 서양에서는 종이 폭풍이나 크리스트의 악마를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 파사넬로作 '성 안토니우스와 성 모자(부분)'. 1396년작. 런던국립미술관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⑮

圓覺經云 先依如來奢摩他行
원각경운 선의여래사마타행
堅持禁戒 安處徒衆 寂坐靜室
견지금계 안처도중 연좌정실
此初習也
차초습야
永嘉云 行亦禪坐亦禪
영가운 행역선좌역선
語默動靜體安然 揀此亦通四儀耳
어묵동정체안연 거차역통사의이

〈원각경〉에 '먼저 여래의 사마타행(망념을 없애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함)에 의하여 계율을 굳게 지키고 대중들 가운데서 편안히 거처하며, 고요한 방에 앉아 참선하여라' 하였으니 이는 맨 처음에 익혀야 할 일이다.

영가스님은 '다니는 것도 선이고, 앉아 있는 것도 선이며,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활동하거나 고요히 있거나 몸은 항상 편안하다' 하였으니 이 말에 의하면 역시 네 가지 거동에 통하는 것이다.

總論功力 坐尙不能息心 況行住等
총론공력 좌상불능식심 황행주등
豈能入道耶 若是用得純熟底人
기능입도야 약시용득순숙저인
千聖興來驚不起 萬般魔妖不迴顧
천승흥래경불기 만반마요불회고
豈況行住坐中 不能做功夫也
기황행주좌중 불능주공부야

통틀어 공부하는 방법을 논한다면 앉았어도 마음을 쉴 수가 없는데 하물며 다니거나 머물거나 하면서 어찌 도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공부에 익숙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일천 성인이 온다해도 놀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온갖 마귀가 덤비더라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니 어찌하여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아 있는 가운데서 공부를 하지 못하겠는가.

如人欲離恨於人 乃至行住坐臥
여인욕수한어인 내지행주좌와
飮食動用 一切時中 不能忘了
음식동용 일체시중 불능망료
欲愛樂於人 亦復如是 且憎愛
욕애낙어인 역부여시 차증애
有心中事
유심중사
尙於有心中容得 今做功夫
상어유심중용득 금주공부
是無心事 又何疑四儀中
시무심사 우하의사의중

'만약 사람이 남에게 원수를 갚고자 할 적에는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 음식을 먹거나 활동을 하거나 언제라도 (원수를) 잊지 못하며, 또 남을 사랑하는 일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듯 증오하고 사랑함은 유심(有心) 가운데의 일이로되 오히려 그 유심 가운데서 다 이룰 수 있는데 지금의 이 공부는 무심(無心)의 일이니 어찌 네 가지 거동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을 의심하겠는가. 다만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할 뿐이요, 만약 실천하고 믿기만 한다면 모든 행위 가운데서 도는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9. 진심이 있는 곳(眞心所在)

或曰息妄心而眞心現矣
혹왈식망심이진심현의
然則眞心體用 今在何處
연즉진심체용 금재하처
不常現前耶 只恐不信不爲
불상현전야 지공불신불위
若爲若信 則威儀中 道必不失也
약위약신 칙위의중 도필불실야

만약 사람이 남에게 원수를 갚고자 할 적에는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 음식을 먹거나 활동을 하거나 언제라도 (원수를) 잊지 못하며, 또 남을 사랑하는 일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듯 증오하고 사랑함은 유심(有心) 가운데의 일이로되 오히려 그 유심 가운데서 다 이룰 수 있는데 지금의 이 공부는 무심(無心)의 일이니 어찌 네 가지 거동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을 의심하겠는가. 다만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할 뿐이요, 만약 실천하고 믿기만 한다면 모든 행위 가운데서 도는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다니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선이니 다만 실천하지 않음이 두려울 뿐"

曰眞心妙體徧一切處 永嘉云
왈진심묘체변일체처 영가운
不離當處常湛然 覺卽知君不可見
불리당처상담연 멱즉지군불가견
經云 虛空性故 常不動故 如來藏中
경운 허공성고 상부동고 여래장중
無起滅故 大法眼云 處處菩提路
무기멸고 대법안운 처처보리로
頭頭功德林 此卽是體所在也
두두공덕림 차즉시체소재야

물었다. "망심을 쉬면 진심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심의 본체와 작용은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대답했다. "진심의 묘체(妙體)는 어느곳이나 두루하다. 영가스님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고요하게 있지만 찾는다면 그대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고, 경에도 '허공과 같은 성품이기 때문이며, 항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여래장(번뇌에 덮여 있는 본래의 청정한 성품)에는 일어나거나 사라짐이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또 대법안스님은 '곳곳마다 보리(菩提)의 길이요, 일마다 공덕의 숲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진심의 본체가 있는 곳을 말한 것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부처님 닮아가면서

혜관스님 〈혜관정사 주지〉



약력
- 1917년 제주도 서귀포 生
- 1940년 기림사 경림스님을 은사로 출가
- 1962~1977년 법화종 제주 종무원장 역임
- 1972년 법화종 총무원장 역임
- 제주 혜관정사 주지
- 법화종 원융학림 총재

입으로만 극락 원하지 말고 담배꽁초 하나라도 줍는 실천이 사바세계를 극락 만드는 일

나는 조금 늦은 나이인 23세에 경주 기림사에서 경림(擎林)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 전까지는 일본에 유학을 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불교를 접하게 되었지요. 어려서 일본에 갔기 때문에 '종교' 자체에 대해 아주 문외한이었습니다. 종교로 먼저 경험한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함께 고학을 하던 친구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같이 교회에 다니자고 권유를 하길래 함께 다녔지요. 처음 교회를 갔는데 '조선인 예수교 교회'라는 간판을 보고서 '조선인'이라는 말이 어찌나 반갑고 가슴이 뭉클하던지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동안 다니며 가만히 들어보니 '천당'이란 말도 하고 '지옥'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디 있는가 싶어 지도를 찾아보았지요. 그 정도로 종교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인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일본인들에게 종교가 뭘까 궁금해 물어봤더니 절에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불교는 또 어떤 종교인가 싶어 절에 따라가 보았습니다. 교회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더군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두 종교가 비교가 됐습니다.

그 후 서점에 가 불교책을 사서 틈틈히 읽어보고 한 것이 내가 불교를 아는 전부 였는데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해 집에 와보니 형님 서재에 가득 꽂혀 있는 것이 모두 불교서적이었습니다. 형님이 불교공부를 하는 것이 어찌나 반갑고 좋던지 형님에게 불교를 좀 가르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함께 절에 가자고 하면서 나를 데리고 간 곳이 서울 뚝섬 봉은사였습니다. 형님과 안면이 있는 몇몇 스님들과 함께 담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스님이 나를 보면서 "자네도 머리를 깎는 것이 좋을 사람인 듯한데 출가를 하는 것이 어떤가"하시더군요. 그 때는 그 말을 한귀로 흘려듣고 지나쳤는데 얼마후 다시 봉은사에 갔더니 그 스님께서 함께 어디를 가자고 하면서 나를 데리고 간 곳이 경주 기림사였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된 것인데 은연중에 마음속에 불심(佛心)이 자리잡고 있었던 까닭인지 별다른 반감없이 그대로 기림사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만주에 가서 3년 정도 지낸 후 다시 돌아와 제주시 하일리에 있는 중문국민학교 분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요. 곧 해방이되어 다시 절로 들어갔는데 당시 분위기는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불교혁신운동'이 한참 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만허스님, 관음사 주지를 지내던 오이화 스님, 백양사 출신 이일선 스님, 그리고 이세진 스님을 중심으로 혁신운동이 주도되고 있었지요. 당시 나는 출가한지도 얼마되지 않아 그저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였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도 해방직후 불교 실정이란 참 형편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불교라기 보다는 반 미신이었거든요.

불교혁신을 놓고 '그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스님들이 모여 토론을 했었는데, 우리 중생들 뜻으로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지요. 부처님 가르침에 '오시설(五時說)'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시란 '아함시 · 방등시 · 반야시 · 법화시 · 열반시'을 말하는데 그런 구분을 모르고 있는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었습니다. 해방직후는 말세(末世)에 들어가는 시기이니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자면 법화 · 열반시에 해당되는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위주로한 혁신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했지만 〈법화경〉 강의를 해줄 만한 사람이 제주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위봉사 최청산이라는 노장스님이 육지에서 제주도로 오시게 된거지요. 최청산 스님으로부터 〈법화경〉 강의를 듣고 법화사상이 무엇인지를 눈뜨게됐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시기상으로 맞아 떨어진 것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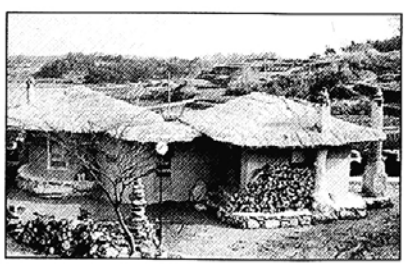
〈법화경〉 강의를 들으며 제주도내 불교혁신운동을 주도해 나가던 중에 생각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제주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육지에도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혁신단체가 있다면 알아보고 함께 공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됐지요. 당시 만허스님은 교육가로서 중문중학교 교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문교부에 출입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육지와의 공조에 대한 부분을 만허스님에게 위임하고 일을 진척시키고 있었는데 잇따라 제주도 소란사건(4 · 3항쟁을 일컬음)과 6 · 25 전쟁이 터지면서 그 일의 중심이 되던 다섯 스님이 모두 열반하시게 됐어요. 결국 그 일이 흐지부지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내 혼자 생각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만허스님의 서재를 정리 해봤지요. 만허스님이 바로 나를 불가(佛家)에 입문하게 도와주신 친형님이셨습니다.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 마침 육지에서 연락이 되고 있던 사찰의 주소가 나오더군요. 주소를 들고 무작정 찾아갔는데 지금은 폐사가 됐지만 서울 돈암동의 '무량사'라는 절이었습니다. 그 사찰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뜻을 함께 하는 10여명의 스님을 모은 후 법화종 도첩을 받아오게 됐는데 그것이 제주도 법화종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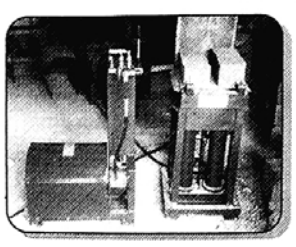
제주 불교의 혁신을 위해서 내부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적인 특성상 불교에 미신적인 요소가 크게 자리잡고 있었는데 정법신앙을 하게끔 가르쳤습니다. 예를들어 주술처럼 '정구업진언 수리수리마하수리 수수리사바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입으로만 우물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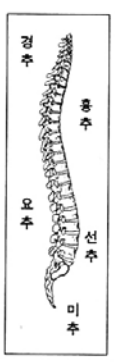
활법 자격취득.창업.부업

◆ 특허컨등록획득 ◆
1. 활법을 이용한 척추지압업
2. 활법을 이용한 체육교정업
3. 활법을 이용한 자세교정업
4. 활법을 이용한 자연건강업
5. 활법을 이용한 체육교육업
6. 활법을 이용한 기공업
7. 활법원 경영업
8. 활법기술지도업
9. 활법원 체인점업

◆ 교 육 안 내 ◆
교육기간 : 4박5일(매주월요일 오후 2시 시작, 금요일 정오 수료식), 속성반 : 능력에 따라 단축 및 연장 가능
10주 코스반(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준비물 : 1. 교육비 및 회비와 사진 10매

◆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활법원 및 발관리센타를 운영할 수 있슴. 2. 교육수료자는 '세계공인활법사 5단증,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자격증, 운동회복사 자격증, 기공사 자격증, 발관리사 자격증과 소자격증'을 부여

스님 · 포교원운영자 · 물리치료사 · 재여침구사 · 목사 · 대체의학연구자 · 발관리사 · 피부미용관리자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간성피로, 관두통, 뒷골가름,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담뇌,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미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 교 육 내 용 ◆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태국, 일본식)
4. 카이로프락틱교육(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보건복지부 법인
사단법인 건강생활복지협회
특허등록 제49831호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 0571)855-6461/859-4156, 휴 : 011)522-1122
인터넷 : http://www.hwalbup.or.kr

황토 집(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석굴암식 돔형 황토토굴과 피라미드의 기가생동하는 신비한효능

황토집(토굴)

원하시는 평수대로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현장 방문 환영!! 황토집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 017)585-6045/ 017)566-9969/ 017)582-7116

큰스님 수행한담

자기 부처 드러내세요”

나는 너의 허물을 보고 너는 나의 허물을 보고 서로 고쳐가는 것이 도반



◇1977년 제주 원천사에 49일 천도기도를 회향하며 신도들과 기념촬영. 사진 앞줄 가운데가 혜관 스님.

음이 관세음보살을 염해야 하고 정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해야한다고 가르친것입니다.

'일승법(一乘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부처님의 말씀, 그 하나로 돌아가도록 되어있다는 뜻이지요. 예전에는 죽어서 극락세계에 가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절이 있었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뚜렷하던 시대인데 그런 때에는 아미타불을 염하면 죽어 극락세계에 간다고 말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부처님의 바른 사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바른 사상은 이 사바세계를 바로 극락세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예요. 그것을 '적광정토(寂光淨土)'라고 합니다. 극락정토 세계는 네 가지가 있는데 최고의 정토가 적광정토, 즉 사바세계를 말하지요. 사바세계 사람들이 환생을 하고 다시 환생을 하면서 닦아나가 극락세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닦음'이란 자기 자신만을 닦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회도 닦는 것을 뜻합니다. 말이나 글로만 장황하게 극락세계와 사바세계를 논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길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하나라도 줍는 실천이 있어야 해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이지 입으로만 극락세계에 가기를 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기심만을 더욱 조장할 뿐이예요. 한국불교가 16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정신이 살아있지 않는 한 참으로 자랑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단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지난 연말 조계종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선풍(禪風)이 불어야할 조계(曹溪)의 가람(伽藍)에 권풍(權風)이 불었지요. 탁마상성(琢磨相成)의 도반들이라고 하여, 나는 너의 잘못을 보면서 나의 허물을 고쳐가고, 너는 나의 허물을 보면서 너의 잘못을 고쳐가며 서로 정진해 나가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법인데 세력도반들이 되고 말았더군요. 화두가 들어차 있어야 할 마음에 이기심이 꽉 들어차 있으니 도(道)가 터져야할 조계의 가람에 싸움이 터진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5백년씩 나누어 2천5백년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좀더 설명을 하자면 부처님 입멸 후 5백년 동안은 '해탈견고(解脫堅固)'의 시기지요. 부처님 앞에 나아가 법문을 듣고 지시를 받으면 곧 해탈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다음 5백년은 '선정견고(禪定堅固)'인데 해탈하는 사람은 없지만 도를 착실하게 닦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 후 오백년은 '다문견고(多聞堅固)'라 하여 아무리 닦아도 해탈을 못하니 이 경전도 찾아보고 저 경전도 찾아보지만 다문박식하게 많이 아는 것에 그치는 때예요. 그러니 그 다음 5백년은 '탑사견고(塔事堅固)'입니다. 탑을 많이 쌓고 시주를 많이 하면 공덕을 짓는다 하여 그 일에만 매달립니다. 마지막 5백년은 '투쟁견고(鬪爭堅固)'이니 싸움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니 이기심만 가득차서 싸움이 잦아집니다. 도를 닦아야 할 시간에 싸움을 했으니 언제 도를 이루겠습니까. 말로는 '무소유'라고 하지만 말이 골 도는 아니예요. 이러한 '투쟁견고'의 시기에 무엇을 갖고 어떻게 부처님의 길을 찾아갈 것인가 한다면 그것은 곧 '일승법'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절에 가면 불공만 하면 다 된다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불공만 하면 정말 성불을 할 수 있을까요. 불교만 믿으면 복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불교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염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예요. 모르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름 들자면 아버니가 한 손님을 데리고 와서는 '이 분은 훌륭한 분이다'하고 말하니 그 자식들이 아버지는 무시하고 그 손님만을 받들어 모시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지요.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외우면 관세음보살의 명호가 내 지혜 자리,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관세음보살은 없는 것이예요. 또 예불을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예불을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모셔진 부처님에게 예불하는 것이지요. 예불을 받는 이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돌이나 흙으로 만든 불상은 돌이나 흙이지 진짜 부처나 관세음보살은 아니니까요. 물론 모습을 대용으로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 모습을 진짜로 알고 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내 마음속에 모셔진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와 나는 하나다란 말이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둘로 나누자면 한 가지는 '수타의설(隨他意說)'이고 또 한 가지는 '수자의설(隨自意說)'입니다. 수타의설은 상대를 봐가면서 그 근기에 맞게 방편적으로 설법한 것을 말하고, 수자의설은 깨달음을 그대로 부처님 자신을 설하신 것이지요. 여러 경전 가운데 수자의설인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부처의 마음은 이러한 것이고, 부처의 세계는 이러한 것이며, 부처의 정신은 이러한 것이라고 설하는 것입니다. 곧 '일승법'을 말하지요. 우리는 부처님의 행동과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정신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부이기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힘써 행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날의 생활에 있어서 단 한시간 단 한순간만이라도 참으로 이해득실을 떠나서 진심으로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접촉된 것이 되며 부처님에 가까운 마음이 된 때예요. 그러한 때가 단 한마디의 말, 한번의 동작이라도 남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커다란 감화를 주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믿고, 그것을 오래오래 계속해서 가지기만 하면 차차 입으로 하는 말이나 몸으로 행하는 행동이나 다 부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내가 곧 부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가령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관세음보살이 나를 도와줄거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내가 곧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실수를 하면 중생들이 다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곧 내 정신의 덕을 쌓아가는 길이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타력심이 아니라 자력심을 길러야 합니다. 불교는 부처를 닮아가면서 내 자력심을 기르는 것이 근본이지요. 보살을 부르고 싶다면 입으로만 보살을 부를 것이 아니라 모든 보살님의 모범을 배워야 해요. 보살의 언어와 보살의 자비마음과 보살의 행동과 생활을 본받아 보살이 되어가겠다는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살의 모습을 닮는 그 만큼 이 사회가 밝아지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한사람 한사람 보살의 언행 본 받으면 이 사회는 그만큼 맑고 향기롭게 돼요”

나의 수행일기



구윤회 〈성보사 포교원장〉

목탁소리 들으면 두통 씻은듯 걷혀
지장경 인연 참회 염불 포교 20년

세상속의 행복이 진실인 줄 알았다. 일에 파묻혀 정신없이 살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어 포교의 길에 나선 것은 건강때문이었다.

사업확장에 따른 과도한 업무는 끝내 만성두통과 불면증을 가져왔다. 갖가지로 얽혀 있는 인연으로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떨어져 자유로워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았다. 결국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 보겠다기 보다는 그저 머리를 식히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절을 찾기로 했다. 친구의 소개로 찾아간 곳은 충북에 있는 작은 암자였다. 연세가 꽤 드신 비구스님이 주지로 계셨는데 방을 한칸 내주셨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아프던 두통이 목탁소리만 들으면 구름 걷히듯 싹 사라지는 것이었다. 기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겠지 여겼지만 거짓말처럼 목탁소리와 함께 머리가 말끔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졌다.



이를 본 스님께서 “거사님은 부처님과 인연이 여느 사람과 다른가 봅니다” 면서 책 한권을 주셨는데 〈지장경〉이라고 쓰여 있었다. 불경이 거의가 그렇듯이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뜻이 잘 와 닿지 않는다. 하지만 읽어 가면서 한가지 큰 뜻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지장보살님은 자비가 하염없으셔서 지옥을 아예 없애는 것을 원을 삼고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까지 모두 성불케 하는 분이라는 것과 누구든지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예배하면 크고 작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제가 염부제의 중생들을 살펴보니 발 움직이고 생각을 일으킴이 모두 죄 아님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업은 마치 진흙밭을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것 같아서 갈수록 점점 피곤해지며 더욱 무거워져서 발이 깊숙히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장경의 이 귀절을 읽는 순간 가슴에 깊이 사무쳤고 마침내 지장보살님을 나의 원불(願佛)로 삼게 되었다. 또한 이 말씀은 당시 내가 걷고 있는 세상과도 흡사하다고 생각되었다. 꼭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성취해 보겠다고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업(業)이고 그 결과로 몸과 마음의 병이 생겼다는 것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 인연으로해서 나는 부처님께 크게 귀의하는 마음을 내었고 언제나 지장보살을 마음으로 염(念)하면서 나 자신을 다스려 나갔다. 그뒤로 몸과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더 확실히 공부해 보려고 포교과정 불교대학에 들어갔다. 내게 있어서 이 과정은 삶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그렇게도 추구했던 세간의 가치가 부처님의 진리 앞에서는 그야말로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부터라도 심출가(心出家)를 해서 지장보살의 대원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각오가 서게 되었다. 돌아보면 세상업을 정돈하고 지장보살의 원행을 닦고자 성보사포교원을 설립한지 20여년이 지났다. 성보사 포교원은 ‘재가불자수행지장도량’이다. 그러나 이 일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찾아오는 신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책임지고 있는 지장보살의 시자로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것은 나의 수행력이다.

끊임없는 참회기도와 지장보살 염불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 그리고 한사람이라도 지장보살님께 귀의케하여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열심이 포교를 해야겠다는 것이 나의 평생원이다.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들이 언젠가는 성취해야 될 마음속의 부처다. 지장보살님이 세운 원을 내가 세우고 수행하면 언젠가는 나 자신이 스스로 지장보살이 되는 것이다.

만약 나 자신이 불교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되었을까. 글내 생사의 진흙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실·기·위·주
說法방법강의

성격개조 · 교수기법 · 실기훈련
說法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성격이 좋고 화술이 능해야 한다.
○이론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격개조, 가치관의 체계확립
○자료의 재구성 능력확보
○강의, 강연, 연설, 주례사, 회의진행
○음성, 태도, 수사 - 기타 설법에 필요한 모든 것
■ 연 수 안 내 ■
▶ 기 간 : 2개월 과정
▶ 개 강 : 수시 접수
▶ 모집인원 : 10평내외
▶ 장 소 : 설법연수원 강의실
▶ 지도교수 : 金 哲 會 박사
♣문의 및 신청♣
☎ 02)737-1567 / 725-1357
FAX (02)737-8725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와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難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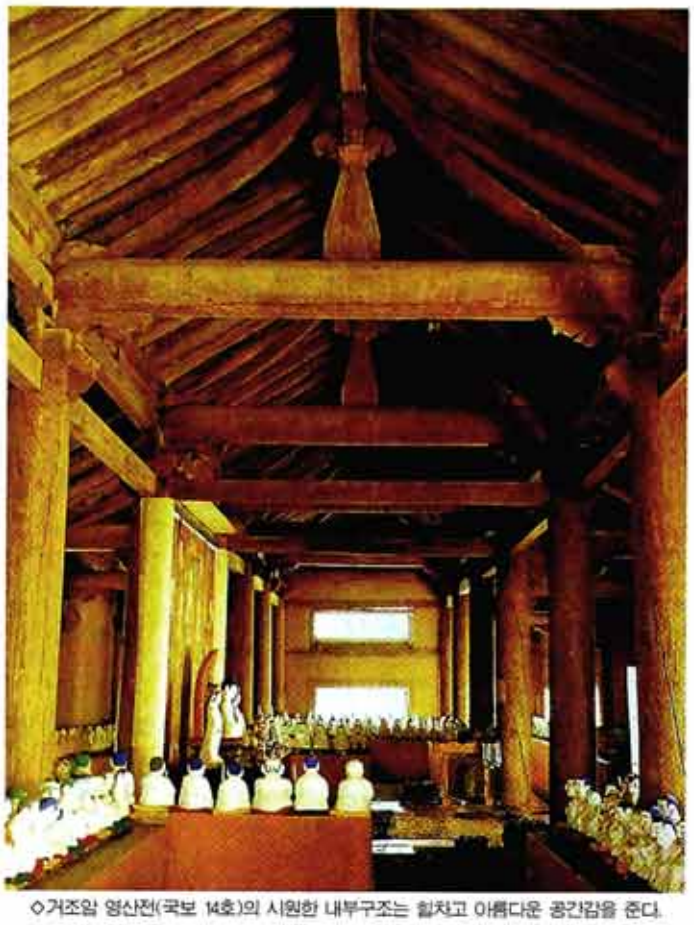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2)883-7400(代)
· 영업부 : 02)877-6090
· FAX : 02)876-3378

초등·중졸·고졸(4·5·8월 실시)
검정고시

▶좋은 교재·질높은 교육
▶체계적인 학습관리 시스템
검정고시에 대한 가슴 흐뭇한 숨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분/비밀보장)
변경사항
고입 · 사회(국사 포함)
대입 · 공통사회(정치, 경제, 한국지리 통합)
· 공통과학(과학 I, 과학 II 통합)

(등록시 제공되는 유명검정고시 강사진이 집필하고 본원이 제작한 최신교재)
한글반 읽고, 쓰고, 외우고
중검반 속성, 초등학교 과정
고검반 속성 중학교 과정
대검반 속성, 고등학교 과정
시험안내
· 주관 : 각시도 교육위원회
· 40점 이상 평균 60점이상 합격 (과목합격 제도)
· 100%객관식(4개중 1개 고르기)
· 정규학교 졸업과 동등인정 상급학교 진학가능
지업한 가격으로 질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
한국직업교육원
전국무료전화 ☎ 080)010-4100

가식없이 트인 구조역학



◇거조암 영산전(국보 14호)의 시원한 내부구조는 힘차고 아름다운 공간감을 준다.

가람의 장면들 ⑤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단청도 안하고 뼈대 노출
고려 건축 역동성 한눈에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에 있는 은해사는 이 일대 수십개 사찰들의 본사이며, 팔공산 일대에 백흥암 등 많은 암자를 거느린 큰 절이기도 하다. 청통면 신원동에 있는 거조암 역시 은해사에 속한 암자지만 직선 거리가 4km 이상 떨어지고 입구도 아예 본절과는 달리 신령면에서 들어간다. 인근에도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영산전을 비롯한 건물도 3동밖에 없는 작고 한적한 절이다. 그러나 영산전은 고려말기, 적어도 조선초기의 건물로서 우리나라 목조건물로는 매우 희귀한 모습을 보이는 귀중한 보물이다. 이 건물이 국보 14호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도 많다.

한국 가람건축들은 내부공간보다도 외부공간이 더 짜임새있고 공간감있다고 인식돼 왔다. 건물들의 규모가 작고 하나의 방으로 통튄 단순한 구조여서 실내에는 별다른 공간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거조암 영산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이 절에는 커다란 영산전 건물만이 부각되어 다른 건물 사이의 마당이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영산전 안의 거대하고 높고 시원한 내부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내부의 중앙 한칸에 작은 불단을 마련해 석가 삼존을 모시고, 주변에는 작고 소박한 500 나한상들을 모셔 두었다. 내부공간에 별다른 장식은 없다. 배흘림된 나무 기둥들과 서까래가 노출된 지붕틀, 그리고 기둥들과 지붕틀을 연결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나무부재들 뿐으로 모두가 구조적인 부분들이다. 일절 불필요한 부재들은 없고, 단청도 되지 않은, 마치 뼈대들만 노출된 생명체의 골격을 보는 것 같다. 단순한 듯하면서도 힘차고 박진감있는 아름다운 공간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건축에서는 구조미, 뼈대의 아름다움이라 부른다. 역학적으로 꼭 필요한 부재들로만 이루어진, 기능적이고 수학적인 구조. 그러나 구조 자체를 노출시킴으로써 미학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경우를 알리는 말이다. 구조미를 이루려면 매우 치밀한 결구기술이 요구된다. 구조 역학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과 여러 개의 부재들을 섬세하게 끼맞추는 정성이 있어야 된다. 영산전의 내부공간이 주는 감동은 일체 가식없이 솔직하게 구조들을 노출시킨데서 기인한다. 이런 면에서 구조미는 윤리적인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고려시대의 건축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조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를 마치 커다란 가구를 짜듯이 치밀하게 조립한다.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수덕사 대웅전에서 공예적인 아름다움이 솟아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엉성한 지붕틀의 구조를 감추기 위해 천장을 씌우고, 화려하고 복잡한 단청문양들로 내부를 감싸는 조선시대의 불전들과는 발상이 다른 공간들이었다. 단순하고 소박한 듯 하지만, 고려 건축들은 적절한 비례와 섬세한 스케일로, 그리고 윤리적이고 역동적인 구조적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건강한 건축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를 거조암 영산전에서 본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건물로서 현존하는 것은 위 세 건물 예와, 성불사 응진전, 강릉 객사문 정도로 모두 꼽아야 열 손가락을 넘지 못한다. 거조암 영산전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유구일 뿐 아니라, 형태적으로 다른 고려시대 건물과 차이가 난다. 이 건물은 7칸의 기다란 정면을 가졌지만 측면도 3칸으로 두꺼워 두툼한 외관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넓고 높은 내부공간이 특색이다. 정면에는 중앙칸에만 두짝은 나무 판장문이 달렸고, 다른 칸들에는 가로로 길게 고정된 분박이 살창을 달았다. 정면 모두에 창호지 문들을 단 일반적인 불전 건물들과는 전혀 다른 외형이다.

원래는 창고 또는 강당건물이었던 것이 사찰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불전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어쨌든 귀중한 고려시대 건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건축 공부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필요성 공감"…문의 쇄도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스님 군법사 직장인등 책보시·헌금 밝혀
본사 불서 목록작성·관리SW 개발 진행

본지가 지난 3월부터 펼치고 있는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대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캠페인에 동참할 뜻을 밝힌 계층도 스님에서부터 직장인, 청년, 군법사 등까지 다양하다. 그동안 사찰에 도서실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누구도 선뜻 추진하지 못해 누적돼 있던 '도서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반응으로 분석된다.

동참자들의 문의 내용은 책이나 책값을 보시하거나, 사찰도서실 개설을 희망하는 것. 울산 소원성취사 주지 선무스님은 "현재 4천여권의 도서가 있으나 분류 등의 방법을 몰라 방치되고 있다. 도서실이 개설될 경우 불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도서실 개설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 김성대씨와 경기도 부천 유은재씨를 비롯 개인별로도 사찰도서실이 개설될 경우 적극 돕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주로 '가정의 책을 사찰로 보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적으로 사찰에 도서를 보내겠다는 발원은 책을 통해 불교의 미래를 밝혀 보려는 '작은 등대'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국의 사찰과 단체 불자들의 도서실 개설을 희망하고 도서 보시를 하겠다는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본사는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급가동시키고 있다.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사찰도서관 필수 불서목록을 작성하는 일. 경전류, 입문류 등 3천여권의 필수 불서목록을 작성중에 있으며 5월 중순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사 전략정보실에서는 완활한 도서관리를 위한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6월 중에 마무리 된다.

본사는 빠른 시일내로 사찰도서관 필수 불서목록과 도서관리프로그램 개발 등을 완료해 희망사찰의 현장에서 서가 꾸미기, 장서비치, 관리요령 등의 사업을 펼쳐 사찰도서관이 곧 신행과 포교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본사 전략정보실은 원활한 도서관리를 위해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각 종단 '도서실 만들자' 동참
태고·천태·관음종 등 전국사찰에 공문
진각종 통리원 문고 계획…심인당 125곳도

이번 캠페인에 대해 교계 주요 종단들도 그 취지에 공감, 각 교구 및 사찰들에 대해 캠페인 동참을 촉구하고 나설 계획이다.

태고종은 이달 말까지 전국 19개 교구에 공문을 보내고 이 기회에 사찰도서실을 만들어 새로운 신행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공문발송에 앞서 종단기관지인 '한국불교'를 통해 이번 캠페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정지상 총무국장은 "현대불교신문이 벌이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새로운 신행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천태종도 곧 전국 각 사찰에 공문을 발송,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진각종 역시 이달 말까지 6개교구 1백25개 심인당에 공문을 발송하고, 캠페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통리원은 이번 기회에 통리원에 문고를 설치해, 지역포교와 종단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검토에 나섰다. 문화사회국장 원명정사는 "책읽는 풍토야말로 21세기 불교의 디딤돌인만큼 캠페인을 계기로 우리 종단도 불서읽기에 대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음종은 이달 20일까지 1차로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신도들에게 이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읽은불서·새책 한권씩 절로 보내자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해 동안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1회 기획기사를 통해 도서관과 불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 만들기·운영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아울러 도서실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우리절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펼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읽은 불서 또는 새로나온 불서 한권씩을 더하는 절에 법공양 한다면 많은 절들이 도서실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주지스님을 비롯 교계인사, 신행단체, 불자 여러분이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참안내: ①도서실 만들기에 뜻이 있는 주지스님들은 본사 캠페인팀과 상담해 주십시오.
②불자 여러분은 소속 사찰에 읽은 책 또는 새책을 보내거나 본사 캠페인팀과 법공양을 의논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02)737-8881 출판부장
후원: 조계종 포교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협찬: 교계 출판사(사찰도서실 법공양 불서 30% 할인)

현대불교신문사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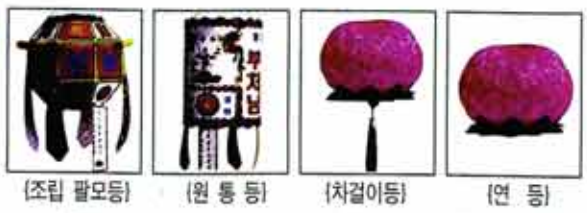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연꽃잎 제조 특허 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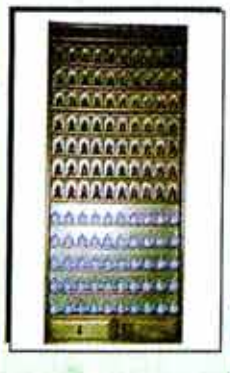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조립 팔모등) (원 통 등) (차걸이등) (연 등)

◐ T자형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인 등

※각종 인등도 주문제작합니다.

※천불전 조성합니다.

■찬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 울) 용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본사(팔공산)
동화사(팔공산) 갓바위(팔공산) 약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운주사(화순군) 그외다수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0347)792-6288, 794-4055/FAX 0347)792-628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찬 덕 연 등 제 작 사 대표 김 기 찬 합장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0m×450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할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돌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꼭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가 있기에 우주도 있고 세상도 있고…

오늘 법당에 올라오다 보니 마당에 죽 서 계시면서 비를 맞고 있는 걸 보니까 내 가슴에 비가 내립디다. 이 모두 우리가 과거세부터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이니 여기서 조금도 실패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꼭 다시 한자리 합시다.

마음공부 한다고 이렇게 처음 온 분도 있고 중간에 계신 분도 있고 또 먼저 와 아주 많이 증득해서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 차원이라는 것은 천차만별로 돼 있습니다. 아직 밑에서 좇아오는 분들은 내가 항상 말했듯이 한군데다 몰두해서 잘못된 거, 잘 된 거를 다 거기 놓으라고 일렀으니 그대로만 하시고, 또 공부를 더 해나가서 야, 모두가 둘이 아니구나 하는 이름없는 이름이여' 여기에서처럼 둘이 아닌 도리를 확실히 알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꾸 배우면서 지혜가 넓어져야 하고, 그래서 둘이 아님을 알아야 영계성이나 유전성 이런 모든 것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흉가라고 남들이 다 꺼려하는 집을 싸게 사서 들었습니다. 그건 왜냐? 이 도리를 믿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싸게 사가지고 들어가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아니까 그냥 삼켜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영에다 영을 넣으니까 영이더라, 그대로 수만 개를 영에다 집어넣어도 둘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그렇지만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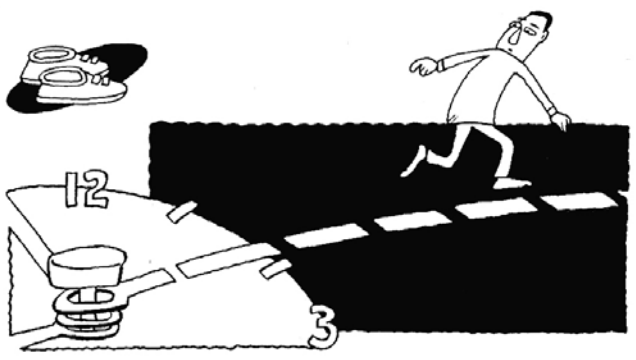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가 공해 없으니 함이 없이 하고
죽은사람 산사람 둘아닌 도리알아
나와 남이 화해 나투는걸 알아야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세상 모두가, 우주 삼라만상이 다 나로부터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모두가 없는 거니까 나로부터 공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공을 아신다면 말입니다.

내가 오늘 부채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첫번째에 '내가 죽은 이름없는 이름이여' 이랬습니다. '내가 죽은 이름없는 이름이여'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바로 내가 공이라는 걸 안 것입니다. 내가 공했다는 걸 알고 자기가 그냥 함이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이름없는 이름이여' 이랬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근접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어도, 나를 발견했어도, 수억겁을 거쳐나오면서 그 모든 악업이나 선업 즉 말하자면 의심과 착과 욕심 그런 것이 모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이름없는 이름이여' 이랬습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모두가 둘이 아님을 알아야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와 남이 두루 같이 죽은 사람도 마음이 있으니까 전부 결부되는 겁니다.

그러니 공용으로 행하라. 그냥 행하라는 게 아니라 공용으로 행하라 이런 거죠. 이게 두 번째의 둘이 아닌 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둘이 아니게 하려면 그 습관과 관습, 미움과 이쁨, 착과 욕심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가능한 거죠. 닥치는 대로 놓으면은 이게 둘이 아닌 게 나오죠. 거기다 놓고 가다보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남이 두루 나투는 이름없는 이름이여' 이랬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게 나툰다 이겁니다. 같이 더불어. 나툰다는 것은 우리가 화해서 변화하는 걸 말합니다. 화해서 변화해서 내가 몸도 바꾸어서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 절충하는 겁니다. 맞게 응하는 겁니다. 응해서 즉 말하자면 공용으로 공식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여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네 번째는 '해산붕은 화산 터져 두루불이 진동하여 이름없는 이름이여' 했습니다. 그 이름없는 이름이니 그대로 여여하더라, 이 고비를 다 넘어서 두루 그대로 여여하더라 이겁니다.

여지껏 여러분들한테 주인공에 놓아라 놓아라 하는 소리를 헤아릴 수 없이 했을 겁니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오직 내가 있기 때문에 나 한군데서 모두가 나가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군데서 모든 게 나갑니다. 우주도 있고 세상도 있고 과거·현재·미래도 있고 생사도 있고 말입니다. 이 모두가 전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알았으니 말입니다.

생명의 근본은 불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와지고 좀 배우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대로 교예요, 마음이 넓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니 불교라는 게 뭐 그렇게 따로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리가 바로 불교란 말입니다 진리 자체가요.

그러면 이 공이라는 자체는 뭐냐. 내가 물을 마셔도 마신 사이가 없다 이런 겁니다. 고정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만나거나 가고 오거나 모든 것이 고정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정된 게 없다는 것을 알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써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하게 마음으로서 결정짓는다면 우리가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자에 나는 많은 죄를 졌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지도 마세요. 죄가 있든 없든 다 불태워 버리는 작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악도 놓고 선도 놓고 긴 것도 놓고 짧은 것도 놓아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솟아 나온다. 자기 참자기가 솟아 나온다. 그러면 그대로 여여하게 삶을 살 수 있다. 그럼으로써 모두가 여여하게 살 수 있게끔 이끌어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무조건 주는 것이 보살의 행이요 무조건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너는 잘했으니까, 너는 못 했으니까 하고 이유를 따지는 게 부처님의 법이 아닙니다. 너는 참 진실하게 잘하고 간다 이렇게들 말들 하죠. 그러나 진실하게 잘하고 간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죠. 평등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 진실하게 잘 해나간다 하면 또 못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있다 없다'가 없다 이겁니다. '있다 없다'가 없다. '있다 없다'를 나눈다면 법정에서나 '있다 없다'를 논의하지 이 부처님 법에서는 그냥 둥글게 여여하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씀씀이를 쓸 때 좀 더 너그럽고 지혜롭게 의리와 도리를 가지고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도 자비, 아니 그건 모두가 이름이니까요. 이름 없는 그 진실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면…, 이런 과정이 없이는 진짜 부처가 될 수 없거든요.

'내가 죽은 이름없는 이름이여' 이랬던 건 나부터 죽어야 모두가 둘 아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았다고 하고 내가 있다고 하고, 자부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둘 아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렇게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누가 왔으면 아무 생각없이 그냥 '어서 와!'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얘기하고 갔어요. 그냥 만나서 얘기했을 뿐이지 뭐 거기에 있습니까. 또 그것이 바람처럼 달아 나갔어요. 또 왔어요, 또 만나고 또 보고 또 듣고, 남편 만나고 자식 만나고, 부인 만나고 자식 만나고 형제 만나고 이래도 그냥 만났을 뿐이지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또 뒤에 생각이 나면 또 거기다 놓으시란 말입니다. 놓고 그냥 하면은 함이 없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죄나 업이나 이런 것도 다 없다 이 겁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 가운데서 여여하게 그대로 삶을 정말 통쾌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했던 말 자꾸 해서 듣기 싫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노승이 공양할 시간도 안되고 종도 안 쳤는데 바리떼를 들고 나와서 어정어정 거린다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스님의 제자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노승이 시간도 안되고 종도 안 내렸는데 바리떼를 들고 나온 것은 그 제자가 아는 것만큼 깨뜨려주려고 일부러 불발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냥 '아, 시간도 안되고 종도 안 내렸는데 왜 나와서 어정거리시냐.' 고 이러고 한마디 하니까, '또 글렀구나.' 이러곤 들어간 거죠. 들어가시는 걸 보고서 '저 스님은 말후구(末後句)를 몰라.' 말후구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고 빈정거린다는 거죠. 그분은 말후구까지 박살을 내주려고 내려왔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에 참 말을 하지 않고도 대답할 수 있는 거지만 어른이시고 또 그 상황을 봐서는 꼭 이 대답이라도 해드려야만 그건 좀 벗어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는 시간도 없고 가는 시간도 없는데 시장하시면 잡수셔야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글쎄, 그런 지혜도 없이 큰스님 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큰스님을 괜히 고민을 하게 만들고 '아이구, 내가 괜히 일찍 내려가서 그랬구나. 아직 익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걸 마무리를 하나?' 하고 오히려 그 분이 바보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보가 된 분이 아니죠. 모르는 상대방들이 바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또 어느 제자가 귓속에다 대고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하니까 '그게 좋겠구나.'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지 않습니까. 생략해서 말하자면 웃으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얘기죠, 웃음소리로써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동적인 컴퓨터 얘길 맨날 하죠. 과거에 입력된 것이 자

☞ 16면으로 계속

"발자국 뗀사이 없듯 집착하지 마세요 고정됨 없는줄 알면 그대로 실행해야"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12)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듯이…

닥치는 경계가 업보냐 아니냐 하는 문제보다는 거기서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딪혀 오는 모든 것을 나를 일깨워 주기 위한 스승으로 알아 감사하게 생각하며 송두리째 놓으라 하는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자기가 한 결과이므로 누구를 탓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몰락 놓아 버려라. 그래야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 돌릴 줄 알아야 한다.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괴로움과 장애, 이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본래 자기가 지어 내려온 과보라 생각하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욕하지 말고, 그리고 남에게 미루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려서 자기 스스로 나의 공에 놓을 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 과보, 인과, 유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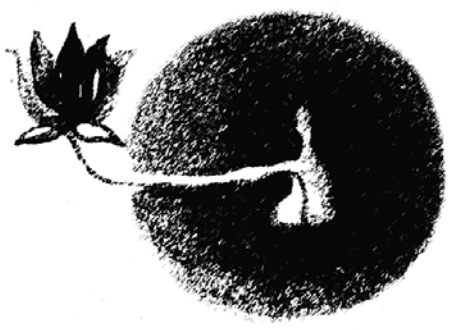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는 것이니 모든 경계를 너그럽게 모두 내 탓으로 돌려서 놓고 간다면 바로 내 속에서도 중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좋아가게 되므로 그대로 천백억 화신으로 나툰다.

〈그 많은 보살들이 용도에 따라서 판세음이 되었다가, 지장이 되었다가, 산신이 되었다가, 지신이 되었다가 의사가 되었다가 하면서 안팎으로 고정되지 않게 다 조절하고, 다치리하면서 너그럽게 순환을 하게 된다. 그러니 유전성·업보·지옥고·팔자·운명 따위가 다 무너지고 만다.〉

내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것, 나쁜 것이 내 앞에 닥친다. 그러므로 누구를, 무엇을 원망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 설사 남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내 탓으로 돌리면서 상대와 나의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생각 돌려놓아야 한다. 남이 내게 나쁜 짓을 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부족할 때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한다. 또 남이 나를 못살게 괴롭혔다 해도 나로 인해 그에게 수고를 끼쳤으니 오히려 미안한 일이요, 그로써 내 공부가 익어 가니 감사할 일이다. 그렇지 못하고 상대가 나를 괴롭힐 것이다, 괴롭혔다, 나를 속였다. 내게 해를 가했다는 따위로 생각한다면 설사 공부할 마음을 내었더라도 모두 허사가 된다. 고로 이 공부는 첫째도 나로부터, 둘째도 나로부터, 셋째도 나로부터, 그렇게 귀결지어 나가야 한다.

꿈이 생시요 생시가 꿈이다. '꿈은 꿈이고 생시는 생시다.' 라고만 안다면 깊은 곳을 알지 못한다. 꿈과 생시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경계를 둘로 보지 않아 끄달리지 않을 만큼 되어야 한다. 꿈이 꿈인 줄 알면 놀아나지 않듯이 번뇌가 꿈인 줄 밝히 아는 사람은 번뇌에 속지 않는다.

대상을 높게 볼 것도 없고 낮게 볼 것도 없다. 훌륭하다 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 높다 해서 높은 게 아니며, 낮다 해서 낮은 게 아니니 평등하게 보라. 대상을 내 몸과 같이 보라. 그것이 불심이다. 부처님이 지금 내앞에 계신다 하더라도 높이 보지도 말 것이며 개미 새끼 한 마리, 풀 한 포기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벌레를 보고 징그럽다 하고, 똥을 보고 더럽다 하지만 그것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를 보고 어떻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형상, 그 마음이 둘이 아니니 주인공 자리에 계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산 위에 올라서서 마음을 내려다보라. 그러면 크다 작다의 구별에 앞서서 평평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생활에서도 그 이치를 활용해 보라. 모든 경계의 높고 낮음, 좋고 싫음의 차이가 달라 보일 것이다. 나아가 모든 경계를 텅 빈 마음으로 대해 보라. 빈 배처럼 되어 보라.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내세울 '나'가 없기에 부딪힐 것도 고도 없게 될 것이다. 빈 배와 같은 자유인이 되라.

수행 중에는 특히 안으로부터 많은 경계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할 때에 그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놓아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 그 경계가 그대로 마가 되는 것이니 바로 중생심 가운데 미묘하게 숨어 있는 '좋은 것을 좋아하는 마음'의 유혹인 것이다. 그러한 유혹은 아주 은밀한 만족감을 낳게 되는 바, 그 마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나 좋은 경계든 싫은 경계든 집착하는 것은 바로 마에 사로잡힘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기르시기 위해 마구니로 나투시기도 한다. 의심하여 속지 말라. 마구니로 보이고 악인으로 보일 때는 "이것은 부처님의 나투심이다. 부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몸 빌고 손 빌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라. 부처님께서는 법계에 두루하며 찰나에 나고 드심이 쉴 사이 없으니 내게 닥치는 일체의 경계도 부처님의 나고 드심이라 나를 다지려 함이다. 그러기에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말없는 풀 한 포기라도 나를 주장자로 내리치는 스승이라 하는 것이다.

누가 꾸지람을 한다든지 마구 욕을 해댈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로가 다 부처라서 서로서로 가르치기 위해 부처님이 상대방으로 화하여 하는 일인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처럼 한순간에 쉴 사이 없이 나고 드시니 법계에 두루하신 것이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듯이 경계가 있음으로써 진화 발전할 수 있느니 경계는 나를 수행케 하는 힘이다.

일체를 둘로 보지 말라. 꿈이든 생시든 환상이든, 부처가 나오든 귀신이 나오든 일체를 둘로 보지 않아야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항복을 받을 수 있다. 일체를 나로 보게 되면 모든 경계에서 놓여 난다. 일체의 움직임, 일체의 모습을 다 나라고 보아 내게 수렴이 될 때에 무심이 되고 둘러서지 않게 된다.

협찬 : 김 덕 기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악도 선도 긴것도 짧은것도 놓으세요"

☞ 15면에서 계속

꾸자꾸 현실에 놓으니까 과거에 입력된 건 자꾸 없어지고 새로 입력된 게 풀려 나온다구요. 즉 자기가 지어놓은 나쁜 거 이런 것이 모두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성급하게 과거에 진 모든 업보를 한번만 관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쉬운 것도 있죠.

그래서 늦게 된다 금방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건 자기 할 탓이니까요. 자기 지혜에 달려있고 요량에 달려 있어요. 공용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냥 자기가 현실에 사는 것처럼 산다고 하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는 그대로 공용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그대로 공식하고 있구요. 경전에서는 원식이라고 합디다만은 그냥 공식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먹는 것만 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나오는 모든 걸 거기다 집어넣는 것도 공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든지 대처를 하고 어떤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데서 나를 친다 하더라도 대치할 수 있고, 보이는 데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래도 대치할 수 있고 모든 걸 자기가 여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딴 이름은 믿고 딴 형상은 믿으면서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시키고 형성시켜서 나온 진짜 자기는 못 믿습니까. 진짜 장본인을 말입니다. 움죽거리지 않는 주장자를 싸고 있는 영혼, 자기 영혼, 그 영혼이 없으면 불성은 그대로 있지만 태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그 영혼이 구제를 받아야, 구제를 받는다는 건 그렇게 자꾸 해야 영혼과 불성이 둘이 아니게 되면서 이게 그냥 합락이 되는 거예요. 즉 우주가 합락이 되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컴퓨터 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즉지 않았을 거예요. 죽는 사이 없이 죽어라 이거지 누가 다 그냥 송장 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송장이 되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선지식들이 방편으로써 말씀하신 것 중에 돌장승이 울고 또는 동자가 울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모두가 자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어린 자식을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이나, 엄마를 잡고 우는 어린 자식의 마음이나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다르겠습니까. 엄마와 그 자식이 서로 생각하면서 우는 마음이 이게 둘입니까. 그러니 모두 깨우치고 안 깨우치고 이것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던진 말씀인데 깨우치지 않고는, 뚫리지 않고는 그 대답을 못하죠. 그러나 깨우쳤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놓아버려야 돼요. 긴 거 짧은 게, 긴 것은 긴 것대로 있고 짧은 것은 짧은 것대로 그대로 법이니라 하셨으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마당에 서 계시면서도 다리 아프단 말 한번 안하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는데 세세생생에 구르면서 또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기복으로만 믿는다면 나중에 정말이지 남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거 따르고 저렇게 하라하면 저렇게 따르는 소와 같아서 소로 태어날텐데 만약 사람으로 살다가 소가 된다면 심부름만 죽도록 하다가 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 어쩝니까? 내가 없는 내가 있어야 되요, 완벽하게. 나 없는 나가 있어야 되죠. 누구나 나 없는 나가 있어요.

아무 데나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움죽거리지 않는 내 결정된 마음, 그것은 용납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게 있기 때문에, 모든 아만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짧으면 짧은 데로 들어가서 자기도 짧아지고, 길면 긴 데로 들어가서 자기도 길어지고 더러우면 더러운 데로 자기가 들어가 같이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면 같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논쟁이 벌어지지 않지 너는 그르고 나는 옳다 그러면 벌써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은 말이예요, 접시가 와서 이게 종지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볼 땐 접시인데, 종지라고 부득부득 우기는 거야. 그러면 '아이, 그래 접시야.' 하고 같이 접시가 돼 주는 그런 자비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짧은 것도 법이고 긴 것도 법이다. 긴 것은 긴 것대로 짧은 것은 짧은 것대로, 내가 볼 때는 똑같애요.

어느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그랬대죠, 허허허. 단 건 단 거고 쓴 건 쓴 거고 말이예요. 그대로 여여하다는 소리죠. 우리가 함이 없이 하고 가니까 이 세상이 다 그대로 여여하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고정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여태 말했는데요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벌써 1초전이 과거거든요 몇 천년만 과거가 아니라 1초전도 과거예요. 그랬으니 내가 했다, 과거에 내가 뭘 어떻게 했어, 죄를 많이 졌어, 이럴 것도 없고 미래에 내가 어떡하면 잘 살까 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단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원만히 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길이 트여져요.

"놓고 그냥하면 무심히 하기에 모든 죄나 업이 다 없어져요"

이 자연의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생명체들이 생긴 것도 자연의 이치죠, 회사를 경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회사를 차렸다가 한바탕 잘못 해가지고 망하니까 다시 회사를 일으키듯이 이 세상도 그것과 똑같은 이치죠. 생명체가 자연이 생겨서 그냥 우후죽순 자라듯 하니까 문제는 커졌죠. 그러니 나중에 다 없애버리고 다시 축소해서 잘 다듬은 게 지금 세상이죠.

자연의 법칙은 한치의 에누리도 없고 우연이란 것도 없요. 우연이라고 말씀들 잘하죠. 그러나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물 떠다 놓지 않았는데 물먹을 게 어딨습니까, 내가 남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받을 것이 있으며, 내가 남을 기쁘게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기쁩니까. 그래서 서로 서로가 융하면서 살라. 혼자 살 수는 없다. 그러니 서로 서로 주고 받으며 살라. 혼자 사는 몸뚱이도 그것이 한 도량이자 한세상이다. 세상에 생명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서 공한 도리에서 내 몸뚱이를 안다면 이 세상도 외부도 다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리를 완벽하게 알 수만 있다면 연구하는 분들도 뭐는 못하겠습니까. 오고감이 없이 찰나에 오고가면서 다 보이고 다 느끼고 알고 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몇 년만 가면은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넘어도 길을 찾지 못해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식구들 중에도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 죽이려고 그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술이 취해서 때려도 속에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죽으면 좀 어때요. 아버지한테 맞아 죽으면 좀 어떠냐고요. 인생이 났다가도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뭐라고 그렇게 아둥바둥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서로 원망하면서,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형제는 형제인데 말이예요.

형제들한테 보증을 서 주고 집을 뺏기고 다 망한 집들이 더러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이치도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면 형제들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상대가 모르면 자기라도 그 집이 그렇지 않게끔 관해 주고 열심히 마음으로 도와주다보면 자기한테 보증을 서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죠.

종종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어린애가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기형아가 될 확률이 80% - 90%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그래요. '그 아이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한테 관하세요, 정상으로 나오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그렇게 쉽게 말하니까 못 믿는 거죠. 자기한테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아무리 일러줘도 도대체가 믿질 않아요. 그래도 일은 다급하고 가르쳐준대로 열심히 관했나봐요, 후에 다시 와서 그래요. '병원에서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보더니만 정상이래요' 그러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수차에 거치면서 업이 그만 것부터 자꾸 관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자기가 앞으로 살기에도 편할텐데 안 가르쳐 주고서 힘들다고 그저 끙끙 앓고 다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식들한테 관하는 것 가르키는데 돈이 없어집니까, 힘이 듭니까, 왜들 그러는지 몰라요. 조그만 힘쓰면 되는 건데 말이죠.

어떤 분은 자식이 시험을 봐도 영 안되고 돈도 더 이상 없고 아이도 힘들어하니까 생각을 깊이 해봤더랍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식탁 위에다 이렇게 '너에게도 뿌리가 있다. 과거의 너를 믿어라, 진짜 너의 주인공을 믿어라' 이렇게 써서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아이 방에도 붙이고 하여튼 그 애가 다니는 데는 다 붙여놓았대요, 바깥에 벽까지. 그러니 엄마가 그렇게 붙여놓았으니까 뗄 수는 없고 그냥 오다가다 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차, 나한테도 내 뿌리가 있다고 했지.' 하면서 자기를 믿게 되니까 시험에 덜컥 붙었어요. 지금이야 됐으니까 웃고 다니지만 그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부모의 마음이 울고 자식의 마음이 울고, 자식이 우는 걸 부모가 볼 때 애처롭고 마음 아픈 것은 말로 다 못하죠.

그럴 때 그대로 애처로워 하고 사랑하고 그런 걸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집착을 두지 말라는 거죠. 다 하되 착을 두지 말라 이거죠. 욕심을 갖지 말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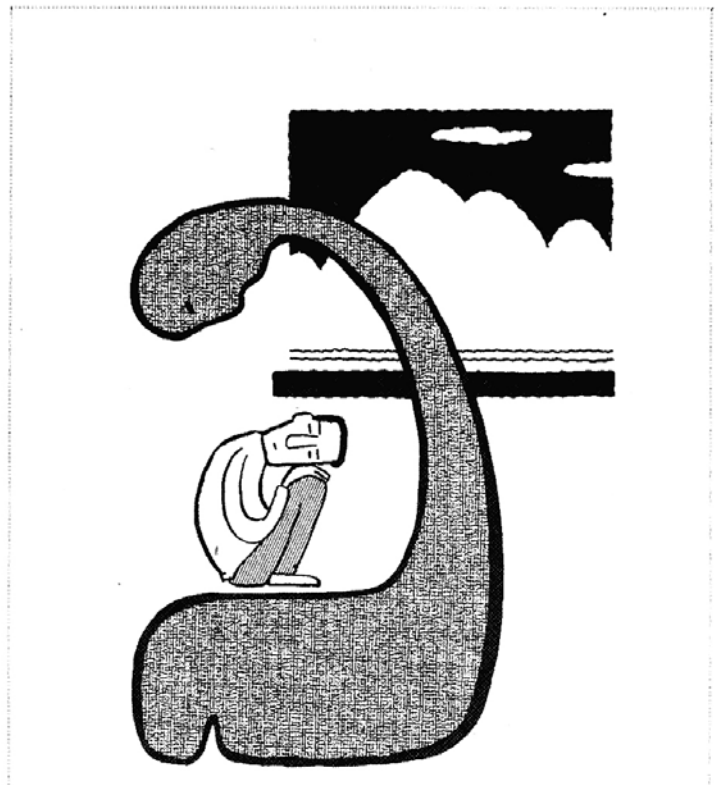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뇌혈관 경색 앓고 있어요

문 스님! 저는 울산지원에서 온 최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스님께 제 건강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 9월경에 저는 왼쪽 팔다리가 갑자기 힘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오른쪽 뇌혈관이 경색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반신 불수가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약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물치료로도 완전히 될 수는 없다고 하여 큰 병원에 가서 뇌혈관 확장 수술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선원에 다닌지 3년째 되는데 저는 집에서 그래 '주인공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매일매일 관하고 있습니다. 스님, 한마음 내주십시오.

답 이 공부라는 게 때로는요 사정없는 그 결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을 때 얘깁니다. 갈림길에 있을 때 '아이구, 어차피 한번 죽지 두 번 죽어.' 이러고 딱 버릴 때, 순간 그게 있는 거지, 그렇게 다닐 때 다 다니고 마음이 급해서 뛰는데 그러면 이것은 씨가 먹히질 않아요. 물론 다니는 것도 법이죠. 그러나 왜 그렇게 주인공을 부르는데도 안 되느냐 할 때 내가 답답해서 그러죠.

원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피가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온통 쏟아지는데 의사들이 수차에 들여다봐도 어디서 나오는 줄 모르는 거예요. 며느리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으니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아주 급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들은 또 아주 높은 관직에 있고 하니 밀짚모자 쓰고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 나같은 건 참 우습죠. 그러나 며느리가 피는 자꾸 쏟아내는데, 병원에서는 알아내지도 못하고 시간이 자꾸자꾸 가니까 그 시어머니가 아마 나를 결사적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도 원하길래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거지같은 나를 들여보내겠소. 허허허, 시어머니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겨우 나를 데리고 갔는데 나는 들어가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사흘 후에 퇴원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흘 후에 퇴원시키겠습니까?' 하고 말이예요. 그랬으니 그쪽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소?

이 공부라는 게 때로는요 사정없는 그 결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있을 때 얘깁니다. 갈림길에 있을 때 '아이구, 어차피 한번 죽지 두 번 죽어.' 이러고 딱 버릴 때, 순간 그게 있는 거지, 그렇게 다닐 때 다 다니고 마음이 급해서 뛰는데 그러면 이것은 씨가 먹히질 않아요. 물론 다니는 것도 법이죠. 그러나 왜 그렇게 주인공을 부르는데도 안 되느냐 할 때 내가 답답해서 그러죠.

원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피가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온통 쏟아지는데 의사들이 수차에 들여다봐도 어디서 나오는 줄 모르는 거예요. 며느리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으니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아주 급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들은 또 아주 높은 관직에 있고 하니 밀짚모자 쓰고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 나같은 건 참 우습죠. 그러나 며느리가 피는 자꾸 쏟아내는데, 병원에서는 알아내지도 못하고 시간이 자꾸자꾸 가니까 그 시어머니가 아마 나를 결사적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도 원하길래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거지같은 나를 들여보내겠소. 허허허, 시어머니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겨우 나를 데리고 갔는데 나는 들어가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사흘 후에 퇴원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흘 후에 퇴원시키겠습니까?' 하고 말이예요. 그랬으니 그쪽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소?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한번죽지 두번죽나'
하고 딱 버릴때
한마음 되듯
이 공부는
사정이 없습니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리는 이리로 가도 좋고 저리로 가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안한 거에요.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방사선 치료를 하면 구역질을 하고 온통 야단들인데요. 마음공부하면서 관하면 방사선을 쬐어도 끄떡없대요. 왜냐하면 그 의사가 하는게 아니라 의사가 화해서 정말 부처님의 손이 되는 거죠.

신장결석 수술해도 안나아요

문 저는 지금 오른쪽 콩팥에 직경 2미리 정도의 결석이 있답니다. 작년에 여덟 번을 레이저로 수술해도 그것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빼내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스님 마음 많이 내주세요.

답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복잡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복잡다단한 그걸 어떡하면 좀더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쉽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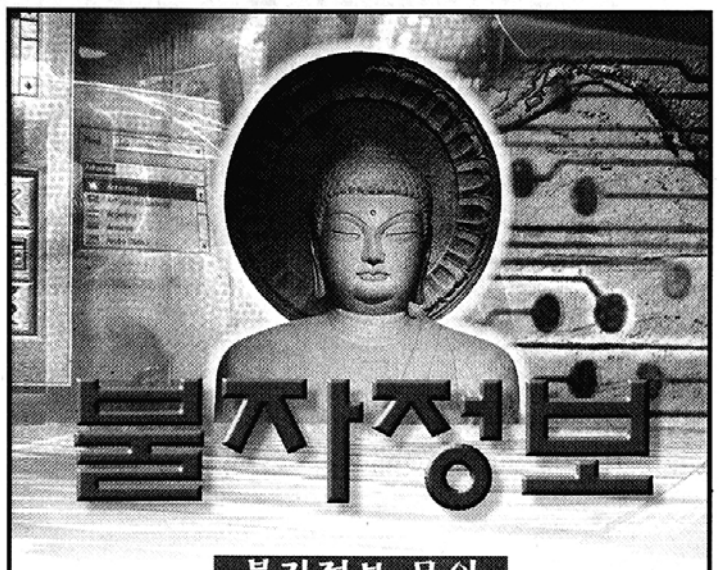
결석이 됐으면 그 결석을 어떡하면은 오줌이나 대변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댁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그냥 세계와 같더라잖아요. 골창도 지고 그냥 온통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얼마나 복잡한지 길을 모르면 정말 길을 잊어버리겠더라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다 자기 할 탓이니까요, 누구를 의지할 것도 없고요, 누구한테 마음 내달라 할 것도 없어요. 그저 부지런히 자기 뿌리한테 관하고 또 관하고 여기도 자주 나오세요. 아, 바깥에 저렇게 꽃피고 새우는 봄이면 뭘 합니까. 내 마음이 편해야 봄이죠. 안그렇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내가 남에게 주지 않으면 받을것도 없어
영혼과 불성이 둘아니게 될때 자기 구제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1)1166-3858

간병인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02)363-7884
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당뇨완치
대한불교원융종 세운정사
0671)626-4984
011)696-4848
전북 남원시 하정동 226번지

강좌

易학교육전문학원 육성교재
집에서 배우는 **易학** 학습지
좋은 스승, 좋은 교재를 만나야 제대로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8주 완성
역학계의 혜성 박규명 (전직교사·59)원장이 만들었습니다.
떨으십시오. 떨는 것도 인연이지만….
농협 037-01-298413 (예금주) 글향기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7001 (042)525-5774

사주·명리 지도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 학술위원 /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학술위원)
◆ 金東炫 선생 직강 ◆
(기초이론 및 실제감정, 초보자환영)
◆ 도연 역학 연구원 ◆
전화문의 : 894-5233
·위치: 경기 광명시 하안동 중심상업지구 사거리 태정B/D3층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출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사주 명리 수강생 모집
▶ 사주·신수·궁합·택일·작명·방위
▶ 진로 선택 등을 자신있게 간명할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 해암사 서울포교원 법정스님 직접지도
혜암선원 02)962-9871
이문동 외대앞

구인

절운영 맡겨주실 분
◆모든 불치병치료 능통함.
◆기치료법 전수함.
광 명 스 님
016)385-7455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을 맡아 운영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5년이상 수행하신 분)
0595)882-4849

스님 모십니다.
02)933-6701
02)932-2537

스님을 찾습니다.
1978~79년에 운문사 강원에 계시면서 방학을 맞아 음성 은사스님 사찰로 가시기 위해 상주포교당에서 쉬어 가시던 키가 아주 작은 비구니 스님 연락 바랍니다.
053)473-8952

경주시 황용산 토굴에 사는 비구승입니다.
탁발을 위해 천도재, 49재, 기도 및 법회 보아 드립니다.
필요하신 사찰이나 뜻있는 불자은 도움 주시는 마음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561)773-8640
동로 합장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경남 합천 거창방향)
기도하시면서, 무상으로 지내실 분 원합니다.
053)427-8481
011)9594-4700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서울 대림3동
근본불교회관
02)831-3887

선오·선재스님이 **선요스님**을 찾습니다.
안거처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0561)
773-0773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탈종공고

◆ 탈 종 공 고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학도원 ■주지: 이동호(혜담)
■ 주 소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심평리 산 1-9번지
위 사찰은 귀종단과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합니다.
1999년 4월 14일

기타

수맥찾기 강좌
1.신비추 L-로드 사용법(목요일)
2.저렴하고 간단한 수맥차단제 판매
3.사찰요청시 무료수맥점검 실시
4.수맥상담 및 기타문의 환영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4불사 대웅전, 선방, 요사채, 종각, 산신각, 기둥은 육송만 사용. 그리고 4미터 이하도 육송을 사용해 드립니다.
▶시공사찰
용주사 용화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안사 비봉사 승가사 진관사 그외등등
현재 은선사 천운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大慈大悲 달마도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KBS 2TV 달마도의 신비출연-98.7.24)

▶ 수성사
02)540-5926
무하합장
이사, 삼재 차량운행
수맥차단
5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뜻으로
반야심경사경을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고저 합니다.
■ 규격 : 33cm × 130cm(8폭)
■ 가격 : 액자용 2만원
병풍 5만원
0558)632-2826
011)837-2826

순수한 토종 염주열매가 여는
목암주 나무를 염가분양합니다.
062)222-6003(주간)
062)224-8895(주간)
062)234-0095(야간)

당신의 자녀 무엇이 문제입니까?
키! 성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18)
326-5998

개발지(땅) 투자
국제공항, 항만, 공단 배후신도시 상업지 및 주거예정지
02)539-3232
017)310-4153
담당 : 박 수 진 (법명: 명주)

달마도 전문 표구사
30년 전통의 병풍, 표구, 달마, 사찰작품 전문
달마의 氣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수기법으로 표구합니다.
▶ 달마도의 영험함은 氣에 있습니다. 불자의 신심으로 氣가 상하지 않도록 특수비법으로 표구합니다.
▶ 달마님을 모시어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명표구사로 문의 바랍니다.
(代)02)374-9886 **유명표구사** 합장
택배·전국 어디나 보내드림 서울 은평구 응암4동 585-8

경주 불국사·기림사·골굴암
성/지/순/례
1999년 4월 20일 화요일 **안산 현대불교신문지국이 주관**하여 당일코스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문의처: 0345)494-8859
BB 015)135-5105
현대불교신문 안산지국

사찰안내

사찰 (급) 안내
◇위치 : 대전 ◇부지 : 800평
◇법당 : 50평 ◇요사 : 50평
◇가액 : 1억 8천(시가의 1/3가격)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서울 서대문구
◆법당 : 15평(즉시법회가능)
◆부처님 삼존불, 방2, 주방 2, 회장실 1
◆가격 : 스님과 면담후 아주 저렴한 전세가로 드립니다.
※탁발하시는 스님 원합니다.※
02)823-0788
019)218-0788

포교당 안내
◆위 치 : 대구 성당사거리 3층 56평
◆보증금 : 2,000만원
◆월 세 : 30만원
◆시설완비(옥상 사용가능)
019)270-2260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서울
■법당 : 20평
■요사: 70평 ■부지: 800평(국)
■가액 : 5억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지 : 430평
◆건평 : 100평(아래층 75평, 위층 25평)
◆ 가격 : 1억 9천(가격절충)
◆ 덕산온천 옆(교통편리함)
0458)337-6348

양평 서종 부지
◆소재 :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408번지 409번지
◆지목 : 토임 630평(2필지)
◆가액 : 1억2천
◆특징 : 서울에서 40-50분거리
0338)772-7235
016)341-7235

토굴 안내
◇ 위 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방 3)
◇ 가액 : 2천 8백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 전기 미설치
018)621-6969/0595)882-6407

사찰 급 안내
◆위치: 전남 고흥군 과역면 소재지 5분거리
◆부지: 대지 약 500평+전 700평 대웅전 및 요사 80평, 부지창고 및 샤워실 10평, 종각 및 미륵3불, 석등15평
◆한국감정평가: 1억5천 (50%이상 상환절충가)시설비 1000만원
1. 1994년 1월 주공된 사찰
2. 포교, 중창, 최적지
3. 사찰인구까지 차량진입 (아스팔트)
4. 교통요충지 (고속터미널, 차량1분거리)
02)836-3822/019)277-7072
0666)832-3903, 3904

토굴 안내
◆위치: 안동시 길안읍 금곡리 336번지 용담사 입구
◆대지: 675평
◆특징: 계곡을 끼고 경관이 수려함. 토담집 한채
◆가격: 1천 5백만원(절충 가능)
011)541-9457

사찰(급)안내
◆위치 : 진주시
◆부지 : 142평, 대지(등기필)
◆법당, 요사 : 37평
◆가액 : 1억 3천만원
◆특징 : 진주시내 10분거리 소재, 교통편리, 준공 4년, 고급 전원주택 (임법당), 시설일체 무상기증
080)048-4848
011)488-3339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산청군 금서면
◆부지 : 약 2113평
◆건물 : 5동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샘터, 창고 및 화장실1동)
◆가액 : 2억 5천만원
◆특징 : 소박 편안하며 조용한 지리산 자락으로 식수에 수질이 좋고 양이 풍부함, 사찰경내까지 도로 포장 및 주차장 있음
053)651-9363

포교당 안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산신탱화
◆시설 완벽
053)942-0700
011)501-2219

포교당 안내
◆위치 : 군포시 금정동 금정공원 앞
◆3층건물 내, 법당 30평, 옥탑 식당, 사무실
◆법당내부 삼존불 및 시설완비
◆가격 :전세 2,5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함)
※ 주지스님 강원도 토굴로 입방하므로 모든 걸 두고 갑니다.
019)352-3187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이천소재 (서울 약1시간대)
◆대지 : 약 430평
◆법당 : 15평(방 3)
◆성전 : 27평(법회당·사무실)
◆요사채 : 43평(방 11개)
◆가액 : 3억 5천만원
◆특징 : 취락 발전 요충지 확정, 고속도 신설, 서울 근린지역
0336)643-9051

사찰 안내
◆위치 : 천안 옥천
◆부지 : 약 1천평(종중땅)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용궁, 칠성각, 요사채 2동, 석물미륵, 탑등
◆가액 : 8천만원(절충가)
02)838-2929
0417)566-5892

토굴(별장) 안내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소재
◆부지 : 대지 200평, 건평, 32평 (방3개, 거실, 부엌, 목욕탕2개)
◆가격 : 1억(절충가능), 단층 벽돌집, 신축 3년(전원주택)
※ 부곡하와이 온천에서자가용 20분, 밀양에서 40분, 마당까지 진입가능
0551)51-7486/051)891-725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밀양에서 25분거리)
◆ 평수 : 242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2개, 차량진입 가능, 약사여래 부처님, 미륵존불, 관세음보살님 모셔져 있슴.
◆ 가격 : 1억 2천(절충가능)
0527)391-5369

서울·부산지역 사찰구함(급)
⊙ 서울·부산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 전화 상담시 상담내용은 보안유지 합니다.
한국불사연구소 (02)561-7020

사찰 안내
◆위치 : 서울시내
◆부지 : 약 500평
◆법당 : 40평 ◆요사 : 30평
◆가액 : 2억 7천만원
◐ 전국사찰 양도·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다량보유)
좋은인연 (02)561-7791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89번 버스종점옆)
◆평수 : 법당 40평
◆삼존불, 영가단, 삼성각, 방2, 주방, 샤워장
◆가격 : 보증금 1,500만원-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2)521-7512
017)339-0566

사찰(급)안내
◆위치 : 경남 창녕
◆평수 : 120평
◆교통편리지역임
0559)526-2488

포교원 안내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평수 : 25평
◆법당 주방시설 스님거처할방1
◆가격 : 전세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2)954-1289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마산 지역내 교통중심지
◆부지 : 500평 이상(주차장 포함)
◆법당 : 31평(목조건물, 단층필, 3포5포)
◆요사채 : 100평, 주지실 10평, 명부전 15평(단층필)
※시설일체 무상기증, 주차무제한
※경남지역 개인사찰 또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으로 스님의 신병으로 인하여 불교발전을 위해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총공사비 13억이나, 병환관계상 8억 5천만원으로 드림
011)885-2876 정수스님
※장난전화 사절

포교원 안내
◇ 위 치: 부산 온천3동 수덕포교원(최고위치)
◇ 건물: 30평
◇ 가액 : 전세5천, 월세가능 (시설비 일체포함)
051)503-0177
018)311-3744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 개통

생활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worknet)이 지난 1일 개통돼 구직자나 구인업체는 집과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직등록과 구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워크넷에서는 상시 고용직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용직 등에 대한 구인정보를 제공한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work.go.kr이며 PC통신은 go worknet으로 연결하면 된다.

봄맞이 꽃 직거래 장터

봄맞이 꽃직거래 장터가 서초구 일대에서 25일까지 열린다. 서초구에 밀집한 화훼생산농가가 참여하며,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꽃을 살 수 있다. 서초구청~환승주차장 이면도로, 조달청 앞 도로, 방배2동 청사앞 등 3곳의 보도에서 판매가 이뤄진다.

전국서 과학의 달 행사

과학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23일부터 사흘동안 부산에서는 과학문화재단과 부산시 교육청 공동 주최로 50여가지의 첨단과학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과학축전이 열린다. 이밖에 행사는 다음과 같다. △가족 물로켓발사대회=18일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서(02)555-0701 △사이언스데이=24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영화 상영, 등 (042)861-2542

추억의 증기기관차 여행

여행 추억의 증기기관차로 휴일을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가 개설됐다. 구간은 서울역에서 신촌 수색 대곡을 지나 일영 장흥 송추를 거쳐 의정부까지. 일요일과 공휴일 하루 한 번만 운행. 오전 10시15분 서울역을 출발해 11시50분 의정부역에 도착하며 휴식을 취한 뒤 오후 5시 다시 서울로 향한다. (02)392-1324

엽서로 보험계약 취소가능

보험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계약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엽서 한장만으로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5일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서류에 첨부된 '계약확인반송엽서'를 보험사에 보내 계약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호제도를 강화했다.

예술의 전당 '99교향악축제'

공연 전국 16개 교향악단이 참여하는 99교향악축제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지난 9일 막을 올렸다. 이번 축제에 참가하는 음악가는 모두 1천6백여명으로 지휘자, 협연자 등 국내의 유명한 음악가가 대거 참여한다. 공연은 26일까지 매일 오후 7시30분(4월9일, 23일 오후 8시. 16.17일 쉼)에 시작된다.

국립공원 '제山 깎아먹기'

골프장-스키장 8곳 '삽질'…말로만 자연보호

구역조정 정책토론회서 훼손 심각성 제기

태우거나 파괴하거나 물을 대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을 자연계를 지켜 가는 행위라 부른다. 그러므로 성읍·부락·산림, 온갖 길과 모든 다리와 자연의 굴과, 모든 곡식-콩·삼·보리나 꽃과 과일·초목·숲 따위를 응당 파괴치 말며, 응당 베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여러가지 물건들은 어느 하나도 사람이나 축생에게 있어서 유용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니건자경〉

생태학적으로나 문화유산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관리할 목적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은 우리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우리의 생명줄이다. 그런데 바로 그런 국립공원이 파헤쳐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립공원 구역조정 정책토론회'에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장호 부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낱낱이 지적하고 나섰다.

이부회장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설악산 등 전국 국립공원 8곳에 골프장과 스키장 등 모두 3백65만5천여평 규모의 레저시설 조성사업 승인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4배,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1.4배에 이른다. 또 북한산 우이동·다도해상 명사십리 등 18곳 7억3천8백만평에는 대규모 집단시설지구가 조성중이거나 착공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80년부터 96년 6월까지 설악산·덕유산·치악산·가야산·태안반도·계룡산 등 6곳에 골프장을, 치악산과 덕유산 등 2곳엔 스키장 건설이 승인됐다. 이중 덕유산 골프장과 스키장, 계룡산 골프장은 이미 문을 열고 영업중이다. 설악산의 경우는 이미 백담계곡·오색천 등에 휴게소와 산장 등이 들어서 하천과 산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상황은 96년 6월까지는 문화체육부의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각 시·도가 세수확보와 지역개발 명목으로 골프장·스키장 승인을 마구 내주었기 때문이다. 또 올 8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국립공원 구역조정에서 국립공원 전체면적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지리산 등 모두 20곳. 그리고 이들 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국토 면적의 3.8%다. 이 작은 규모의 땅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주된 이유라면 더더욱 말이 안된다.

전세계 1백42개 국가도 우리처럼 명승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자연공원에서는 고슴도치나 야생동물이 돌아다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불교는 모든 흙과 물이 모두 우리의 몸이요, 불과 바람은 우리의 본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면서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이같은 가르침은 자연을 해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찰소재 CF '좋은 반응'

근심을 푸는 곳 '해우소'. 사찰 화장실이 멋진 배경으로 등장하는 '불가리스' CF. 겨울편에 이어 최근 여름편이 등장, 잔잔한 웃음을 자아내며 한편의 드라마처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광고는 해우소, 사천왕상, 작은 담벼락, 우거진 숲 등 사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산사에 온 듯한 착각을 준다. 배경으로 등장하는 북한산을 컴퓨터로 합성해 제작된 이 작품에서 해맑은 표정의 동자승으로 나오는 하승철(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 4년)군은 어느절 동자승이냐는 문의가 올 정도로 삭발이 잘 어울려 귀여움을 독차지 하고 있다.

서울광고기획의 김양석PD는 "직접적인 제품 표현 보다는 이른 새벽 사찰 해우소의 모습을 통해 보는 이들이 스스로 상황을 이해 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불가리스' CF 장면.

성격은 선천적이다

美 아이오와대 연구팀 뇌세포 활동 분석결과

사람의 성격은 뇌의 어떤 부위가 활발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은 타고난 생물학적 차이 때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어서 흥미롭다.

미국 아이오와대 데브라 존슨 교수팀은 "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의 뇌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은 내성적이며 뇌의 중앙 깊숙이 있는 대상회전과 옆 부분인 측두엽이 활발한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최근 미국 정신과학회지에 발표했다. 뇌와 성격을 관련지어 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

"소그룹 활동 왕따 해결"

초등교 교사 신뢰회복 프로그램 제안

(주)가우디가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3개월간 실시한 현상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인천 백학초등학교 공숙자 교사(38)가 제시한 방법은 평범하면서도 체계적이어서 관심을 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이렇다.

▲1단계 '함께 해요'(친구를 확인)-6~7명의 소그룹 편성, 그룹별 노래와 구호제정 ▷2단계 '마음을 열어요'(친구의 소중함 깨달음)-역할극, 친구 칭찬 글쓰기 ▷3단계 '우리는 하나'(신체접촉 통해 신뢰회복)-친구 손잡고 달리기, 팀 대항 놀이, 그룹별 악기 연주회 ▷4단계 '힘을 모아요'(협동심 발휘)-공동작품(그림·공예)만들기, 공동 숙제하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 위주지만 최근 '왕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직장에서도 특성에 맞게 변형시켜 실시한다면 효과가 있을 듯.

시론

'사랑의 매' 필요



은정희
〈서울교대 교수〉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가 항간에 한창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요즘 와서 더욱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까닭은 교사의 체벌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는데 있다. 체벌을 한 교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학생, 교사의 꾸지람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 자기 자식이 조금 부당한 체벌을 받았다고 해서 수업 중에 교실에 들어와 교사의 뺨을 때리는 학부모들에 대한 기사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교권이 날로 추락해 가는 교육 현실의 모습을 어느정도 반영해 주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인격 모독 체벌 감정 휩쓸린 체벌 권위적 체벌 이것만 아니라면"

교사의 체벌이 필요하다, 아니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어느 한 쪽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체벌 없이 교사의 인격적 감화로 교육의 성과를 모두 달성한다면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교사의 끈기 있는 설득으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일이야말로 교육적 목적을 최대한 고양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교실에서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부득이 체벌이 가해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 두건의 비교육적 체벌 행위 때문에 아예 학교에서 체벌행위를 금지시킨다면, 자칫 교사 스스로 학생을 선도하는 일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수도 있다.

교사의 체벌이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내는 사례들을 우리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으며, 반면에 교사의 부당한 체벌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아 교사를 존경하지 않게 되거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있어왔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체벌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 체벌이 교육적이었는지 교육적이지 않았는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교육적 신념아래 행해진 '사랑의 매'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품고 이에 항거하겠는가. 다만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것은 충분한 설득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되는 체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체벌, 교사의 감정에 의해 휘둘러지는 폭력에 가까운 체벌 등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들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참된 스승으로서의 교사상을 한꺼번에 무너뜨린다. 더욱이 교사를 포함한 어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대항할 줄 몰랐던 예전의 학생들과는 달리 무조건적인 복종보다는 사리의 정당함을 더 잘 따지고 자신의 감정을 곧바로 표현하는 요즘의 학생들에게 단지 교사라는 권위 그리고 그 권위에 의존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지는 체벌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체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이거나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이거나 모두 어떻게 하면 교육 현장에서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바람직한 교육의 장을 형성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되풀이되는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교육 현장에서 체벌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라지고 누구나 바라는 바의 교육 활동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사 스스로도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본다.

햇차 할인 판매

【 햇차 선금 할인판매 주문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봄기운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또한 봄의 싱그러운 햇차 향기도 함께 전해오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가정에도 봄기운이 따사롭게 들어오길 기원하면서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초의문화재단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좋은 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회원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 「'99 햇차 미리 주문」 행사를 마련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실시해 왔으며 '97년 까지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다만 몇몇 분들이 지리산이나 보성에 가서 함께 차를 만들어 나누는 행사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봄 부터 더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그 행사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좋은 햇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차 문화 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 지리산 차 주문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구분 \ 차종류	우 전 차	초 의 차(세작)	감로차(중작)
주문가격	35,000	17,000	12,000
회원가격	45,000	27,000	17,000
일반가격	80,000	40,000	23,000
차만드는 시기	4월 12일 ~ 4월 20일	4월 21일 ~ 5월 5일	5월 6일 ~ 5월 20일
햇차 할인 선금판매기간	~ 4월 10일	~ 4월 20일	~ 4월 30일
차 발송 기간	4월 21일 ~ 4월 30일	5월 1일 ~ 5월 15일	5월16일 ~ 5월 31일

■ 우전은 ~ 4월10일, 세작은 ~ 4월20일, 중작은 -4월30일까지만 선금입금과 함께 주문을 받으며 5월1일부터는 정상가격으로 판매됩니다.

■ 연락처 : 초의문화재단 전화 02-732-2317 팩스 02-732-2319
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6-6 인터넷 : http://www.teancha.co.kr

■ 계좌번호 : 006-01-0452-791 (국민은행) 예금주 전증석

【 지리산 악양 제다 실습장에서의 제다실습 】

지리산 악양으로 제다실습 하러 오세요!!
지리산 악양의 차 공장에 제다실습을 위한 숙박시설 및 제다실습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제다실습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 한가지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착순 접수하여 실습할 수 있게 해 드리며
혹 신청인원이 많으면 실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빨리 신청 하세요!!

■ 초의문화재단 지리산 악양 제다 실습장에서 알려드립니다.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안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55㎝』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인생관 형성 도움주는 포교"

교법사단 '바람직한 청소년교화' 세미나

경전상에 나타난 청소년의 모습은 어떠하며 부처님은 청소년 교화에 있어 어떤 방법을 제시했나. 또 오늘날 청소년 포교의 그 방법론은 무엇일까. 청소년 포교의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총체적 질문의 해답을 찾으려는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청소년 예비불자아닌 주체성 있는 신도
수행방법 개발·쾌적한 환경 제공해야

전국교법사단(단장 고우익)이 창설 54주년을 맞아 10일 오후3시 동국대에서 기념세미나를 갖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교법사들은 청소년 포교의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방법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특히 '경전상에 나타난 청소년 교화의 방법론'을 주제로 발제한 이학주 교법사(명성여고)는 경전 속에 보이는 청소년의 모습을 △건강한 청소년상 △갈등 청소년상 △청소년을 선도하는 부모와 스승상 등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교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법사는 "불교적 관점에서의 청소년상,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는 일이 우선 이뤄져야만 이후의 모든 포교불사가 올곧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포교 방법론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포교는 자칫 답보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법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증일아함경〉 〈잡보장경〉 〈대장엄경론〉 등에 나타난 청소년의 모습은 △어른보다 훌륭하기도 하며 어른을 구제하기도 하며 △구도심이 강하고 끈기도 있다. 하지만 △어른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는 청소년 △미약하고 어리석은 청소년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법사는 "경전속에 나타난 다양한 청소년상에 대한 부처님의 행적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선한 존재로서의 절대적 긍정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갖는 것"이라며 "오늘날 청소년 포교에 있어서도 그들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올바른 인생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렇다면 청소년 포교에 대한 관점의 전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대해 이법사는 "청소년 불자는 미래의 예비 불자가 아니라 당당한 불자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이가 어린 것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욕망과 번뇌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만 적절하게 작용하면 어른보다 더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어른들이 사회적 체면과 세속적 이기심에 얽매여 실천할 수 없는 일도 청소년은 과감하게 도전하여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청소년은 모자라는 미완성의 인간이 아니라 가능성이 무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수행법 개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을 평등하게 보살펴 줄 것 △적절한 방편과 보상을 제시하여 정법으로 이끌 것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을 강조하지 말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청소년 포교는 그들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⑪



용 태 영
〈변호사〉

1973년 '부처님오신날 공휴권 제정 확인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 2년여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음력 4월8일을 부처님오신날 공휴일로 제정하는데 헌신했던 법조인 용태영 변호사(70).

용변호사는 지난 1월 고희를 맞았다.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 유유자적 세월을 즐길만도 하지만 한해 1백여건의 송사를 준비하고, 하루 7~8시간을 자서전 집필에 시간을 보낼만큼 분주하게 지낸다. 그 분주함이 함께 생활하는 변호사 사무실 식구들에게는 치열하게 보이기도 한다.

36년동안 법조인으로서 '타고난 저울대 정신'을 살려 끊임없이 정의의 편에 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성취를 위해 도전하며 살아온 것이 그의 삶이다.

'하면된다' 강한 집념이 활력 원천
소식·규칙적인 생활로 건강다져

"끝없이 도전하는 집념없이 100년, 200년을 살면 뭐 하겠느냐"는 용태영 변호사의 달처럼 용변호사의 건강비결은 따로 있지 않았다. '하면 된다'는 강한 집념을 갖고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체적 건강까지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귀띔한다.

용태영 변호사의 강한 성취욕은 과다한 술, 담배가 유해하다는 의학적 소견도 무색하게 할 정도다. "하루 담배 1갑 반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즐기지만 70년을 살아오는 동안 건강진단 한 번 받아본 일 없고, 약 한첩 지어먹어 본 일이 없다"는 것.

"건강을 과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 애 쓰기보다 스스로 기(氣)를 살려 '할 수 있다'는 성취욕을 키우고, 매일 소식(小食)으로 3끼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용태영 변호사는 또 "다소 무리하게 일을 하더라도 기상과 취침시간을 지키는 등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잃지 않도록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대전광역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99 청소년 자원봉사박람회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최한 '99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가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익산 지부는 지역 특성을 살린 자원봉사프로그램의 홍보활동을 펼치며 불교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제주 시민포교원 청소년교화 중심지로

청교련·대불련·룸비니등 연계활동
불서모으기 캠페인·문화운동 전개

'제주불교거사림 시민포교원'이 제주도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불교거사림회가 3월18일 제주시 삼도1동에 문을 연 시민포교원에 도내 불교 청소년 단체를 위한 법당과 사무실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동안 여러지역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던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주지부, 제주교원불자회, 고등학생 불자모임 '룸비니' 등이 한 공간에 모인 것.

법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무실에 각각 둥지를 튼 이들 단체는 앞으로 상호연계를 통해 시민포교원을 도내 청소년 포교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가장 큰걱정거리였던 지도교사와 법사 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됐다.

특히 '룸비니'는 대불련의 형들이 행사·법회뿐만 아니라 학업까지도 도움을 줄 계획이어서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듯 든든해 졌다. 뿐만아니라 불자교사모임인 교원불자회의 지원과 가르침도 청소년 교화에 한몫을 할 전망이다. 또 제주청교련은 포교원 내에 불서(佛書) 및 교양도서를 비치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우리문화 자강운동 등을 월별 주요사업으로 진행해 도내 청소년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박지훈 대불련 제주지부장은 "법당 사용시간의 중복을 피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는 '열린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불자들에게는 신심을 북돋을 수 있는 수행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명예기자 접수 17일 마감

현대불교신문은 우리 생활과 밀착된 살아있는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 명예기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준 1기 명예기자에 이어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실 2기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자 격: 주부, 직장 및 불교단체 종사자(지역 무관)
◇인 원: 00명
◇활동내용: 취재 및 제보
◇대 우: 채택된 기사 원고료 지급
◇접수마감: 4월 17일 오후 5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 수 처: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22-4162

단 신

파라미타 이사 7명 선출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6일 99년도 제1차 이사회의를 열고 신임 총재·회장 인준 및 이사 선출 등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신임 총재에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당연직), 회장에 조계사 부주지 지홍스님(당연직)을 인준하고, 일반이사에 △지광(능인선원 주지) △원혜(봉은사 주지) △성관(수원포교당 주지) △원택(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성타(불국사 주지) △도후(신흥사 주지) △지홍(낙산사 주지) △세영(신륵사 주지) 스님을 선출했다. 또 사무총장에 법경스님(조계종포교원 포교국장), 감사에 △지현(조계사 총무국장) △화암(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스님을 선출했다.

이밖에 올 사업계획으로 오는 7월 '파라미타 청소년연합캠프'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평가를 통해 격년제 및 권역별 실시를 재론키로 했다.

청교련 예술경연대회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제12회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를 5월30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한다.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보급하고 건전한 여가 보내기 운동전개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고 있는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는 그동안 청소년문화를 스스로 창조하고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대회의 경연분야는 △전통예술부문(국악연주·탈춤·고전무용·마당극·판소리 등) △현대예술부문(현대무용·시낭송·합창·댄스·관현악연주 등)이다. 접수는 5월8일까지. (02)735-5138

정토회 봄맞이 신앙대회

정토회(회주 법륜스님)는 '신심고취와 원력성취를 위한 제10차 새봄맞이 신앙대회'를 24~25일 백제불교 초전성지인 우면산 대성사에서 개최한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4일 도문스님(대각사 주지)의 입재법문과 함께 업장소멸을 위한 철야정진, 25일 서암스님(前 조계종종정) 특별법문과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수계법회 등으로 진행된다. 동참금 1만원.
(02)587-8992

문화부 '우리는 청소년' 배포

문화관광부는 각종 청소년 정보를 수록한 정보지 '우리는 청소년'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전국 청소년 관련단체 및 학교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이 정보지에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모든 것 △청소년 대상 인터넷 사이트 △청소년을 위한 PC통신 공간 △청소년의 여가활동 알림터 △청소년의 해외연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지역연락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금지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주말 참선방 안내

불자가 단기출가하여 대운스님과 함께 참선수행을 하며 입방중 승가 전통인 두끼의 발우 공양을 하게 됩니다.
많은 동참 간원합니다.

아 래
●일 시 : 매주토요일 오후7시입방
일요일 오전9시 방선 (회향)
※ 단기출가수행이므로 사찰기본의식(예불 공양 울력등)은 동참하여야 합니다.
●입방비 : 무료
●교 통 : 의정부시 북부역 토요일 오후5시 지장사 차량대기 출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중간 덕계리 저수지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경법회 안내
삼세제불의 정체이며 만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경전을 우리 손으로 사경함으로 마음이 일심으로 모아지고 수행력과 공덕을 날로 증장된다고 하였습니다.
●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의정부시 북부역 오전 11시 차량대기)
● 회 비 : 무료임

전화 : 0351)863-1888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산 71
지장사 대 운 합장

지장만일기도·
6만지장보살님 조성불사안내

서울 불광동에서 30분거리, 아름다운 호수가 2개 있는 산자수려한 양주 백석 도리산 육지장사는 6만 지장보살님 성상을 모시는 조성불사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밤 철야기도 정진 및 오는 10월 만일기도 (30년) 입제가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을 받고저 하시는 분은 필히 동참 바랍니다.

■ 만일기도입제일
1999년 10월 17일(음9월 9일) 오전 10시
■ 만일기도 1년 동참비 : 1만원(30년 30만원)
■ 지장보살님 한분 모시는 동참금
10만원(1자 5치)
접수처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7-12
삼보사 ☎ 352-6406
기도처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산128-1
도리산 육지장사 ☎ (0531)871-0101
■ 은행계좌번호
국민은행 833-01-0097-579
농 협 045-01-202971
우 체 국 012468-0136873-11
하나은행 110-082213-00104
주택은행 415637-01-002302
▶ 예금주 : 지장기도만일회

삼보사 육지장사 주지 지원 합장

· 화제의 신간 ·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中人 洪淳徹

▪제 1 편 : 부처의 생애
▪제 2 편 : 부처의 가르침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 (sakyamuni Buddh)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말씀.
· 불교란 「삶의 바른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 관음역서 ♣
◆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양장 신국판 정가 40,000
◆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 정가 25,000
◆ 사주학 핵심비결 양장 신국판 정가 25,000
◆ 고전 풍수학 설심부 양장 신국판 정가 25,000
◆ 혜서 명리진평 양장 신국판 정가 30,000
◆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정가 15,000
◆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정가 15,000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A5 신/ 양장본 /40,00원

관음출판사 ☎ 921-8434, 929-3740 FAX 929-3470

몰·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몰.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다기함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크기 : 50×39×15cm

찻 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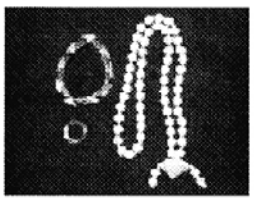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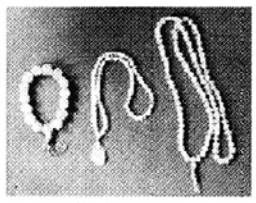
찻 상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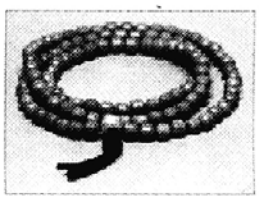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수암옥 단주

가 격 ₩ 45,000

수암옥 장미, 옥팔찌, 반지 세트

가 격 : ₩ 49,000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가 격 : ₩ 9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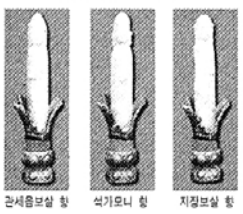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 단주

가격 ₩ 10,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색상 :금색,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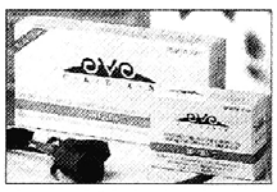
현상공덕 향

관세음보살 향 석가모니 향 지장보살 향
가격 ₩ 9,500 (1개당)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촘부다라니 불

재질 동
특징 수공이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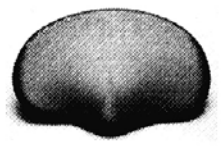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거산 죽염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참선 명상 방석

· 실용신안 1998-025009
· 의장등록 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 보호
· 휴대가 간편함
가격 : ₩ 27,000
규격 39㎝×43㎝

경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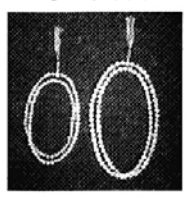
가격 : ₩ 85,000 / 재질 ASH(느름원목)
규격 : 72㎝(가로)×34㎝(세로)×32㎝(높이)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 600,000

기도 청자 세트

₩ 25,000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집, 촛대 바침막이2개

건강 옥 염주

종 류 · 청옥 ·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수월관음좌상

가격
₩ 120,000

사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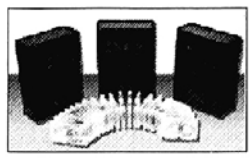
가격 ₩ 120,000
최고급 엠징
타블로이드 판 / 253쪽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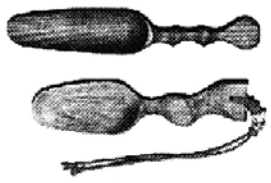
경전카드

가격 : ₩ 15,000 순금 99.9%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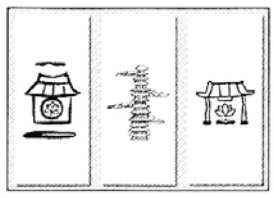
묘법연화경(전7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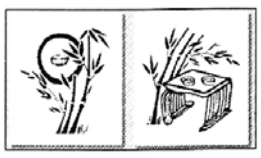
가격 : ₩ 140,000 (복장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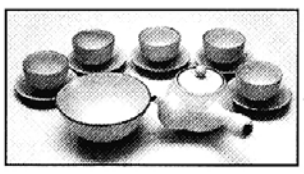
차 시

재질 : 참나무,고목,등 / 가격 : ₩ 15,000(1개)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가 격
₩ 20,000
순금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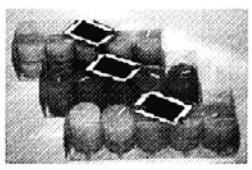
기도포

가격 ₩ 1,600 / 기장 84㎝ 폭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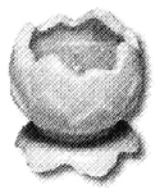
다포

7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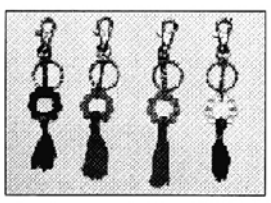
고산다기

가 격 : ₩ 120,000

대나무 잔

크기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리틀 향초

가격(10개입) : ₩ 5,000

연꽃 향초

가격 : ₩ 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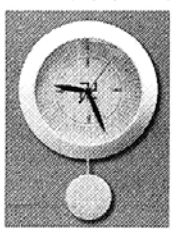
단주 열쇠고리

종 류 검정, 밤색, 투명 / 가격 : 낱개 ₩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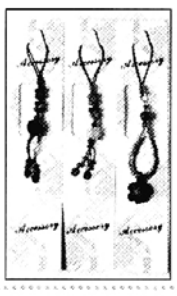
반야심경 향로

가격 : ₩ 25,000
크기 : 4(높이)×7(지름)cm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색상 진녹, 검정
크기 55㎝(가로) 140㎝(세로)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핸드폰 걸이

종류
거북이 ₩ 2,000
만 자 ₩ 4,000
무 상 ₩ 4,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청화대선사 법회 비디오

가격 : ₩ 15,000

부처님 일대기

가격 : ₩ 10,000
어린이용
만화 비디오 테잎

강화사자발쑥

· 1달분 1통(1,500정) ₩ 55,000
· 2달분 2통(3,000정) ₩ 80,000

작설차 (우전 · 세작)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작설차 (중작 · 대작)

중작 ₩ 60,000 / 대작 ₩ 40,000
(2통 한세트)

한국불교 총람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한국불교 총람 CD롬

가격 ₩ 60,000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珍珠佛像 및 動物像

관음상(中) ₩ 1,146,000 /15㎝×11㎝×29㎝
관음상(小) ₩ 836,000 /13㎝×7㎝×30㎝

소(大) ₩ 594,000 / 38㎝×12㎝×20㎝
소(中) ₩ 458,000 / 30㎝×10㎝×15㎝

돼지 ₩ 606,000 / 35㎝×12㎝×21㎝

상품설명
1) 진주 불상 및 동물상은 순수 진주로 장식한 국내 유일의 작품입니다.
2) 작품에 사용한 진주는 민물 담수 조개에서 채취한 것이며 다섯가지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3) 아름다운 진주를 다발로 묶어 像에 장식하는 과정을 거친후 국내 유일의 작품이 만들어 집니다.
※진주 감정평가서 첨부
4) 진주 채취기간 : 4~8년

호랑이(大) ₩ 1,215,000 / 70㎝×20㎝×45㎝
호랑이(中) ₩ 472,000 / 45㎝×23㎝×15㎝

사슴(大) ₩ 634,000 / 50㎝×20㎝×22㎝
사슴(中) ₩ 476,000 / 31㎝×20㎝×22㎝
사슴(小) ₩ 282,000 / 18㎝×7㎝×22㎝

말(大) ₩ 620,000 / 35㎝×11㎝×36㎝
말(中) ₩ 440,000 / 25㎝×9㎝×26㎝

토끼(大) ₩ 486,000 / 33㎝×15㎝×16㎝
토끼(中) ₩ 418,000 / 11㎝×14㎝×25㎝

불교 전통창살문양 손수건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문구 넣어 드립니다.
가격 : 1장 5,000원 (원색 칼라)

법회안내



혜암스님 (조계종 종정) 16일 오전 10시 불광사 금하당 광덕대선사 49재 법회. (02)413-6060



서암스님 (전 조계종 종정) 15일 오후 7시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 고승초청법회. (02)541-0002



고산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13일 화요일 오후 4시 동국대학교 정각원 고승초청법회. 16일 오전 11시 봉은사 큰스님초청법회. (02)2260-3016



보각스님 (소쩍새마을 원장) 20일 오전 11시 보리사 화요법회. (02)562-9939



정병조교수(동국대) 24일 오후 7시 대한불교법등회 창립 7주년 기념법회. (051)523-1480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4월16일 (금)

■ '정보화시대와 선의 효용성' 특강=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은 오후 2시 충북대 이동한 교수를 초청, '정보화시대와 선의 효용성'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02)541-0002

■ 지역민 위한 경로잔치=해동용궁사는 18일까지 지역민들을 위한 경로큰잔치를 연다. 17일에는 노인들을 위한 위안의 마당을 마련하고, 연예인 초청공연도 펼쳐진다. (051)722-7744

■ 불교사 바로보기 강좌 '근대불교의 시작과 전개'=오후 7시 불교사 바로보기 두번째 강좌 '근대불교의 시작과 전개'가 인하대 정광호교수의 강의로 진행된다. (02)736-0386

4월17일 (토)

■ 경주 향림사 청소년을 위한 작은 음악회=경주 향림사는 지역내 4대 종교 합동주최로 오후 4시 경주 예술극장에서 제2회 청소년을 위한 작은음악회를 연다. (0561)761-2593

■ 선학원 시민선방 철야정진=선학원 중앙선원은 저녁 8시 철야정진법회 입방식을 갖는다.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좌선 철야정진을 진행한다. (02)732-3327

■ 해남 대흥사·미황사 불교문화기행=옛돌은 해남 대흥사와 미황사로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 한반도 최남단 땅끝마을과 고산 윤선도 사적지도 함께 돌러본다. (02)2266-1233

4월18일 (일)

■ 금강메아리 모악산 금산사 산행법회=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전북 김제 모악산 금산사로 성지순례 및 산행법회를 떠난다. 오전 7시 동대문 이스턴호텔에서 출발한다. (02)772-9517

■ 전국장애인불자 팔공산 갓바위 산행대회=대구 대광맹인불자회는 전국의 장애인 불자들과 함께 제8회 팔공산 갓바위 산행대회를 갖는다. 오전 10시에 출발한다. (053)256-0114

■ 금산사·귀신사 순례=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미륵신앙, 법상종의 근본도량인 김제 금산사를 찾아 진표율사의 사상을 조명하고, 통일신라시대 화엄십찰의 하나인 귀신사를 방문한다.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한다. (02)725-1284

■ 강남포교원 개심사 성지순례법회=강남포교원은 오전 7시 충남 서산 개심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02)539-2631

4월19일 (월)

■ 영어선불교 강좌 개강=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은 저녁 7시 화계사 현각스님이 지도하는 영어선불교강좌를 개강한다. 영어교재 〈선의 나침반〉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02)541-0002

4월20일 (화)

■ 마곡사·장곡사 순례=국토문화연구회는 공주 마곡사와 칠갑산 장곡사로 순례를 떠난다. 오전 7시 30분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에서 출발한다. (02)2261-1313

조계사 2000년 위한 열린 강연회

조계사(주지 고산)가 '세상을 향해 열린, 도심 속 쉼터'를 표방하고 10일부터 사회 저명인사 초청 열린 강연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로 실추 됐던 조계사의 이미지를 일신하고 한국불교포교 1번지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한 강연회는 17일·24일 오후 2시 문화교육관, 5월15일 오후 3시 대웅전에서 각각 열린다. 강연회는 10일 〈나무야 나무야〉〈감옥으로부터 사색〉의 저자 신영복교수(성공회대)가 '상생(相生)하는 삶 이야기'를 들려준데 이어 17일 녹생평론 발행인 김종철교수(영남대)가 '생태위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 24일 주민황(인도 델리대)박사가 '티벳불교 전통에서 미래를 배운다'를 주제로, 5월 15일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영남대)가 '금강산 답사기'를 주제로 불자들과 만난다.

종단소식

조계종

대장경수호 정대불사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는 24일부터 25일까지 5백여명의 스님과 2만여명의 신도가 참여하는 제 39회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를 거행한다.

24일 오후 4시 시련을 시작으로 열리는 정대불사는 해인삼매법문, 대령관욕, 영가천도, 괘불봉안 등의 순으로 비석거리와 대적광전, 보경당등에서 진행된다. (0599)931-1001

태고종

환경보존실천 수륙법회

태고종 강원종무원은 8일 강원도 영월 동강교 둔치에서 영월댐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보전실천 영산수륙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원종무원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동강댐의 안정성 미확보 △댐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변이 △지역주민에 대한 이익분배 미원칙등의 문제를 들어 댐건설 백지화를 천명했다.

전몰장병 고혼천도

조국 평화통일 기원 및 전몰장병 고혼 천도를 위한 수륙영산대법회가 20일 오후 1시 민통선내 철의 삼각지전망대 앞 광장 및 강산저수지서 개최된다. 이번 영산대법회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이 하루빨리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국민대화합의 장으로 마련된다. (02)745-2030

백련사 월해주지 진산식



서울 백련사 제36세 최월해 스님 주지진산식이 4일 백련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진산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과 신도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월해스님은 취임사에서 "백련사가 종단의 수사찰이 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람을 일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태종

중부전선서 점등법회

총무원(원장 운덕)은 22일 오후 6시30분 철원 중부전선 3사단 멸공 OP에서 호국광명점등식을 갖는다. 운덕 총무원장을 비롯 종단 간부스님과 합창단, 신도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1부 점등 기념법회, 2부 제등행렬 등으로 진행된다.

진각종

진각논문대상 공모

교육원(원장 일정)이 진각논문대상을 공모한다. 교육원은 불교학과 밀교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교일반과 밀교교학, 밀교사, 밀교관련 응용분야, 진각종 종학 등 밀교일반을 주제로 논문을 공모한다. 전형방법은 논문계획서로 하며, 접수마감은 24일까지다. (02)913-0133

학비모금 문화공연

진각복지재단(상임이사 회정)은 밀각학생회 주관으로 24일 오후 3시 동숭동 마로니에 노천극장에서 불우학생 학비지원을 위한 문화공연을 연다.

미륵종

종정·총무원장 취임법회

2대 종정 법련스님 추대식 및 3대 총무원장 송정스님 취임식이 1일 대전 대원사에서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범사종

봄철 연수·방생법회

총무원(원장 성순경)은 5월2일 백양사와 선운사, 석정온천에서 금강원과 울산지부 원각사 합동 춘계연수 및 방생대법회를 갖는다.

5월2일 오전 7시 평창동 금강원에서 출발하며 참가자는 법복과 가사를 준비해야 한다. (02)395-2571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 알림

▲무료법률상담=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053)476-7700

▲주부·노인등 부업알선=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내 저소득자, 주부, 노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스카프접기, 플러스 가게만들기 등의 부업을 알선해 준다. (053)476-7700

▲제주 유채꽃 걷기 대회=한국체육진흥회는 제주 서귀포시와 공동주최로 24일~25일까지 제주 유채꽃 걷기대회를 전개한다. (02)849-7077

▲가정봉사 파견사업=부산진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가정 노인을 대상으로 세탁, 식사수발, 목욕 등의 가정봉사파견사업을 실시한다. (051)818-0454

▲한중차문화교류=한국차문화협회는 16일~22일까지 한중차문화교류행사를 실시한다. 중국, 단동, 압록강, 호태왕비 장군총, 국내성, 환도성 등지를 돌러본다. (02)701-0475

♣ 강좌

▲일진스님 경전특강=불교사회교육원은 3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청도 운문사 일진스님을 초청해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강의한다. 동참금은 6만원. (053)784-3669

▲수화교실=신도림복지관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6시 30분 3개월 기초과정의 수화교실을 연다. (02)831-9792

▲간병인교육=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19일~23일까지 제6기 주부 및 준고령자 어진간병인 교육을 서울 상계동 사천왕사에서 실시한다. 교육 후 수료생 전원에게 간병인 교육 수료증과 적십자사에서 수여하는 가정보건일반강습과정 수료증이 주어진다. (02)733-3221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신도림복지관은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자격증(2.3급)반을 개강한다. (02)631-9792

▲청소년문화교실=부산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놀이로 배우는 영어교실, 국악교실, 종이접기 취미반, 수지침, 경락마사지 등 청소년문화교실을 마련했다. 선착순 마감이다. (051)405-5223

♣ 모집

▲사회복지사·간호사·영양사 등=인덕원은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할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총무과장, 간호사, 영양사, 경리, 사무원, 보일러기사, 생활보조원, 조리사, 취사보조원, 건물관리 및 미화원 등 직원을 모집한다. 서류접수는 24일까지. (02)385-8205

▲종무소 직원=가평 극락정사는 종무소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한다. (0356)581-8844

▲노숙자 후원자=부산보현의 집은 노숙자들을 위한 현금후원, 현물후원, 가사후원, 의료후원, 재활후원 등을 위한 후원자를 모집한다. (051)506-0146

▲점자녹음도서 녹음·입력봉사자=조계사 원심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를 입력하고 녹음해 줄 봉사자를 모집한다. (02)736-5689

▲독거노인 후원결연자=연꽃마을 송파지가노인복지센터는 지역내 무의탁독거노인과 후원자를 연결해 주는 일대일 후원결연자를 모집한다. (02)203-3677

▲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덕유종합사회복지관은 결식아동돕기, 정신지체인사회적응훈련, 시각장애인 밑반찬만들기, 청소년동아리 운영을 도와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한다. (032)325-2161

▲노인 음악치료자원봉사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리는 노인 음악치료를 보조해 줄 음악치료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노래를 가르치거나 악기를 다룰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02)365-3677

▲재봉·재단자원봉사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각종 옷감으로 노인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옷을 직접 만들어 줄 재단, 재봉자원봉사를 모집한다. (02)817-8052

♣ 답사

▲경북달성 민속마을=부산불교교육원은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18일 경북 달성 태고정, 전통가옥 삼가헌, 인홍마을, 용연사 등지로 제99차 우리문화기행을 떠난다. (051)466-4080

♣ 화촉

▲본사 취재1부 김원우기자가 2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4가 고려예식장에서 장미숙씨(고양 무원중학교교사)와 화촉을 밝힌다. 016-292-1987

▲진각종 밀교신문 이재우기자는 18일 오후 1시 40분 강원도 삼척 유림예식장에서 강윤경씨(전 시대불교 기자)와 화촉을 밝힌다. (0397)572-2117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불자님께서는……

"영가천도의 중요성"과 "생활풍수의 실생활적용"에 대한 법회에 참석해 보십시오.

◎ 영가천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비법 및 효험사례와 풍수지리(음택·양택)의 미스테리한 작용 및 그 적용방법에 대한 혜천법사의 명쾌한 해법 설명회가 매주 2회에 걸쳐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본회 법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여에 걸쳐 불자님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린 "영가천도의 중요성" 책자와 풍수에 관한 "12품팔상탑주" 책자를 받아보신 전국 6만여세대의 불자님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질문과 방문상담을 받고 그 궁금증을 직접 설명해 드리는 별도시간을 갖는 것이 시간절약상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로 일자를 정하여 영가천도와 풍수에 관한 개요설명과 책자에 나와있는 비밀스런 방편들의 조성동기 설명을 함께 드리고 참석하신 불자님들께서 현재 겪고 계시는 어려움과 문제점등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직접 들어보고 그 방법등을 제시해 드리는 상담시간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책자를 보셨던 안보셨던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거나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운세와 운명을 바꾸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로 삼고 싶으시면 아무런 부담없이 일단은 이 시간에 오셔서 직접 들어보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혜천법사님과 개별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 회 내 용

●영가천도에 대한 설명●
① 영가천도의 개념 및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 주어야만 하는가?
② 수없이 영가천도를 했어도 영가의 장애라고 생각되는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영가천도가 잘 안되는 원인은 무엇때문일까?
③ 영가천도가 잘되면 집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은 어떠한 일들인가?
④ 현재의 어려운 형편과 여건이 영가천도가 확실하게 되면 실제로 좋은 여건으로 바뀌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⑤ 현재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중에 어느부분이 영가들의 장애때문인가?
⑥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도방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를 지낸 불자로서 본인이 느끼는 만족도는 어느정도인가? 또한 효험을 체험한 불자는 100명 중에 몇%인가?
⑧ 기타사항

●풍수에 대한 설명●
① 풍수는 음택(산소)풍수와 양택(주택, 사무실, 가게등)풍수로 나누는데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쪽이 더 강한가?
② 현재 본인이 겪고있는 모든일들이 조상님의 산소나 살고있는 주택의 풍수적인 영향때문인가?
③ 집안에 풍수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개선시켰을때 실제로 효과를 보거나 효과를 본 사례는 어느정도인가?
④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주택풍수상 어느정도의 운기가 있는 집인가?
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는다. 이것도 풍수적인 영향 때문인가?
⑥ 같은 업종이라해도 장소에 따라 틀티나게 울건이 잘 팔리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온종일 파리날리는 자리도 있다. 길지와 흉지의 차이는?
⑦ 앉아있는 자리의 위치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잘못된 책상의 위치, 의자의 위치가 기의 흐름을 막아 일이 잘 풀리지 않을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무실, 가게, 공장, 회사에서 책상의 배치나, 사장, 중역, 경리, 직원들의 자리는 어느자리로 앉아야 되는가?
⑧ 사찰에서도 출입문의 방위에 따라 화장실의 위치가 잘못되었을때 불사가 잘 안되고 신도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 어느 방위가 좋은가?
⑨ 자녀의 교육과 대학진학이 걱정될때 자녀방의 위치와 책상의 방향, 잠자리의 방향은 어느쪽이 좋은가?
⑩ 성공한 남편, 화목한 가정을 원할때 집의 모양과 방향은?
⑪ 상업운이나 금전운, 부부금슬, 자녀운에 대한 풍수적인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⑫ 집안에서 식구들이 거주하는 방은 어느방위가 좋은가?
⑬ 잠잘때 각 식구가 어느방위에 머리를 두고 자야만 운기를 받을 수 있는가?
⑭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중에서 어느것이 산소영향이며 어느것이 주택의 영향인가?
⑮ 상기 모든 여건이 간단한 풍수적인 조치로서 어느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가?
⑯ 기타 제반 풍수적인 조치 등.

법회일시 ①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오후4시(2시간)
(정각에 시작되므로 가능한 2시까지는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오후 4시~오후 6시까지 개별 상담

❖화요일과 금요일 법회에 오시기 어려운 불자님은 사전에 본회로 전화를 주시어 상담일자를 정하시도록 해주십시오.

관음포교원 부설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합장



◇한마음선원 신축새법당이 6년만에 완공, 18일 입주법회를 연다.

한마음선원 새법당 완공

18일 입주법회 … 5층건물에 45개 선방 갖춰

서울 수도권의 초대형 포교수행 공간으로 들어설 안양 한마음선원(선원장 대행) 신축 법당이 6년여 공사 끝에 완공돼 18일 오전 11시 입주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대행스님의 특별법문과 지난 93년4월 기공식 이후 경과보고, 발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3층 법당옆에 지하4층 지상5층의 최첨단 초현대식 건축물로 증축한 신축 법당은 대지 1,032평에 연건평 2,910평으로 조성됐다.

신축 법당은 5층에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18평 규모의 대웅전을 비롯 2층 3층 4층에 150평 크기의 법당이 들어선다. 특히 대웅전의 단청은 전통양식을 탈피한 독창적인 문양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선방만도 45개실이 자리잡고 있다.

한편 법당의 방송 통신 전산시스템은 위성케이블을 통해 전국 및 해외지원을 연결, 법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동시에 중계할 수 있는 기능을 완비했다. 또한 소방시설도 전자동 최첨단의 기능으로 구비됐으며, 지하2층부터 4층에 이르는 주차장에는 총 86대가 동시주차할 수 있다.

한마음선원은 앞으로 준공 낙성법회 이후 수행과 문화 포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지역사회에 뿌리는 '전법씨앗'

금강정사 거사회 가정법회

8년째 매월 모임…가족애로 뭉쳐
올부터 결식아동 · 불우노인 돕기

"자비원력 넓고 깊고… 대자대비 관세음께 귀의합니다…"

8일 저녁 8시 서울 고척동 경남아파트 202동 703호.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지홍) 거사회의 가정법회가 열리는 현장. 일과를 마치고 일터에서 발걸음을 재촉해 모여든 40대~50대 거사들의 우렁찬 독경소리에 온갖 스트레스로 내려앉았던 어깨에 다시 힘이 솟는다.

금강정사 기초교리반교육을 통해 불교에 입문한 거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거사회(대표거사 임승학)의 회원은 총 59명. 8년전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 저녁 가정법회를 해오고 있다. 거사회는 때로 법당에서 모임을 갖고 주지스님의 법문도 경청한다.

현문스님의 집전으로 열린 이날 가정법회에는 〈한글천수경〉 봉독을 시작으로, 석가모니불 정진과 축원, 〈반야심경〉 봉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식을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법회 활동계획을 비롯해 그달 회원동정과 대소사를 화제로 삼아 이야기 꽃을 피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정법회의 법문시간이다.

"순회 가정법회를 통해 회원과 그 가족 모두가 한가족이라는 애정도 갖게 되고, 가정에서부터 전법의 씨앗을 뿌린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윤종건씨는 말한다. 또 이한명씨는 "사회에 나온후 한동안 재대로 신행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거사회 가정법회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사회는 올 하반기부터 결식아동돕기와 불우노인돕기 등의 지역사회봉사활동으로 활동범위를 넓혀나가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사월초파일에 아기동자승 모양의 저금통을 만들어 금강정사 내 1천 가정에 나눠주고, 다 채워진 저금통을 회수해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금강정사 거사회는 이밖에도 사찰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절 살림을 함께 꾸려가고, 절살림이 제대로 운영됐는지도 조목조목 살핀다. 그래서 거사들은 "우리가 금강정사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대표거사 임승학씨는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며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금강정사 거사회의 가정법회는 건강한 불자가정을 이루고, 튼튼한 포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 바람직한 신행포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신도회장 정수근씨의 집에서 열린 4월 가정법회에서 거사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독경을 했다.

우리절 불사 — 비슬산 임휴사



◇2년간의 공사끝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임휴사 극락보전과 삼성각, 요사채. 원내는 주지 정혜스님.

21세기 종합복지관 건립

96년 마야유치원 개원
극락전 삼성각 곧 완성

기도객들의 발길이 잦은 관음기도도량이다. 250m지하에서 샘솟는 약수도 주민들의 발길을 끄는 자랑거리로 위장병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 및 도량불사에 이어 복지불사까지 꿈꾸는 종합수행도량이 있다.

921년 신라 경명왕때 영조대사가 창건한 대구 비슬산 임휴사(주지 정혜)가 바로 그 곳.

지난 96년 마야유치원을 개원해 인재불사의 초석을 마련한 임휴사는 97년부터 20여억원을 들여 극락보전과 삼성각, 요사채 중창을 시작해 단청과 석축공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봉불점안식은 부처님 오신날 이전인 음력 3월말경 봉행할 예정.

극락보전과 요사채는 각각 50평 규모로 극락보전의 경우 내외포 합쳐 12포의 닫집이 유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최근들어 임휴사는 입지상 매우 비중있는 요충지로 변모하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인근에 월성, 상인, 대곡지구등 메머드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일대 인구만 약 35만여명으로 늘어난 것.

비슬산 초입에 자리한 임휴사는 도심가까이 있으면서도 때묻지 않은 전통고찰로 새벽이면 기도객들의 발길이 잦은 관음기도도량이다. 250m지하에서 샘솟는 약수도 주민들의 발길을 끄는 자랑거리로 위장병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휴사에는 재미있는 실화가 전한다. 고려 태조 왕건이 견훤과의 팔공산 전투에서 패한 뒤 비슬산으로 도망갔는데 은적사(隱迹寺)와 안일사(安逸寺)에서 잠시 몸을 숨긴 뒤 임휴사(臨休寺)에 이르러 비로소 안심하고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절이름이 임휴사로 불리었다고 한다.

임휴사는 대망의 2천년대에도 불사로 문을 연다. 누각과 삼층석탑에 이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는 청사진을 세워 놓은 것. 7백여평 규모의 복지관부지는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얼마전 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에서 총무원 호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주지 정혜스님은 "前주지 혜담스님께서 많은 불사를 추진해 놓으셨다"면서 "2천년대를 대비한 이번 불사가 끝나면 임휴사는 지역포교의 거점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보살계 수계법회 잇달아

수덕 · 대흥 · 범어 · 쌍계사 등…"보살정신 되새기자"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게 이끌어주는 보살계 수계법회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열린다.

특히 수덕사와 쌍계사, 대흥사는 보살계 수계법회에 큰스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의 한국불교를 되살리자는 취지도 함께 부여해, 침체된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는 22일 오전 11시 만공대선사 탄신 128주년 기념 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수덕사는 만공스님의 추모다례를 봉행하고 이어 근대불교의 선맥을 진작시켜 중흥을 이룬 스님의 뜻을 계승하자는 의미로 보살 계수계법회를 연다. (0458)337-6565.

하동 쌍계사(주지 도리천)는 20일 오후 2시에 입재하여 22일 오전 12시에 회향하는 제24회 보살계수계법회를 연다.

쌍계사는 이와함께 21일 오후 8시 육조봉찬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22일 오전 8시 정대불사와 10시 육조종제를 봉행한다. (0595)883-1901

해남 대흥사(주지 법선)는 5월 10일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개최한다. 서산대사 탄신 4백79주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보살계법회는 스님의 호국정신과 국난극복의지를 본받아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을 발원한다. 대흥사는 이와 함께 서산대사 탄신 4백79주기 기념법회와 제 5회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도 연다. (0634)34-5502.

부산 범어사(주지 성오)도 28일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입재식을 갖고, 30일 회향할 계획이다. (051)508-3122

서울 능인선원(주지 지광)은 5월 1일 제 27회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계사로 1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두차례에 걸쳐 열린다.

(02)577-5800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청주 BBS 회관입주 취소 물의

충북불교회관측 "계약 파기땐 손배청구"

청주불교방송(사장 도공스님)이 충북불교문화회관 입주약속을 돌연취소하면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충북불교문화회관(추진위원장 이만호)은 지역포교공간 마련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상량식을 갖고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공사를 추진해왔다.



◇60% 공사가 진행중인 충북불교문화회관.

이후 청주불교방송이 충북불교문화회관에 입주의사를 통보하며 지하1층 발전실, 입주 실평수 1백80평, 3층에서 옥상까지 비트이용 케이블설치, 전기용량 5000kw이상 등 방송국 시설에 따른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충북불교문화회관은 설계변경(변경비 1천5백만원)하여 1개층 1백80평을 늘리고(6억 4천만원), 층고높이 조정및 방송시설에 맞게 건물을 지어왔다. 이로인해 38억의 공사비가 52억으로 늘어나고 공사기간도 올해 5월에서 10월로 변경됐다.

최근 충북불교문화회관 건립추진위가 청주불교방송에 '방송시설 이설계획'을 세워달라는 업무협조공문에 대해 청주불교방송은 3월 25일 14차 운영위회의를 열어 사옥이주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의하고 최근 청주불교방송사옥수습대책위를 구성했다.

청주불교방송은 입대보증금 마련이 여의치 않고 입지조건이 유흥가를 끼고 있으며 입주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등을 들어 충북불교문화회관 입주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충북불교문화회관 이만호 추진위원장은 "책임없는 결정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큰 만큼 이에대한 납득 할만한 해명이 있었으면 한다"며 "계속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적인 손해배상도 강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것도 삼보정재의 낭비인 만큼 원만히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해인사 부산포교원
'명진사' 10일 개원

해인사 부산포교원 명지사(주지 수인)가 10일 북구 모라동에서 개원됐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해인사 주지 보광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명지사는 1백85평 규모에 80여평의 법당과 공양간, 사무실을 갖추고, 본격적인 도심포교를 시작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이버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립고 지겹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율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에 한맺힌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법

◆ 장꿰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차돌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국제합동 Avatar 아봐타-코스

KOREA INTENSIVE AVATAR COURSE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자성이 본래 모든 만물을 낳고 자성이 본래 오고감이 없음을 당신은 아봐타 코스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1999년 5월 1일~5월 9일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 파크호텔에서 대규모 합동 아봐타코스를 개최합니다.

국제트레이너 세분을 초청하여 열리는 이 코스는 최고의 영적깨달음의 축제가 될 것이며 참가자 전원이 함께 숙박을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 아봐타 행법을 9일간 계속하게 됩니다. 참가비는 200만원이며(숙박포함) 신청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적인
아봐타코스에서 깨달음의 진수를 체험하십시오.

☞전화주시는 분에게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신청마감은 4월 20일까지입니다.

慧元 아봐타 센터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0-3 은혜빌딩 2층
· TeL : 02)579-9379, 02)575-5776 FAX : 02)572-5514

불상점안 권선문



불교란 일심을 수련하여 번뇌의 속박으로 부터 해탈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는 종교인 것입니다.
불상이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표상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귀의토록하는 집심의 존상이며 근행기원에 있어 무언의 감화와 위신력을 드리워 주는 절대의 대상인 것입니다. 불상이란 곧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약수암"에서는 오랜 기도정진 끝에 수백년된 영험 있는 불상을 한분 모셔올 수 있는 귀한 인연을 맺어 여러 불자님들께서 두루 동참하실 수 있는 인연을 맺어 드리고져 점안 행사시까지 신남신녀 여러분들의원호를 바라오니 특별하신 신심으로 인연을 맺으시어 영험있는 불상복장 불사에 동참 하시어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 점안일시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 약사여래 기도 도량
지리산 약수암 TEL (0671)625-6831
주지 무 각 총무 법 행 두손모음

전북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 183-2

동참금 1인당 : ₩10,000
온라인 농협 024-02-098803 엄길호
불사기간중 인생 상담 무료
접수하신 분들은 점안일시까지 특별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1기 佛敎儀式(범음 · 범 패) 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6개월)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 의식전문법사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원서접수 : 1999년 5월 1일까지
◆ 개강일시 : 1999년 5월 3일 오후 5시 정각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제13기 불교지도자를 위한 불교학과 법사과정 학인모집(1년과정)

불교는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과정을 대승불교의 발전사에 맞춰 꼭 알아야 할 것만 가르쳐 드립니다. 한국불교의 포교를 전담할 지도자스님, 법사,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개설된 도량입니다.

1. 교과목: 불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소승불교의 이상과 실천, 대승불교, 정토불교, 법화경 읽기, 반야심경과 공, 밀교의 세계, 천수경 읽기, 불교와 예술, 중국불교와 선, 한국불교, 비종교등.
2. 교수진: 동국대학교수 및 교계 권위있는 각 과목 전공교수
3. 정 규 : 통신 각 00명
4. 강의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5. 개강일시: 1999년 4월 24일
6.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7. 특 전: ① 승려후보생의 수계등록 ② 법사자격 취득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극장 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02) 741-0495, 0496 FAX : 765-3169
海東佛敎梵音大學
海東佛敎儀式敎育院

"불자장군 죽이기 중단하라"

조계종 종교편향위 김태복소장 기소취소 요구
조직적 불교탄압 간주…국방장관 퇴진운동 검토

종교편향 의혹이 제기돼 온 불자 장군 김태복 소장(前국방부불자회 총무) 기소와 관련, 군 고위층에서 크리스천이 아니면 군 수뇌부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진급 조차 어렵다는 항간의 소문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원혜·현진)는 7일 '101여단 군법당 건립 지휘관 김태복 소장 재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교 부대를 방불케 하는 101여단(교회 8곳, 성당 1곳, 군법당은 호국백일사 1곳) 소속 참모장었던 황 모 대령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군인들의 조직적인 불교탄압 및 무고사건일 의혹이 짙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포교부장 현진스님은 "21일까지 국방부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교침해 행위에 대해 불교계 차원에서 국방장관 퇴진 요구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파주 금단사 주지 천오스님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개신교세가 강한 101여단은 인근 사찰인 금단사 경내에서 식사중인 장병들을 불러내 얼차려를 주고, 민통선내에 위치한 금단사를 왕래하는 신도들을 고의(비상이 걸렸다는등)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101여단내 호국백일사에서 조상에 대한 합동차례도 우상숭배라며 방해할 정도로 종교편향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모함성 제보를 입삼은 전 101여단 참모장 황 모 대령은 교회 장로로서 재판을 관할하고 있는 육본 고위 장성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김 장군 죽이기에 나섰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01여단 군법당 건립을 강력히 저지해 온 황 대령이 고소장에서 "법당건립은 시작부터 불법이었다"는 편향된 종교관을 나타낸 것도 불교 죽이기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 현재 3백여명에 달하는 육·해·공군 장성의 종교분포는 개신교 65%, 천주교 20%, 불교 9%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교회 장로 출신인 김영삼 前대통령 당시부터 장성 진급에 불자들의 탈락율이 계속 높아져 온 결과로 보인다.

조계종은 김 장군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자 장성들의 개종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판단아래 종단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할 태세다. 현재 1만5천여명의 불자들이 탄원서에 서명하는등 불자들의 참여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복장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동강댐 백지화" 촉구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위원장 성조)는 6일 동강댐 건설을 반대하며 33인의 각계인사들이 33일째 농성중인 환경운동연합을 지지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성조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생명의 중요성을 주지하며 문화와 환경을 지키는 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위해 불교계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사찰환경보존위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동강댐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사찰환경보존위는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등 일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연의 보고를 잃는다면 후손들에게 부끄러움과 질타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뉴스 & 뉴스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은 종단산하 사회복지관 종사자 1백20명을 대상으로 2~3일, 9~10일 두차례에 걸쳐 1박2일간 강원도 원주 구룡사 인근 자연학습원에서 연수회를 개최했다.

종사자들의 신심고취를 통한 불교사회복지 구현 등을 목적으로 한 이번 연수회는 이정호교수(국립보건원)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따른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한 초청특강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임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명우 기자

조립식 군법당 호국월문사

육군 7군단 7포병여단은 14일 오후 2시 조립식 군법당 표준모델 1호인 호국월문사 법당 기공식을 거행한다.

조계종 포교원의 법당 건립지원비 8천여만원으로 건립되는 월문사 군법당은 지난해부터 군승단이 실용적이면서 값싼 군법당 표준모델의 필요성을 제안함에 따라 5백여만원의 설계비를 들여 만들어진 모델. 80여평의 건평에 쾌적하면서도 장엄한 법당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재경 기자

동국대 정신보건센터 운영

동국대 의과대학 포항병원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북도가 지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동국대와 포항시는 지난 7일 KBS 포항방송국에서 동국대 포항병원을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하는 것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동국대 포항병원은 정부로부터 6천7백30만원을 지원받아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정신보건에 관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등의 사업을 관장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에 의해 정신보건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포항시가 더 나은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지연 기자

동국대 소비자상담실 개설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소비자학연구팀은 3월30일 교내 계산관 2층에 소비자 상담실(실장 박명희)을 개설하고 지역주민들과 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상담에 들어갔다.

상담실에서는 소비자 문제 발생시 문제 해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중구지역내 물가지수 및 현장 조사 제품가격 비교 및 품질비교정보제공 각 소비자 단체 및 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화상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이메일 상담도 실시한다. (02)2260-3057, 3414

http://dgucc.dongguk.ac.kr/~mhpark /http://dgucc.dongguk.ac.kr/~sobija/ 강지연 기자

진각복지재단 출범 1년
복지시설 8곳 운영 '모범'

진각종이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성초)을 설립한 이래 1년동안 성북노인종합복지관등 7개 복지시설을 수탁하고 실직자 자녀를 위한 '선재의 집'을 개설하는 등 모두 8개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복지종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진각복지재단은 지난달말 관악구로부터 양지어린이 집을 위탁받은 데 이어 서울시로부터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했다. 이로써 진각복지재단은 이들 세 곳을 포함해 종로구 구립 옥인어린이집을 비롯해 성북구 구립 나리어린이집, 강북구 구립 삼양어린이집, 금호2가 어린이집 등 4곳 등 모두 7곳을 운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해에는 대구와 서울에서 늘푸른 알뜰매장과 실직자 돕기 기금마련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성북구에 실직자녀 일시 보호소인 '선재의 집'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역 복지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진각복지회 하승현 부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복지생활을 도모함으로써 자연스레 포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영국 여왕 봉정사 참배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21일 안동 봉정사(주지 문인)를 방문한다.

이날 낮 12시45분 봉정사에 도착할 예정인 여왕은 대웅전 참배, 범종루와 누각 관람 등을 거쳐 오후 1시 15분에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칠 것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누각 관람시에는 스님의 법고 시연이 있을 예정이다.

682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봉정사에는 부석사 무량수전과 더불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극락전(국보 제15호), 대웅전(보물 제55호), 화엄강당(보물 제448호), 고금당(보물 제449호)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영호남 청년불자 '화합의 장' 연다
25일 광주시민회관

영·호남 청년불자 5백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의 벽을 허무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대불청 광주지구(회장 이주성)는 25일 오후 2시 광주시민회관에서 철웅대선사초청 영·호남 청년불자교류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는 법요식에 이어 노래공연, 사물놀이, 대금연주, 살풀이 무용, 찬불가등의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이주성 대불청 광주지구 회장은 "대구지역 2백여 대불청회원을 초청하여 깨달음의 향운을 함께 느끼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제4기 귀농학교 개교
실상사등서 24일~5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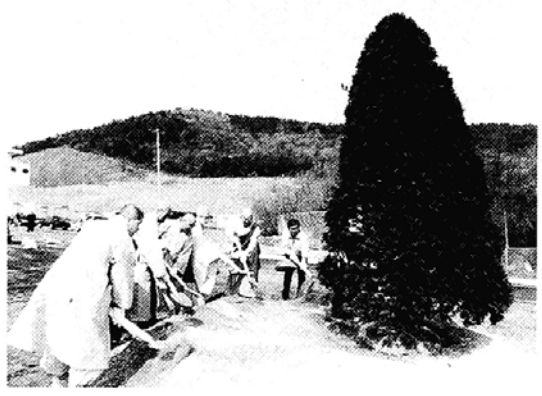
불교귀농학교(학교장 도법)는 4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과 실상사에서 제4기 불교귀농학교를 연다.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실시될 이론강의는 매주 토·일요일 진행된다. 또 5월28일부터 31일까지 실상사 농장에서는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현장교육이 이뤄진다. 한명우 기자

장애인 자원봉사 교육
원심회, 28일·5월1일

조계사 장애인포교회 원심회(회장 덕신)는 28일과 5월1일 두차례에 걸쳐 원심회 교육실에서 장애인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별 특징,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내용 소개 및 점자도서 등에 대한 교육등으로 진행된다. 홍보 및 교육시간은 28일은 오후 7시, 5월1일은 오후 3시다. (02)720-4528 한명우 기자



전국 사찰-단체 나무심기 동참

식목일을 맞아 각 종단과 사찰, 단체들이 식목행사를 실시했다.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4일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 종무원 1백여명이 참가해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에 향나무 등을 심었다(사진).

천태종은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서울 화계사와 천중사, 파주 보광사, 화성 신흥사 등도 각각 나무심기를 실시했다. 정성운 기자

"스님을 '개중'으로 모독하다니…"
미주불자들 워싱턴 조선일보에 강력 항의

〈조선일보 워싱턴〉 4월 5일자에 게재된 '월요시단'이란 코너에 스님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가득찬 "개중들"이란 시가 게재돼 미주 불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김 모씨 명의로 발표된 이 시에는 "당신네들은 봄을 타고 흘러온 시냇물을 바가지로 떠 마셨는가? 안 마셨지, 양주 마시고 커피로 입가심했지. 그것이 문제네. 얼른 가서 마시고 오게. 이런말 있지,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방벽에 빈대 한 마리 안 남는다는 말. 중이 타락을 하면 어떤 흉악인도 따르지 못할 만큼 포악해진다는 비유일세…" 등등 파격승을 빗대어 불교를 모독하는 시어들로 가득차 있다.

특히 신문사가 최소한 지켜야 할 "독자나 특정기고자의 글은 본사의 입장과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히지 않고, 무책임하게 이를 게재한 것은 의도적인 훼불행위가 아니냐는 여론이 미주 불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조선일보 워싱턴 지사장이 워싱턴에서 가장 큰 교회의 집사라는 사실도 이런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워싱턴의 한 불자는 "불자로서 심한 모욕감과 수치를 금할 수 없다. 조계종 분규의 상처가 아물어 가는 이 때에 뒤늦게 이런 식으로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간다"면서 "만약 '개목사들'이란 시를 보내면 신문사가 이를 게재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봄 호

지상중계 헤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❷
좌선(坐禪),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선의』를 교재로 좌선의 의미와 참선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좌선의에서 말하는 좌선하는 법

불교계진단 9 / 불교계 승·재가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
흔히 말하는 불교의 인물부재 결국 사람을 키우지 않은 업보라는 지적이다. 그 근본 원인과 승·재가의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9 / '99건축문화의 해 특집
우리 옛 절의 건축체험 1
가보았어도 또다시 가보고싶은 절, 부석사.
부석사는 자연을 닮아 흐름이 살아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도량이다.
젊은 건축가 류경수 씨와 함께 새롭게 음미해보는 부석사의 건축체험.

문화시평 / 불교교리의 현대적 해석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붓교의 중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교리적 근거를 통해 소개한다
- 제3의 길과 불교의 中道

특집 / 희망의 상징, 이 시대의 미륵신앙
민중들의 삶의 희망으로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민족신앙, 미륵.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정신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미륵신앙을 재조명한다.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인터넷 불교사이트 만드는 법과 운용하는 법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 학슬편
근,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의 헌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한다.
- 화엄학과 삼론연구의 대가 현곡 김잉석 박사
- 근대 한국불교학의 태두 포광 김영수 선생

우리시대의 匠人 / 불교문화를 빚는 사람들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장인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 전통 창호(창과 문) 장인, 심용식 씨

사찰과 자연생태 / 1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절집 화장실, 해우소(解憂所).
최근 환경미화를 이유로 사라져가는 해우소의 자연친화적인 구조와 형태를 소개한다

고전산책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話 4
백파 스님의 편지 - 김창판 정희에게 답함

특별기고 / 인각사 보각국사비 복원기

서평 - 허운 스님의 『참선요지』

불교계 주요일지(1998.12 - 1999.3)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1998.12 - 1999.3)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암·당뇨 중풍치료 비법
대체의학의 혁명 공개
수강생 모집
우리 인간은 100세 이상 살 수 있다.

모든 짐승은 자기 성장 과정의 10배 이상 살고 있다. 집에서 키우는 개는 1년안에 다 성장하여 15년을, 거북이는 100년을 성장하여 1,500년을 산다. 우리 인간도 다같은 동물이며, 그렇게 살 수 있다. 인간은 20세까지 성장하니까 10배면 따라서 200세 이상이 천수인 것이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자기 성장과정의 10배는 커녕 5배 이상도 살지 못하고 사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짐승들보다 뇌가 1개 더 있다. 대뇌라는 정신층뇌 전자오락 기계의 키판과 같은 정보시스템뇌 이 뇌에 자극을 주어 내인(內因)의 병인, 암·당뇨·중풍·협심증·심근경색증등 불치병을 유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짐승에게는 이런 병이 없다. 또 외인(外因)의 병에 대한 저항력부족의 원인으로 병에 잘걸린다.

정신적인 내인의 병(노·사·비·경·공·우), 외인의 병(풍·한·서·습·조·열·타박상·전염병) 이렇게 두가지 내인과 외인의 조절을 잘못하여 병으로 발전하며 실증과 허증으로 몸에 전의되어 오장육부에 깊이 병든다.

모든 병 치료에 앞서 내인의 병은 마음을 다스리고 약을 써야 하며, 외인의 병은 생활환경에 균형된 온도조절 청결이 필요하며 저항력을 길러야 한다. 또 식생활에서도 몸에 맞는 음식물을 먹어야 한다. 실증이면 운동량을 많이 하고 힘을 빼주고 허증이면 운동량을 많이하여 힘을 빼면 몸을 더욱 해치게 된다.

실증과 허증으로 병이 발전하면 오장 육부가 상생 상극에 에너지 공급 순행의 조화가 깨지고 곧 병으로 크게 발전하며 어떠한 부위에 자연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 이는 오장 육부가 자기병을 고쳐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이치로 보면 된다.

실증은 화나는 일로 피가 열받아 삼초경이 막히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고 열이 많으며 견비통, 요통, 복창이 오며 입맛은 좋고 여자는 멘스가 빠르다. 허증은 기운이 없고 가슴이 두근두근 도동을 하며 요통 4·5번이 협착되고 어깨통증, 양기부족, 뒤가 무거운 후증기가 오고 입맛이 없고 여자는 멘스가 느리다. 이러한 증상은 원인치료가 되야 통증이 사라지고 협착 부위가 퍼진다. 아무리 통증부위 치료를 해도 임시방편이며 원인치료는 안된다. **암·당뇨·중풍 치료비법, 얼굴보고 진찰, 견진법, 소운육기, 한의학 종합편, 소림복권, 내공일지선법, 자기 스스로 치료 자발기공법, 백회타통 타인에게 발공치료법**, 교육후 수료증, 지부설립 할 수 있습니다.

운암한의학 연구학회 사단법인 키와니스 기공협회 TEL 2238-4038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한의학 무료공개강좌 H·P : 016-221-2250
위치 : 신설동 마사회 골목 미림식당 앞 오성빌딩 201호

신행수기 당선작(진흥원이사장상)

사섭법을 애인삼아 ①

양보리심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 세상물정도 모르고 살아온 나는 갑자기 가족들의 생계와 아이들 학비 · 몰려오는 빚쟁이등 무거운 짐을 지고 우왕좌왕 하다 부처님을 찾게됐다



그림 · 문병성

40세가 못돼 행복했던 집안에 회오리가…
작은 금속공장이 쓰러지자 그 충격으로
남편은 뇌졸증을 앓다 세상을 떠났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은 왔는가보다. 엊그제까지도 온 산야를 곱게 물들이던 단풍도 깊가에 널부러진 낙엽도 소리없이 찾아온 계절의 변화에 단 한번의 저항도 없이 어디로인지 사라진 것을 보면 멀지않아 또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은 오겠지….

이런저런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넘기느라 많은 세월을 흘려보낸 나는 이제는 한시름을 놓는가 하고 거울을 들여다 보았다. 어느새 머리결이 희끗희끗 반백이 되어 있으니 부처님의 진리인 제행무상(諸行無常)을 뼈저리게 공감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면서 조용히 사색에 잠겨본다. 누군가가 인생의 길은 긴 경주라고 했다. 이 경주에서는 앞만보고 꾸준히 달려야만 승리도 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여 월계관을 쓸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는데 나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로 생존경쟁 속에 뛰어들어 달려야 했으니…. 때로는 지친 육신을 정신이 달래주고 피곤한 정신을 육신이 위로하며 몸과 마음이 함께 쓰러질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목적지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의 믿음과 부처님의 가피가 한데 어우러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태어난 고장은 대구 근방 채정산 밑에 있는 작은 산골마을이다. 양(楊)씨의 씨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사는 평화로운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리집은 가장 큰 사랑채에 육간대청이 있었고 방이면 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우려고 수십명의 서생들이 모여들어 대청을 꽉 메웠다. 아버지는 그 고을에서는 이름있는 한문학자 였다. 일제시대부터 나라잃은 설움과 우리말 우리글이 말살되는 것이 안타까워 인근 청소년들에게 인의예지(仁義禮智)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가르치며 열정을 태우시던 훈장님으로 유교사상이 투철했다.

하지만 1년에 두번 초파일과 칠석에는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지금 생각하니 초파일은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고 칠석에는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서 절에 보내신것 같았다. 공양미와 향초 등을 챙겨서 작은 머슴이 들고 앞장을 서면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뒤따라 갔다. 지금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후 나는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대구로 이주를 했고 즐겁게 다니던 운흥사(雲興寺)는 까맣게 잊어버린채 순조롭게 자라서 중매결혼을 하게 되었다. 신랑의 인품과 학벌과 직업이 훌륭하다고 남들이 부러워 하는 가운데 서울서 신접살림을 시작했다. 나는 별 문제없이 삼남매(아들 둘과 딸 하나)를 기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때의 작은 행복과 평화로운 환경은 당연히 나의 것이며 영원히 변함이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40세가 못되어 집안에 회오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모든 것이 깨지고 말았다.

남편은 작은 생산공장(금속제품)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무너지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뇌졸증을 앓다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몇년후 사망하고 말았다. 그때의 시대상황은 지금처럼 IMF시대는 아니라도 국가에 외채가 많다고 했으며 일차 석유파동(1973년)에다 긴축정책으로 조금은 어려운 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세상물정을 모르고 살아온 나는 갑자기 가족들의 생계와 아이들(초중고생) 학비와 몰려오는 빚쟁이 등 무거운 짐을 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의지할 곳을 찾아 다시 부처님을 뵙게된 것이다.

이웃 친지들 따라서 처음으로 찾아간 절은 삼각산 정상에 있는 고찰이었다. 불교 교리도 전혀 모른채 나는 급한 김에 무조건 기복신앙으로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비록 교리는 모르지만 가파른 산길을 오르노라면 번뇌로 찌들어진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정신이 한결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자주 산을 오르내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 일을 당했을 때는 허둥지둥 무척 헤매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현실로 닥쳐왔다. 먹고 입는 문제와 교통비, 학비, 의료비 등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다.

지금의 처지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온 식구가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식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라도 살아야 했다. 이유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을 올바로 키우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일단 목표가 정해진 이상 나는 앞만보고 달려야 했다. 그때부터 나와의 외로운 싸움은 끝없이 이어졌다. 한번 마음놓고 앉아버리면 영원히 좌절할 것만 같았고 한번 짝을 놓고 누워 버리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불안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더욱 내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 일자리를 찾던 중에 '주부수금사원 모집'이란 광고를 보고 내 발로 찾아간 곳이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였다. 그때만해도 일반인에게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나 역시 보험상식이 전연 없는데다 잔뜩 위축되어 있던터라 도저히 못할것 같았다. 하지만 당장 밀천이 없으니 보따리장사도 못하겠고 단 한명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회사의 유치작전에 말려들어 꼼짝 못하고 다니게 되었다.

〈계속〉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재질 : ASH(느릅 원목)
■규격 :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가격 : 8만5천원

•구입문의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卍 佛子반야반지 卍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 테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

십육대력(十六大力)
지력(支力),의력(意力),행력(行力),참력(斬力),강력(强力),지력(持力),파력(破力),타력(墮力),변력(變力),색력(色力),신력(身力),재력(財力),심력(心力),신족력(神足力),홍법력(弘法力),항마력(降魔力)

商品名: 반야반지
재질: 금,큐빅(18K,14K-1.5돈)
가격: 18K-₩ 130,000, 14K-₩120,000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http://mall.buddhapia.co.kr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사용, 건고함을 자랑하는 연등 입니다.

접 등

이 연등은 기술 특허 출원 중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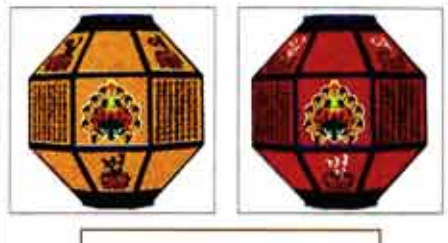
장엄팔각접등은
풀칠과 조립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한번의 동작으로 펴서 사용하고,
접어서 보관하는 팔각등입니다.

■팔상성도 (八相成道)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의 여덟가지 중요한 중생제도를 위한 모습
①도솔래의상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
②비람강생상 룸비니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
③사문유관상 사방의 문으로 나가서 중생들의 고통을 관찰하는 모습
④유성출가상 성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
⑤설산수도상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
⑥수하항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들을 항복시키는 모습
⑦녹원전법상 녹야원에서 최초로 불법을 설하시는 모습
⑧쌍림열반상 사라쌍수 아래에서 마지막 설법을

· 팔상성도 장엄 팔각등(자비충만 일체법계)



· 반야심경 장엄 팔각등(만법일여 일체법계)



◆규격 : 표준 11cm
◆가격 : 2,200원

●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에 찢어지거나 장대비 속에서도 결코 젖지않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 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장기간 사용후 물세척으로 새 것처럼 깨끗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롤 · 부다피아
● 납품방법 : 신청하신 곳으로 직배 · 택배 발송
※ 촛대, 등걸이, 이름표 포함

조 립 등

조립등은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보관되며 사용시 펴서 홈에 맞추어 넣는 간단한 방식으로 뛰어난 색감을 자랑합니다.

◐ 봉축 장엄팔각등



◐ 만다라 장엄 팔각등



◆규격 : 표준 11cm
◆가격 : 2,300원
◆200등 이상 주문시 10% 할인(2,070원), 사찰명 인쇄
◆500등 이상 주문시 20% 할인(1,840원), 사찰명 인쇄